매년 온·오프라인으로 1천여명이 모니터해온 28년 전통의 국감전문 모니터단 –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 연대체

보 도 자 료
국정감사 간이평가
2026.10.25.(75장)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전화(02)523-8760 goodlaw@goodlaw.org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코오롱애스턴 10층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의 본령은 국가5부와 지방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국민 세금 사용을 살피며 정책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는 국회의 헌법적 책무(헌법 제61조 1항)입니다

국감의 본령을 상실한 국감 부실 국감 / F

안보, 외교, 민생, 교육, 치안 등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점 대두

≪F학점 이유≫

유명무실	결과보고서 채택도 안하고(5곳), 시정처리 확인도 없음, 10.23.까지 질의 1회 당 평균은 답변까지 포함해 6분 24초(영상회의록에 나온 의원 292명의 질의횟수는 5,587회(총 595시간)으로 민생제시만 할뿐 해결책의 도출까지는 구조적으로 불가능
감사 포기	피감기관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았다. 회의록이 있는 775곳 중 245곳(31.6%)은 기관장이 질문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의원 1명에게서만 질문받은 118곳을 더하면 363곳(46.8%)이다.
민원해결(?) 일반증인	일반증인 셋 중 둘은 의원 한 명만 질문했다. 답변한 증인·참고인 188명 중 129명(68.6%)이 그랬고, 대부분 신청한 의원 혼자였다. 출석하고 한마디도 못 한 증인도 22명이다
졸속감사	자료준비(위원회당 일주일에 2,3일)한다고 쉬고, 시찰(총21회)간다고 쉬어서 실제 감사일자는 위원회당 7-8일에 불과한데(지난해보다 감사일수 2일 줄어), 역대 최다의 감사대상기관(853개, 2025년 816개 보다 37개 늘어)으로 겉치레 감사를 진행했다.
삼부 수장의 국감외면	▲ 조정자가 사라진 국회 : 국감 첫날 유럽으로 떠난 국회의장 ▲ 감사받는 정부의 수반은 어디에 있었나 : 대통령의 국감 중 여가 행보 ▲ 분쟁의 해결사가 분쟁의 당사자로 :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낭독
동료 의원 자격검증 청문회?	▲ 이진숙 의원(국민의힘) – 국감 도중 제척 (과방위, 10.12·16) ▲ 한준호 의원(민주당) – 국민의힘의 '맞불' 제척 요구 (과방위, 10.16)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 댓글 논란과 '자살' 발언 (법사위) ▲ 한동훈 의원(무소속) – 딸 의혹과 처남 사건 (행안위·법사위,교육위) ▲ 김민석 민주당 대표 – 아들 관련 법안 공방 (장외)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 수사 형평성 (행안위) ▲ 김태규 의원(국민의힘) – 운영위원 사임 요구 (운영위, 10.21 전체회의)

1. 감사받지 않은 피감기관

▲ 피감기관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았다.

- 회의록이 있는 775곳 중 245곳(31.6%)은 기관장이 질문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의원 1명에게서만 질문받은 118곳을 더하면 363곳(46.8%)이다.

▲ 국방위는 열 곳 중 일곱 곳을 묻지 않았다.

- 소관기관 70곳 중 52곳(74.3%)이 질문을 받지 못했다.

▲ 종일 앉아만 있다 돌아간 기관장이 28명이다.

- 선서와 업무보고까지 하고도 질문은 0건이었다. 기관이나 기관장 이름이 거명조차 되지 않는 기관도 217곳이었다.

▲ 피감기관 열에 여덟 개는 동시감사였다.

- 감사대상 853곳 중 680곳(79.7%)이 주 감사기관 옆에 동시수감으로 배석했다.

▲ 하루 54개 기관을 감사해 기관당 9분꼴로 끝냈다.

- 과방위 10.2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54개 기관의 감사시간이 8시간 9분이었다. 재경위 지방국세청 11곳, 법사위 대구고법 11곳은 각각 1시간 56분이었다.

▲ 지방 감사는 한두 시간만에 끝났다.

- 감사 132회(분반/오전/오후 나눔 시행) 중 34회가 3시간을 넘기지 못했다. 행안위의 울산경찰청 감사는 57분, 광주·전남경찰청 감사는 1시간 16분이었다.

▲ 책임질 기관장이 없는 기관이 41곳이다.

-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직무대행 체제였다. 행안위는 소관기관의 21.1%(38곳중 8곳)가 공석이거나 대행이었다.

▲ 낙하산 논란 13건은 의혹 제기로 끝났다.

- 현 정부 인사 10건, 전 정부 인사 2건, 김현지 실장 관련 1건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후속 조치를 정한 위원회는 없었다.

2. 질의의 질과 양

▲ 하루 감사에서 의원 1명이 질문한 시간은 평균 16분이었다.

- 감사 1회는 평균 7시간 32분 열렸다.

▲ 질의 1회는 답변까지 포함해 6분 24초다.

- 질의 5,587회(주질의,보충질의,추가질의의 합계) 대부분이 답을 들을 틈 없는 일방 질의였다.

▲ 위원장이 마이크를 쥐었다.

- 감사 122곳 중 69곳에서 위원장 질의·발언이 위원 1인 평균 질의보다 길었다. 3배를 넘은 10건 중 7건이 서영교 법사위원장(발언 170회, 6시간 13분)이다.

▲ 의사진행 등 발언만 29시간이다.

- 위원장을 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등이 914회였다. 국민의힘이 의원 1인 평균 4.8회로 민주당 2.4회의 2배였다.

▲ 같은 질문만 되풀이했다.

- 한 위원회 안에서 두 번 넘게 다룬 쟁점이 44개, 여러 위원회를 넘나든 쟁점이 12개다. 레버리지 ETF는 5개 감사, DMZ 지뢰는 6개 감사에서 반복됐고 결론 없이 사과만 남았다.

3. 민원해결(?) 일반증인

▲ 일반증인 셋 중 둘은 의원 한 명으로부터만 질문받았다.

- 답변한 증인·참고인 188명 중 129명(68.6%)이 그랬고, 대부분 신청한 의원 혼자였다. 출석하고 한마디도 못 한 증인도 22명(주로 자치경찰위원장)이다.

▲ 일반증인 중 출석이 확인된 사람은 63%다.

- 388명 중 57명은 철회됐고, 출석 대상 331명 중 출석이 확인된 사람은 210명이다.

▲ 안 나와도 그만이었다.

- 증인 32명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동행명령장은 3번뿐이었다. 김병주 MBK 회장은

10.7.과 10.23. 두 번 모두 나오지 않았다.

▲ **같은 기업인을 위원회마다 불렀다.**

- 2번 넘게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36명이다. 구글코리아 사장은 4개 위원회에서 5번 불렸다.

▲ **증인을 고르다 감사가 멈췄다.**

- '암살자(들)' 감독, 제넨셀 의혹,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임원 증인 채택 공방이 퇴장과 정회로 이어졌다.

4. 파행과 정쟁

▲ **감사가 멈추거나 지연된 경우가 13건이다.**

- 감사 중지·정회·파행이 9건, 지연·퇴장이 4건이다. 국감 첫날부터 대법원장 선서 거부와 관련 법사위 감사가 막말 고성이 난무하는 사실상 파행으로 진행되었다. .

▲ **야당이 4번 퇴장했다.**

- 국민의힘은 문체위(10.14.), 기후노동위(10.15.·10.19.), 행안위 울산시(10.21.)에서 퇴장했다. 재경위(10.8.)에서는 피켓 문제로 여야가 함께 회의장을 떠났다.

▲ **피켓과 팻말 때문에 3번 멈췄다.**

- 농해수위(10.7.), 재경위(10.8.), 복지위(10.13.)에서 피켓 공방으로 정회되거나 지연됐다.

▲ **과방위는 동료 의원 제척으로 세 번 싸웠다.**

- 10.12. 이진숙 의원 제척 가결로 정책 질의가 거의 없었다. 10.16.에는 감사가 중지됐고, 10.22.에 다시 맞붙었다.

▲ **피감기관장의 태도가 감사를 멈춰 세웠다.**

- 울산시장은 답변을 거부해 퇴장 사태를 불렀다. 경기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으로 회의가 중단됐다. 환경산업기술원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오전 질의가 열리지 못했다.

5. 일정과 공개

▲ **밤 10시 넘어 끝난 감사가 28번, 자정을 넘긴 감사가 2번이다.**

- 보충질문, 추가질문 등 질의시간이 짧은 질문 333건이 밤 10시 이후에 나왔다.

▲ **현장시찰이 감사일을 대신했다.**

- 현장시찰은 21번이고, 국회공보에는 시간도 출석 명단도 없다. 10.16.에는 정무·국방·문체위가, 10.20.에는 산자·기후노동·국토위가 감사 대신 현장시찰을 했다.

▲ **국민은 무엇을 감사했는지 알 수 없었다.**

- 외통위의 재외공관 감사는 보도가 거의 없었다. 정무위 첫날 감사, 지방 교육청·경찰청 감사도 기사를 찾기 어렵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에도 없는 곳이 있고, 27곳은 국회방송 유투브 영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6. 졸속감사

▲ **준비 없이 개시됐다.**

- 감사계획서와 증인 채택이 개시 직전에야 이뤄졌다. 국토위는 9월 30일에야 계

획서와 증인·참고인 안건을 의결했고, 국감 나흘 전인 10월 2일까지도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 하루에 여러 기관을 몰아쳤다.

- 846개 기관을 평일 약 16일에 소화하려면 위원회당 하루 3곳 이상을 감사해야 한다. 한 기관에 쓸 시간이 쪼개지면서 질의는 짧아지고 후속 질의는 사라진다. 자료준비(위원회당 일주일에 2, 3일)한다고 쉬고, 시찰(총21회)간다고 쉬어서 실제 감사일자는 위원회당 7-8일에 불과한데(지난해보다 감사일수 2일 줄어), 역대 최다의 감사대상기관(853개, 2025년 816개 보다 37개 늘어)으로 겉치레 감사를 진행했다

7. 삼부 수장의 국감외면

▲ 조정자가 사라진 국회 : 국감 첫날 유럽으로 떠난 국회의장

- 국감 첫날, 국회의장은 7박 9일 유럽 순방을 떠났다(10.6.~14.).
의장 부재 중인 10월 12일, 과방위는 야당 위원 제척안을 12대 0으로 무기명 표결 처리하며 6시간 멈춰 섰다. 의장은 귀국 후에야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조정은 사태가 벌어지는 순간에 필요했다.

▲ 감사받는 정부의 수반은 어디에 있었나 : 대통령의 국감 중 여가 행보

- 헌법상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의 1년을 검증하는 국감 기간에 여가 행보로 주목받았다. 10일 대구 상가 붕괴 사고 당일엔 골프장에 있었고, 13일 평일 오후엔 부산에서 부캉이 관람을 했으며, 15~16일엔 제주 골프장 공역통제 신청·취소 의혹까지 제기됐다. 감사받는 정부의 수반부터 긴장감이 없으니, 장관과 기관장에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

▲ 분쟁의 해결사가 분쟁의 당사자로 :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낭독

-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6일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원고를 6분간 읽으며 국회·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관여는 "위헌"이라고 네 차례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은 여당의 탄핵 논의 공식화(10.16.)와 국정조사 검토(10.21.)로 번졌지만, 대화나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분쟁을 해결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갈등의 당사자로 남으면서, 사법부를 정쟁 한가운데 세워두었다.

8.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몰고 간 3개 위원회

▲ 아름답지 못한 문체위(위원장 이재정)의 '영화 암살자들' 국정감사

영화 '암살자들' 증인 채택논란으로 파행까지
위원장이 감사위원의 질의자료(계약서) 압수 소동
현장시찰 빌미삼아 부산영화제 참석(파행, 반쪽) 관행 계속
타상임위의 현장시찰은 줄었는데, 문체위는 늘고(2→3) 감사기관 8개 늘어(60→68)

▲ 파행하는 과방위(위원장 송기헌)의 '이진숙' 국정감사

이진숙 감사위원의 국정감사 제척논란(10.13, 10.16)으로 2회 파행
지난해 국정감사중 위원장 결혼식 파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감초유의 제척의결 (과거 심재철 의원 등 감사위원 제척논란은 있었지만, 실제로 제척 표결은 처음)
지난해와 다른 정책국감 시도했으나 정쟁국감으로 변질

피감기관 국감이 아닌 기승전 이진숙국감

▲ **'조용히 하세요' 법사위(위원장 서영교)의 '조희대/공소취소' 국정감사**

연일 떠들썩한 법사위, 대통령 재판재개, 재제청 논란에 속시원한 답 없어

형사사법 대변혁기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위원장의 과다발언 논란

막말 경연, 위원끼리 상호 고소고발 예고 등 험악

위원장 시간은 전임 추미애 법사위원장 시절과 비슷

법과 원칙 소중한데 한 번도 감사개시시간 안 지켜.

참고인 채택 원칙이 뭔가?/헌법전문가도 아닌 김경호 변호사는 2회 출석

≪위원장의 마이크 점유 시간이 의원들의 질의시간보다 3배 이상인 국감≫ (10.23까지)

위원회	감사일	피감기관	위원장	질의+발언시간	위원 1인 평균 질의	배수
법 사 위	10.06.	대법원	서영교	1:51:32	17:23	6.4배
법 사 위	10.08.	법무부	서영교	1:35:23	20:28	4.7배
기후노동	10.15.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	김정호	43:38	9:46	4.5배
법 사 위	10.13.	헌법재판소	서영교	26:22	6:51	3.9배
복 지 위	10.08.	보건복지부	이만희	53:12	14:23	3.7배
법 사 위	10.12.	감사원	서영교	56:38	15:29	3.7배
법 사 위	10.15.	군사법원	서영교	33:59	9:59	3.4배
문 체 위	10.07.	문화체육관광부	이재정	1:15:12	22:32	3.3배
법 사 위	10.16.	서울고등법원	서영교	54:35	16:35	3.3배
법 사 위	10.19.	서울광역공소청	서영교	48:25	15:00	3.2배

※김정호 위원장은 질의표시 없이 진행발언만(분반 나눠서 한 경우는 불포함)

9. 잘못된 정책결정/집행으로 입힌 수백조 피해는 특검·국조/정부변상 필요

▲ **레버리지ETF 수십조손실 추산(증권사 3곳 손실평가10조)투자피해 면피성 사과**

▲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손실 평가액 182조원 논란**

10. 비교되는 2026년도 국정감사 당대표 질의/답변시간(기준10.23까지, 영상회의록)

김민석 여당대표는 합참 국감 중 벼베기 농활, 긴급주차장 사용논란, 새벽5시 소방공무원 집합(?), 지역축제 과잉의전(가수 공연 중 무대 난입?) 등 있었음

의원	정당	직책 (지역구)	위원회	불참 (곳)	질의 횟수	질의 시간	소속위 1인평균 질의횟수	소속위 1인평균 질의시간	평균대비 질의시간
김민석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서울영등포을)	국방	3 (청가)	5	0:34:25	17.1	1:43:23	33%
장동혁	국민 의힘	당대표 (충남보령서천)	교육	0	28	2:31:24	23.3	2:29:43	101%

11. 김현지 부속실장은 지난해는 '카터라' 만 있었는데, 올해 국감에서는 낙하산 인사와 함께 남편까지 거론

▲ **국민의 힘 낙하산 인사 거명** : 하동근(기후노동위) 김현지 실장의 결혼식 주례 / 황교익(문체위)

▲ **놀라운 야당의 주장인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 문체부 산하기관 46곳 중 31곳, 임추위 없이 기관장 임명 (문체위, 조은희 의원)
- 산자위 소관 신규 임원 21.9%가 '코드인사' (산자중기위, 서지영 의원, 10.7)
- 심사 꼴찌가 기관장 선임 (기후노동위, 나경원 의원, 10.10)
- '성남 라인' 자료 제출 거부(10.19 보도) 성남시장 시절 대변인, 재판 변호인 등이 억대 연봉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
- 김현지 남편 출자 세무법인 직원 3명 주요보직임명(정무위, 최은석 의원, 10.21)

12. 낙하산 인사 논쟁 재등장 / 알박기 인사 대응

≪낙하산·보은 인사 (국민의힘 제기)≫

상임위원회	날짜	기관·직책	인사	제기 의원	쟁점이 된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6~7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하동근	나경원 박수민	서류 8명 중 8위, 면접 5명 중 5위였다. 김현지 실장 결혼식 주례/ 김성환 장관은 "외압 없었다"/ 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국힘 시절 인사부터 돌아보라"고 반박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남광우	김기현 나경원 김형동	대통령 중앙대 법대 후배이고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 출신(김기현 의원은 '명지라인'이라 표현)/ 서류 3위·면접 2위로 1위 지원자를 추월/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를 내지 않아 국민의힘이 퇴장했고, 감사는 본질의 전 중단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15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장건	나경원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출신/ 경기도 시절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기금 운용 경력이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15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김성진, 홍정민	이종배	대선 캠프 출신이라고 지적/기후부 산하기관 요직에 대통령 연고 인사가 10명가량 있다고 주장
국토교통	10.13	코레일테크 경영관리본부장	김진옥	정희용	전주시의원 이력이 있고 철도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직무수행계획서를 내지 않았고 이직률 등 기본 현황에 답하지 못함
문화체육관광	10.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황교익	김석기 배현진	학술논문이 없고 직무계획서가 2쪽/응모 기준이 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의혹/ 황 원장은 "일로 검증받겠다"고.
정무	10.15	한국예탁결제원 상임이사	고진성	신동욱	대통령 중앙대 법대 동문이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2022년 대선을 도움/ 연봉은 3억3,500만원/우리사주조합이 반대했고, 선임 직후 심사 자료가 파기
교육	10.16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오정훈	서범수	자기소개서가 1쪽/ "의리가 있고 배반하지 않는다"는 내용/ 면접 없이 서류만으로 추천/ '성남라인' 의혹이 제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인태연	조지연 서지영 등	지원서·자기소개서를 내지 않음/. 김어준 씨의 처남이라는 점이 거론/ 다만 '낙하산'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음

≪알박기 인사 (더불어민주당 제기)≫

상임위원회	날짜	대상	제기 의원	쟁점이 된 내용
재정경제기획	10.14	공기업 기관장 전체(실명 없음)	안도걸	공기업 기관장 27석 중 13석(48%)이 전 정부 임명/ 이 중 9석은 2027년 이후에야 임기가 끝남/ 임기가 끝나고 후임이 없는 임원 자리가

상임위원회	날짜	대상	제기 의원	쟁점이 된 내용
				44석/ 한전KPS는 사장 선임 소송 때문에 인선이 막혀 있음/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촉구
문화체육관광	10.14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윤두현(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계원	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에 임명돼 "전형적인 알박기"라고 함/ 경산 주민 접촉에 사전선거운동 의혹도 제기했다. 윤 사장은 정치 재개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15	윤석열 정부 임명 기관장 약 20명	이건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남광우 원장 자료 요구에 맞서, 이들의 자기소개서 등 같은 자료를 요구.

13. 국방위원회 감사위원의 군복무 현황

병역특례 논쟁이 벌어졌는데 국정감사를 하는 국방위 감사위원들은 제대로 병역의무를 했나?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의 군복무현황≫

구분	의원명	정당	지역구	계급	전역/해제 사유
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이병	**수형**
간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대장	**직위만료**
간사	**임종득**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장	**명예전역**
위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소집면제	**수형**
위원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갑	병장	**만기**
위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준장	**명예전역**
위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소집면제	**수형**
위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소집면제	**수형**
위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병장	**만기**
위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병장	**만기**
위원	**강선영**	국민의힘	비례대표	소장	**명예전역**
위원	**성일종**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중위	**원에 의한 전역**
위원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병장	**만기**
위원	**유용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상병	**복무만료**
위원	**한기호**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중장	**원에 의한 전역**
위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이병	**복무만료**
위원	**김병기**	무소속	서울 동작구갑	일병	**복무만료(소집해제)**

※ 출처: 병무청 공개개방포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병역공개기관: 국회)

14. '내 돈이라면 이렇게 썼을까' / 공금을 '공돈' 처럼

▲ 비싸게 사고, 결과는 없어

- 브라질 계란, 1300원(항공료포함)에 사서 160원에 넘긴 농림부(농해수위, 김용태 의원)
- 거의 안 띄운 배에 선장 인건비 7억2천만원 지급한 수자원공사 (기후노동위, 이건태 의원)
- 38억 쓰고 중단된 구조보트, 해경(농해수위, 서삼석 의원)
- 산림청 해외 산림보호 시범사업에 67억원을 썼지만 국가감축실적은 0톤

인데 사업 확대한 산림청(농해수위, 임미애 의원)
- 중단된 R&D에 431억, 회수는 6억인 국토교통부(국토위)
- 1141억 들여 병상 늘렸는데 간호사가 없다는 국립암센터(복지위, 박용갑 의원)

▲ **공금을 '공돈'처럼**
- 1년 6개월 재임중 326일 출장이 일상인 NIPA 원장(과방위, 최혁진 의원)
- 심야 법인카드와 해외 클럽 '회의비' 광해광업공단 (산자중기위, 오세희 의원)
- 법인카드 한 번에 7000만원, 에버랜드 회원권 한국은행(재경위, 배준영 의원)
- 현금 격려금 13억, 어디 썼는지 증빙 없는 대법원 (법제사법위)
- 국고보조금으로 배우자에게 연출비로 무용단 (문체위, 김재원 의원)
- 결과물 없어도 연구비 반환은 0건인 서울대병원 (교육위, 김문수 의원)
- 사고는 늘어도 수당은 최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후노동위, 어기구 의원)
- 전용차 있는데 업무차까지 차량2부제회피 국가평생교육원장 (교육위, 김희정 위원장)

15. 논란이 된 기관장 열전

▲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문체), 특별전 셀프출품**
▲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과방), 잦은 해외출장**
▲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과방), 허위 경력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의혹**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정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론**
▲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산자), 이사장지원서 등 자료제출 거부**
▲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복지), 경영난 속에 잦은 해외 출장**
▲ **허성우 이사장(교육, 교육부 산하 안전원), 직장 내 괴롭힘**
▲ **사공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과방), KTX 승차감 개선 답변태도**
▲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법사), 격려금 편법 사용관련 '월급올려주세요' 발언**

16. 통계로 본 2026국정감사

≪제22대 국정감사 감사일수비교≫ ( )안은 시찰횟수

상임위원회(명칭, 2026기준)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전년대비증감
국회운영위원회	2	2	2	0
법제사법위원회	11(1)	11(1)	10	-1
정무위원회	10(1)	9(1)	9(1)	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1)	10(1)	9(1)	-1
교육위원회	8(3)	8(1)	7(0)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2(4)	11(3)	10(3)	-1
외교통일위원회	9	9	11	+2
국방위원회	10(3)	11(4)	10(4)	-1
행정안전위원회	11(2)	10	9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1)	9(2)	9(3)	0(+1)

상임위원회(명칭, 2026기준)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전년대비증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0(3)	9(1)	9(1)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2)	9(2)	9(2)	0
보건복지위원회	8(0)	8(1)	8(0)	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3)	10(3)	11(2)	+1(-1)
국토교통위원회	9(1)	8(1)	9(2)	+1(+1)
정보위원회	3(1)	3(1)	3(1)	0
성평등가족위원회	2(1)	2(1)	2(1	0
합계	143	139	137	-2(-2)

※ 자료출처 : 국회사무처, 각 연도 국정감사 수첩(2026년도는 10월 14일 변경까지 반영)

≪기관증인 중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수≫

(통계기간 : 2026.10.6.~10.23., 분석자료 : 영상회의록)

상임위	대상기관	질의 못 받음	한번 받음	합계	비율
국방위원회	70	52	4	**56**	**8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87	43	14	57	65.5%
정무위원회	45	20	7	27	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51	17	11	28	54.9%
기후에너지환경노동	99	44	10	54	54.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8	12	20	32	47.1%
외교통일위원회	9	2	2	4	44.4%
행정안전위원회	35	8	5	13	37.1%
법제사법위원회	82	12	18	30	36.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30	7	3	10	33.3%
보건복지위원회	57	14	5	19	33.3%
국토교통위원회	33	4	6	10	3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42	5	6	11	26.2%
교육위원회	67	5	7	12	17.9%
합계	**775**	**245**	**118**	**363**	**46.8%**

≪일반증인 및 참고인 중 질의를 못받은 비율 현황≫

상임위원회	분석대상	출석대상	출석	질의받음	질의없음	질의없음 비율
법제사법위원회	26	19	14	14	0	0%
정무위원회	32	31	27	26	1	4%
기획재정위원회	6	5	1	1	0	0%
교육위원회	30	25	17	17	0	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61	50	33	29	4	12%
국방위원회	3	3	2	2	0	0%
행정안전위원회	38	36	26	13	13	50%
문화체육관광	62	55	28	28	0	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6	15	10	10	0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8	18	6	6	0	0%

상임위원회	분석대상	출석대상	출석	질의받음	질의없음	질의없음 비율
보 건 복 지 위 원 회	37	24	22	20	2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1	8	2	2	0	0%
국 토 교 통 위 원 회	48	42	22	20	2	9%
합 계	388	331	210	188	22	10%
비고	채택증인 중 철회된 증인 57명으로 출석대상 증인은 331명임					

≪질의받은 일반증인, 참고인 중 신청의원 1명에게만 질문을 받은 현황≫

상임위원회	답변 받은 증인·참고인수	의원 1명에게만 질의를 받은 증인 참고인수	비율
법 제 사 법 위 원 회	14명	12명	85.7%
정 무 위 원 회	26명	11명	42.3%
기 획 재 정 위 원 회	1명	0명	0.0%
교 육 위 원 회	17명	13명	76.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9명	18명	62.1%
국 방 위 원 회	2명	0명	0.0%
행 정 안 전 위 원 회	13명	11명	84.6%
문 화 체 육 관 광	28명	22명	78.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0명	9명	9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6명	3명	50.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20명	17명	85.0%
기후에너지환경노동	2명	1명	50.0%
국 토 교 통 위 원 회	20명	12명	60.0%
합계	188명	129명	68.6%

▣ 대학생 모니터가 본 2026년도 국정감사

(1) 국정감사의 필요성

▲정○희(주오대) 국정감사는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서○영(연세대) 보안 사고의 증거 보존과 피해 구제, 공공사업의 선정 근거를 묻는 질의가 인상적이었다. ▲권○현(서울대) 구체적인 행정의 빈틈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국감이 필요하다. ▲안○혁(성균관대) 복잡한 금융 논의를 구체적인 생활의 문제와 연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 국감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고 느꼈다. ▲박○균(경희대) AI 시대를 향한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실감했다. ▲이○진(서울대) 국정감사는 단순히 피감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점을 느꼈다. ▲김○린(중앙대) 본질적 과제에 집중하고, 소통 인프라 강화를 이끌어낸 점은 국정감사의 실효성과 공익성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한다. ▲김○혜(동국대) 예산 집행의 부정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재를 요청하는 모습은 국정감사의 진면목을 본 것 같아 인상적이었다. ▲박○록(전북대)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최○나(성균관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질의, 실물 자료나 국제기구의 입장을 근거로 제시하는 질의가 인상 깊었다. ▲김○윤(세종대) 명확한 비위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모○윤(연세대) 국정감사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변화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활동은 국정감사의 역할을 생각해 보고, 그 과정과 결과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느낀 계기가 되었다.

(2) 국정감사의 개선점

▲정○은(서울대) 피감기관의 업무를 검증하고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할 본래의 목적이 흐려졌다는 아쉬움을 느꼈다. ▲김○아(서울대) 피감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김○혜(덕성여대) 위원장은 공정하게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의원들은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질의하며 피감기관은 지적된 문제에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아쉬웠다. ▲곽○환(경희대) 국정감사를 상대 정당을 비판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그것에 매몰되어 정작 피감기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의들에 대하여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우(서울대) 경제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감사는 심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느껴져 이와 관련하여 국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임○지(서울대) 개회 지연과 언쟁, 장관 SNS 게시 논란처럼 정쟁이 정책 논의를 가리는 장면은 아쉬웠다. ▲장○원(연세대) 질의 매너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자신의 정치를 위해 국정감사를 활용하는 듯한 모습이 많아 실망스러웠다. ▲이○우(서울대) '국감스타'가 되고자 하는 의도와 개인적 친분과 같은 요소가 국정감사의 실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려스러웠다. ▲손○민(연세대) 정치적 사건을 둘러싼 반복적인 공방과 동료 의원에 대한 인격적 표현은 정책 논의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곽○환(경희대) 실질적인 문제 개선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 정당을 비난하거나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홍보하는 것에 치우쳐진 것 같아 매우 큰 아쉬움이 남는다. ▲김○섭(경희대) 국정감사라는 시스템 자체가 정말 무수히 많은 일을 하는 어떠한 부처를 하루만에 감사를 하는 것이다보니 많은 현안들이 묻힐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다. ▲장○정(계명대)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장면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했다. 피감기관장들도 명확한 대답을 하기보다는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피했다. ▲안○혁(성균관대)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느 수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야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권에 따라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인 만큼, 각 의원이 자신이 속한 정당과 관련 정권의 판단을 방어하려는 모습도 두드러졌다. ▲김○아(이화여대) 국정감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현안을 다뤄야 하다 보니 의원들의 발언 시간이 부족해 마이크가 꺼지거나 질의가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증인이 답변하는 도중에 말을 끊는 상황이 반복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안○혁(성균관대) 권력자의 외압으로 심사 여부가 결정되는 체계는 당연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당 의원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지적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윤○빈(성신여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앞으로는 정치적 대립과 일시적인 우위 확보에 치중하기보다,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정○영(성균관대)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며, 실효성 있는 감사와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박○록(전북대) 감사원 직원들의 업무 수행이나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질의가 주로 이루어져 아쉬웠다. ▲전○서(연세대)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보다 상대방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는 듯한 모습은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황○은(연세대) 피감기관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발견하고 개선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박○균(경희대) 감사원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국가 최고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여전히 시험대에 올라 있음을 실감했다. 무성한 논란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감사라는 기본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감사원이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사회를 감시하는 진정한 통제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3)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보람과 역할

▲김○부림(연세대) 같은 지적이 반복되거나 기관장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친 장면도 많아, 감사 이후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꾸준히 지켜보는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강○헌(부산대) 뉴스로만 접하던 국정감사를 직접 보고 보고서 작성 마무리까지 해냈다는 점에서 보람이 컸다. 게다가 정책과 정치를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진 것 같다. ▲박○하(서울디지털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가 실제 제도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시민 모니터링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진(동국대) 국회의원이 국민의 선출을 통해 그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임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내가 그들에 대한 소감을 남겨보면서 선거의 큰 의미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정감사의 과정 전반을 우리 국민이 또 직접 감시하면서 국회의원 피감

기관의 잘잘못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윤○린(서울대)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와 방송의 공공성, AI 기술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해외 특허분쟁 등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학부와 언론홍보영상학부 전공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 ▲김○린(중앙대) 공익과 정책을 우선시하는 국회의 성숙한 감사 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모니터링 경험이었다. ▲정○영(성균관대) 법사위 국정감사는 법치주의와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 국민의 권리 보호가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민(연세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직접 살펴보고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국정감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뜻깊은 기회였다.

▣ 총평

지난 28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정밀모니터·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은 국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2026년 제22대 국회 3차년도(22-3) 국정감사를 모니터하여 국감을 간이평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두번째 국정감사, 1988년 부활된 지 39년째 국정감사, 여야 정권교체 후의 여대야소 국정감사인 금년도(22-3) **국정감사를 2년 연속 낙제점인 "F학점"<2025년도 F 학점 2024년도 "D-학점" 2023년도 간이평가엔 C-학점>**으로 평가했다.**≪국감종합평가 및 "국리민복상" 시상은 국감 종료후 정밀평가과정을 거쳐 12월 발표예정임≫**

모니터링을 주관한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상임공동단장**은 "**민주주의 정치이론의 권위자인 어네스트 바크 교수(캠브리지대학교)의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은 ① AGREEMENT TO DIFFER(의견의 불일치는 어쩔 수 없음을 인정), ②COMPROMISE(소수자를 위하여 양보와 타협에 진력), ③MAJORITY RULE(①②항목으로 최선을 다한 후 최후수단으로 다수결)**"이라고 전제하면서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Lord Acton)**"며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에서 부여한 정부 각부처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우리 NGO모니터단도 국회가 이러한 국정감사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니터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생이 고달픈 작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미비점을 발견하고 예산낭비 사례나 부정부패 사례의 점검 없이, 기업이나 민간인을 불러 민원성, 정쟁성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기의 자세한 간이평가 보도자료는 홈페이지(www.goodlaw.org)에 게시되어 있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goodlaw@goodlaw.org

▣ 목 차 ▣

국정감사 관심분산과 국정감사의 맥을 끈은 국정감사 민폐족 ····· 22
영상회의록 통계를 통해 본 2026년도 국정감사 ····· 25
공수가 바뀐 전현직 국회의원의 20026년도 국정감사 ····· 26
교섭단체 핵심지휘부의 국정감사 활동 현황 ····· 30
6.3 재보궐 선거 입성 국회의원의 첫 국정감사 현황 ····· 31
병역특례제도 지적 : 지적하는 주체는 제대로 병역의무 이행했을까 ····· 33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정리한 2026년도 국정감사 중요 쟁점 ····· 35
지난해(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못한 위원회가 5곳 ····· 49
상임위별 국정감사 활동에 대한 단평 : 최고는 없고 최악만 ····· 51
교섭단체 홈페이지 국정감사 홍보 이용 국회의원 현황 ····· 55
10대 일간지 국정감사(10.6.~10.19) 기사 분석 ····· 56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구태는 여전 ····· 58
국회공보를 통해 본 2026년도 국정감사의 화제성 통계자료 ····· 64
2026 국정감사 의원별 질의·발언 분석 ····· 69
위원회별 국회의원 평균 질의시간과 위원장 시간 등 조사결과 ····· 71

≪여러 상임위원회에 논란이 된 쟁점≫

10.23.까지 언론보도내역 분석

쟁점	등장일자·위원회(피감기관)
레버리지ETF손실	6일재경위(재정경제부)→8일정무위(금융위)→12일재경위(한국은행)→15일재경위(국가데이터처)→19일정무위(금감원)
DMZ북한지뢰폭발	6일외통위(외교부)→7일국방위(국방부)·외통위(통일부)→8일국방위(합참)→13일국방위(방사청)·외통위(주유엔대표부)→19일국방위(육군본부)→20일국방위(해군)
대법관재제청·사법부	6일법사위(대법원)→12일법사위(감사원)→13일법사위(헌재)→15일법사위(법제처)→16일법사위(서울고법)→20일법사위(대구고법)
영화'암살자(들)'	7일교육위(교육부)·문체위(문체부)→12일문체위(콘진원 등)→14일문체위(관광공사 등)
예술·체육병역특례	7일국방위(국방부)·문체위(문체부)→12일국방위(병무청)→21일문체위(대한체육회)
개인정보유출·해킹	6일과방위(과기정통부)→13일정무위(개인정보위)→14일농해수위(농진청)→21일정무위(공정위 등)→22일복지위(아동권리보장원)·과방위(방미통위,구글)→23일과방위(과기정통부)
기관장인사·거취공방	14일문체위(GKL·문화관광연구원)→15일과방위(KISA)·산자중기위(소진공)·기후노동위(환경산업기술원)→16일교육위(서울대병원)·복지위(심평원)→19일문체위(국립중앙박물관)·산자중기위(강원랜드)·기후노동위(지역난방공사)→23일문체위(문체부)·기후노동위(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시한강버스·주택공급	15일행안위(서울시)→19일국토위(서울시)
추미애 지사 재정·소방발언	13일행안위(경기도)→19일국토위(경기도)
장윤기 사건	12일행안위(경찰청)→20일법사위(광주지법·공소청)→22일행안위(광주경찰청)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6일산자중기위(산업통상부)→19일기후노동위(한전등)→20일국방위(공군)→22일행안위(전남광주통합특별시)·산자중기위(산업통상부)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14일복지위(국민연금공단)→22일재경위(재정경제부)

≪상임위원회별 중복질의된 쟁점≫

위원회	쟁점	등장일자(피감기관)
법 사 위	대법관 재제청・제청권	6일(대법원)→13일(헌재)→15일(법제처)→16일(서울고법)→20일(대구고법)
법 사 위	사법・헌법기관업무추진비	12일(감사원)→13일(헌재)→15일(법제처)
법 사 위	수사・기소체계개편	8일(법무부)→13일(공수처)→19일(공소청)→20일(지방공소청)→22일(공소청)
정 무 위	레버리지ETF책임	8일(금융위)→19일(금감원)
정 무 위	은행가산・우대금리	19일(금감원)→22일(금융종합감사)
정 무 위	의사진행・증인・인사공방	12일(공정위)→13일(국조실)→15일(캠코등)→21일(공정위)
재 경 위	레버리지ETF책임	6일(재경부)→12일(한은)→15일(국가데이터처)
재 경 위	재정 운용 기조	6일(재경부)→8일(기획예산처)→12일(한은)→22일(재경부종합)→23일(기획예산처・한은종합)
재 경 위	대미 전략투자 검증	6일(재경부)→20일(한미전략투자공사)
재 경 위	정치개입・중립성의혹	6일(ETF)→13일(국세청)→15일(국가데이터처)
재 경 위	세무조사 적정성	13일(국세청)→16일(대구・부산청)
외 통 위	DMZ북한지뢰대응	6일(외교부)→7일(통일부)→13일(주유엔대표부)
외 통 위	대북 기조와 한동훈 의원 공세	6일(외교부)→7일(통일부)→13일(뉴욕)
국 방 위	DMZ지뢰	7일(국방부)→8일(합참)→13일(방사청)→19일(육군본부)→20일(해군)
국 방 위	예술・체육병역특례	7일(국방부)→12일(병무청)
국 방 위	사관학교 통합	19일(육군본부)→22일(3군사관학교)
국 방 위	병역자원・여성징병제	12일(병무청)→19일(육군본부)
행 안 위	중대범죄수사청	6일(행안부)→13일(경기도)
행 안 위	기관장공백・직무대행	6일(중수청)→12일(경찰청)
행 안 위	광역단체장 공세	13일(경기도)→15일(서울시)→20일(충북도・경북도)→21일(부산시・울산시)→22일(전남광주・제주)
산자중기위	대기업・에너지정책	6일(산업부)→12일(한전・한수원)→22일(산업부종합)
산자중기위	홈플러스 사태	7일(중기부)→15일(소진공)→23일(중기부종합)
산자중기위	기관장 답변 태도	6일(산업부입지비공개)→15일(소진공등)
과 방 위	개인정보・사이버보안	6일(과기정통부)→15일(KISA)→23일(과기정통부종합)
과 방 위	우주항공청 운영	8일(현장시찰)→13일(우주청)
과 방 위	정쟁성 인사 공방	12일(방미통위)→15일(KISA)→16일(KBS등)→22일(방미통위종합)
기후노동위	노란봉투법 시행 평가	13일(고용부)→16일(경사노위・중노위)
기후노동위	자료제출거부・인사검증	6일(기후부)→15일(환경부산하)→19일(지역난방공사)
기후노동위	기업 증인 채택 공방	16일(경사노위)→19일(한전등)→23일(근로복지공단등)
교 육 위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14일(수도권교육청)→20일(영남・호남・충청교육청)
교 육 위	국립대 재정 지원 형평성	16일(수도권국립대)→21일(지방거점국립대)
교 육 위	수시 원서접수 먹통	7일(교육부)→12일(대교협등)→23일(교육부종합)
문 체 위	영화'암살자(들)'증인	7일(문체부)→12일(콘진원등)→14일(관광공사등)
문 체 위	체육 병역특례	7일(문체부)→21일(대한체육회)
문 체 위	공적 자금 집행 부실	12일(스튜디오큐브)→14일(관광기금)
문 체 위	국립중앙박물관장 논란	19일(국중박)→23일(문체부종합)
농 해 수 위	항만공사 통합	12일(해수부)→19일(항만공사)
농 해 수 위	농지전수조사	7일(농식품부)→14일(농어촌공사등)→22일(농식품부종합)

위원회	쟁점	등장일자(피감기관)
농 해 수 위	해경 구조 역량	19일(해경등)→23일(해수부종합)
국 토 위	2019년'부동산전문가현황'문건	7일(국토부)→15일(부동산원)
국 토 위	공공사업자의재무・공급부담	12일(LH)→15일(HUG)→23일(국토부종합)
국 토 위	교통안전・시설하자	8일(도공등)→13일(코레일등)
국 토 위	공항현안(제주공항지연・가덕도)	22일(공항공사등)→23일(국토부종합)
복 지 위	증인・자료제출공방	13일(식약처)→14일(국민연금)→16일(심평원)

≪한번에 10개 이상 동시 수감기관 현황-종합국감 제외 28번≫

연번	감사일	위원회	구분(반)	감사대상	기관수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기관당시간(분)	장소
1	10.20.	과 방 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54	10:04	18:13	8시간 09분	9.1	KAIST(대전)
2	10.15.	기후노동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 등	32	10:08	23:22	13시간 14분	24.8	국회
3	10.07.	국 방 위		국방부 등	30	10:16	22:34	12시간 18분	24.6	국방부(서울)
4	10.19.	문 체 위		국립중앙박물관 등	26	10:06	16:42	6시간 36분	15.2	국회
5	10.19.	기후노동위		온실가스정보센터 등	24	10:16	00:38	14시간 22분	35.9	국회
6	10.08.	기후노동위		기상청 등	17	10:07	17:00	6시간 53분	24.3	국회
7	10.16.	법 사 위		서울고등법원 등	17	10:12	18:57	8시간 45분	30.9	국회
8	10.20.	복 지 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7	10:07	20:08	10시간 01분	35.4	국회
9	10.12.	문 체 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5	10:07	19:24	9시간 17분	37.1	국회
10	10.12.	산자중기위		KOTRA 등	14	10:07	19:26	9시간 19분	39.9	국회
11	10.13.	복 지 위		식약처 등	14	10:02	22:22	12시간 20분	52.9	국회
12	10.12.	교육위원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	13	10:03	19:28	9시간 25분	43.5	국회
13	10.16.	기후노동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3	10:40	22:56	12시간 16분	56.6	국회
14	10.19.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등	13	10:02	18:26	8시간 24분	38.8	육군본부(계룡대)
15	10.19.	농 해 수 위		해양경찰청 등	13	10:10	18:08	7시간 58분	36.8	국회
16	10.08.	복 지 위	오전	부산대학교병원 등	12	10:04	13:07	3시간 03분	15.3	국회
17	10.20.	법 사 위	지방1반	대전고등법원 등	12	10:34	13:02	2시간 28분	12.3	광주고등법원
18	10.06.	과 방 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	10:04	18:31	8시간 27분	46.1	국회
19	10.06.	행 안 위		행정안전부 등	11	10:17	23:32	13시간 15분	72.3	국회
20	10.08.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	11	10:04	18:59	8시간 55분	48.6	국방부(용산)
21	10.14.	문 체 위		사행산업통	11	10:08	22:17	12시간 09분	66.3	국회

연번	감사일	위원회	구분(반)	감사대상	기관수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기관당 시간(분)	장소
				합감독위원회 등						
22	10.15.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	10:04	19:19	9시간 15분	50.5	국회
23	10.16.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법인서울대 등	11	10:09	18:50	8시간 41분	47.4	국회
24	10.16.	재 경 위	지방 2반	부산지방국세청 등	11	14:00	15:56	1시간 56분	10.5	한은대구경북본부
25	10.19.	법 사 위		서울광역공소청 등	11	10:18	18:47	8시간 29분	46.3	국회
26	10.20.	법 사 위	지방 2반	대구고등법원 등	11	10:11	12:07	1시간 56분	10.5	대구고등법원
27	10.16.	재 경 위	지방 1반	대전지방국세청 등	10	14:21	16:12	1시간 51분	11.1	한은전북본부(전주)
28	10.21.	교육위원회	지방 2반	전남대학교 등	10	10:02	16:09	6시간 07분	36.7	전남대학교(광주)
합계	기관수		455개		감사시간		235시간 49분		기관당 평균시간	31.1분

≪상임위원회별 질의받지 못한 기관≫

245개 기관(많은 위원회순, *표시는 기관장이 출석했지만 질문을 받지 못한 기관)

위원회 (질문을 받지 못한 기관수)	기관
국방위 (52)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24곳, 국군 사령부급 7곳, 육군 사령부・학교 11곳, 공군・해군・해병대 사령부 7곳, 육・해・공군 사관학교 3곳입니다. 주요 기관은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 육군 수도방위・특수전・미사일전략사령부, 해군・공군 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 등
과방위 (43)	10.6. 과기정통부 감사: 우정・전파 기관 9곳 10.12. 방미통위 감사: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10.13.: 국가위성운영센터, 우주환경센터 10.2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감사: 31곳(기초과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원자력의학원*, 천문연, 항공우주연, 화학연, 전기연, 핵융합연, DGIST, 과총, 한림원 등)
기후노동위 (44)	기상청 소속 16곳(지방기상청 7곳 포함), 환경부 소속・산하 19곳(유역・지방환경청 6곳, 생물자원관 3곳, 홍수통제소 2곳,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에너지 관련 7곳(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기위원회,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잡월드
정무위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 19곳(KDI를 뺀 산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행정연구원 등)
농해수위(1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립농업박물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농협금융지주, 농협손해보험, 농협은행,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복지위 (14)	강원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지방식약청 6곳(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공공조직은행
법사위 (12)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특허법원*, 청주지방공소청*,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대구・부산・울산가정법원, 대전회생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공소청
문체위 (1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립중앙극장, 국제방송교류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국립오페라단, 국립장애인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입니다

위원회 (질문을 받지 못한 기관수)	기관
행안위 (8)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재해구호협회*, 한국자유총연맹*,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부산경찰청
재경위 (7)	서울지방국세청*, 동북지방데이터청*, 한국통계정보원*, 한국통계진흥원*, 충청지방데이터청, 동남지방데이터청, 대구본부세관
산자중기위 (5)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으로, 지식재산처 산하기관 전부
교육위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중앙교육연수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토위 (4)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코레일유통,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외통위(2)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국감 중 출석하여 한번만 질문을 받은 증인·참고인 현황≫

위원회	일자	대상기관	구분	성명	소속·직위	신청위원	질의의원
법 사 위	10.06.	대법원	참고인	김경호	변호사	(표기없음)	서영교(민)
법 사 위	10.08.	법무부	증인	권오중	우아한청년들 대표	(표기없음)	김기표(민)
법 사 위	10.08.	법무부	참고인	김경호	변호사	(표기없음)	서영교(민)
법 사 위	10.08.	법무부	증인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표기없음)	곽규택(국)
법 사 위	10.08.	법무부	증인	김정훈	변호사	(표기없음)	김의겸(민)
법 사 위	10.08.	법무부	증인	김종욱	원문 직업란 공란	(표기없음)	김의겸(민)
법 사 위	10.08.	법무부	참고인	김지원	배달라이더	(표기없음)	김기표(민)
법 사 위	10.08.	법무부	참고인	봉지욱	기자	(표기없음)	서영교(민)
법 사 위	10.08.	법무부	참고인	윤성원	전국토교통부제1차관	(표기없음)	손 솔(진)
법 사 위	10.08.	법무부	참고인	이상현	변호사	(표기없음)	김용민(민)
법 사 위	10.08.	법무부	증인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표기없음)	김기표(민)
법 사 위	10.08.	법무부	증인	정영부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표기없음)	김기표(민)
정 무 위	10.08.	금융위원회	참고인	김예린	㈜이지포뮬라 대표	(표기없음)	전현희(민)
정 무 위	10.08.	금융위원회	증인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주)대표	김형연(혁)	김형연(혁)
정 무 위	10.08.	금융위원회	참고인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표기없음)	조정훈(국)
정 무 위	10.12.	공정거래위원회	증인	박현진	KT부사장	(표기없음)	손명수(민)
정 무 위	10.12.	공정거래위원회	증인	배기식	리디CEO	(표기없음)	김용만(민)
정 무 위	10.12.	공정거래위원회	증인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대표	(표기없음)	박준태(국)
정 무 위	10.12.	공정거래위원회	증인	최재호	토스플레이스 대표	(표기없음)	송언석(국)
정 무 위	10.13.	개인정보보호위	증인	이상운	KT CISO	(표기없음)	김용만(민)
정 무 위	10.19.	금융감독원	참고인	김예린	㈜이지포뮬라 대표	(표기없음)	전현희(민)
정 무 위	10.19.	금융감독원	증인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주)대표이사	김형연(혁)	김형연(혁)
정 무 위	10.19.	금융감독원	참고인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표기없음)	조정훈(국)
교 육 위	10.07.	교육부 등	참고인	김배관	사업가	(표기없음)	김문수(민)
교 육 위	10.07.	교육부 등	증인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혁신연구본부장	(표기없음)	백승아(민)
교 육 위	10.07.	교육부 등	증인	정재훈	바이트댄스 유한책임회사	(표기없음)	서범수(국)
교 육 위	10.14.	서울교육청 등	증인	배정이	경기 이음온학교 교감	(표기없음)	백승아(민)
교 육 위	10.14.	서울교육청 등	참고인	임채숙	경기도교육청장학관(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생활교육과장)	(표기없음)	백승아(민)

위원회	일자	대상기관	구분	성명	소속・직위	신청위원	질의의원
교 육 위	10.14.	서울교육청 등	증인	하미진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장	(표기없음)	백승아(민)
교 육 위	10.16.	서울대 등	참고인	김상곤	예술가(한국성악가협회)	(표기없음)	김문수(민)
교 육 위	10.23.	교육부 등	증인	고문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표기없음)	정성국(국)
교 육 위	10.23.	교육부 등	증인	김익현	울산대학교 교학부총장	(표기없음)	백승아(민)
교 육 위	10.23.	교육부 등	증인	서명수	협성대학교 총장	(표기없음)	김준혁(민)
교 육 위	10.23.	교육부 등	증인	윤성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I본부장	(표기없음)	박범계(민)
교 육 위	10.23.	교육부 등	증인	조동성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발전자문위원장	(표기없음)	박범계(민)
교 육 위	10.23.	교육부 등	증인	최용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표기없음)	박범계(민)
과 방 위	10.06	과기정통부	참고인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표기없음)	김선민(혁)
과 방 위	10.06	과기정통부	증인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CISO	(표기없음)	송기헌과방위원장(후속 개선조치설명요청)
과 방 위	10.06	과기정통부	증인	임한욱	토스페이먼츠CEO	(표기없음)	이정헌(민)
과 방 위	10.06	과기정통부	증인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표기없음)	황정아(민)
과 방 위	10.12.	방미통위	증인	Sandeep Yadav	텔레그램 최고운영 및 규정준수 책임자	(표기없음)	김우영(민)
과 방 위	10.12.	방미통위	참고인	김영곤	전국언론노조UBC울산방송지부장	(표기없음)	이정헌(민)
과 방 위	10.12.	방미통위	참고인	김영민	G1노조위원장	(표기없음)	최혁진(무)
과 방 위	10.12.	방미통위	참고인	박윤조	JTBC채권피해자모임대표	(표기없음)	서천호(국)
과 방 위	10.12.	방미통위	증인	박현진	KT부사장(미디어커머스총괄)	(표기없음)	김 현(민)
과 방 위	10.12.	방미통위	증인	배중섭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표기없음)	김 현(민)
과 방 위	10.12.	방미통위	참고인	부현일	전국언론노조JIBS제주방송지부지부장	(표기없음)	이정헌(민)
과 방 위	10.12.	방미통위	참고인	송지연	전국언론노조TBS지부장	(표기없음)	이주희(민)
과 방 위	10.12.	방미통위	증인	신승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	(표기없음)	김 현(민)
과 방 위	10.12.	방미통위	증인	이정환	울산방송 사장	(표기없음)	이정헌(민)
과 방 위	10.12.	방미통위	증인	조성은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표기없음)	김 현(민)
과 방 위	10.12.	방미통위	참고인	진천규	통일TV대표이사	(표기없음)	김 현(민)
과 방 위	10.12.	방미통위	증인	황용석	KISO신기술소위원장	(표기없음)	황정아(민)
과 방 위	10.2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참고인	김진수	한국화학연구원전문연구위원(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위원장)	(표기없음)	이연희(민)
행 안 위	10.06.	행정안전부	증인	민병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이사장	박정현(민) 박주민(민)	박주민(민)
행 안 위	10.06.	행정안전부	증인	윤용섭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채현일(민)	채현일(민)
행 안 위	10.06.	행정안전부	증인	이영인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과장	윤건영(민)	윤건영(민)
행 안 위	10.12.	경찰청	증인	조성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대표	임호선(민)	임호선(민)
행 안 위	10.12.	경찰청	증인	한지형	오토노모스에이투지 대표	임호선(민)	임호선(민)
행 안 위	10.13.	경기남부경찰청	증인	윤상원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계장	김예지(국)	김예지(국)
행 안 위	10.15.	서울특별시	참고인	최윤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표기없음)	김예지(국)
행 안 위	10.20.	충청북도	참고인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표기없음)	김예지(국)

위원회	일자	대상기관	구분	성명	소속・직위	신청위원	질의의원
행 안 위	10.21.	울산광역시	증인	유점숙	울주군보건소장	김예지(국)	김예지(국)
행 안 위	10.22.	제주경찰청	증인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이해식(민) 강명구(국)	임호선(민)
행 안 위	10.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고인	유현섭	전 새빛콜 사무처장	(표기없음)	김예지(국)
문 체 위	10.07.	문체부	참고인	고태영	(사)한국음악편곡자협회이사	이정문(민)	이정문(민)
문 체 위	10.07.	문체부	증인	김광현	네이버CDO	최민희(민)	최민희(민)
문 체 위	10.07.	문체부	증인	배기식	리디북스 대표	이정문(민)	이정문(민)
문 체 위	10.07.	문체부	참고인	비공개	웹소설 작가	이정문(민)	이정문(민)
문 체 위	10.07.	문체부	참고인	이민협	스타디움엑스 대표	김재원(혁)	김재원(혁)
문 체 위	10.07.	문체부	증인	이태희	경기도 야구소프트볼협회 사무국장	노종면(민)	노종면(민)
문 체 위	10.07.	문체부	참고인	장규식	국악분야예술강사(공공운수노조예술강사지부장)	이정문(민)	이정문(민)
문 체 위	10.07.	문체부	증인	전한진	대한축구협회 전 사무총장	김재원(혁)	김재원(혁)
문 체 위	10.07.	문체부	참고인	정경천	(사)한국음악편곡자협회고문	이정문(민)	이정문(민)
문 체 위	10.07.	문체부	증인	정종민	CJCGV대표이사	노종면(민) 정준호(민)	정준호(민)
문 체 위	10.07.	문체부	참고인	조정치	편곡자	이정문(민)	이정문(민)
문 체 위	10.07.	문체부	증인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	윤용근(국)	윤용근(국)
문 체 위	10.07.	문체부	참고인	함슬	㈜디드라이브 대표	김재원(혁)	김재원(혁)
문 체 위	10.08.	국가유산청 등	참고인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진선미(민)	조은희(국)
문 체 위	10.12.	콘진원 등	참고인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최민희(민)	최민희(민)
문 체 위	10.12.	콘진원 등	참고인	박영완	지역영화네트워크 대표	정준호(민)	정준호(민)
문 체 위	10.14.	사행산업통감위 등	참고인	박동희	더게이트 대표기자	김재원(혁)	김재원(혁)
문 체 위	10.14.	사행산업통감위 등	참고인	서정은	낚시협회 회장	김승수(국)	김승수(국)
문 체 위	10.19.	국중박 등	증인	백현순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김재원(혁)	김재원(혁)
문 체 위	10.19.	국중박 등	참고인	조준형	문화예술위원회 노조위원장	정준호(민) 배현진(국)	정준호(민)
문 체 위	10.23.	문체부 종감	참고인	정진설	서울특별시축구협회 회장	김재원(혁)	김재원(혁)
문 체 위	10.23.	문체부 종감	증인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지사장	조계원(민)	조계원(민)
농해수위	10.07.	농축식품부	참고인	권익섭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이사	송옥주(민)	송옥주(민)
농해수위	10.07.	농축식품부	증인	김찬호	CJ제일제당대표	윤준병(민)	윤준병(민)
농해수위	10.07.	농축식품부	증인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회장	조승환(국)	조승환(국)
농해수위	10.07.	농축식품부	증인	변태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윤준병(민)	윤준병(민)
농해수위	10.07.	농축식품부	참고인	이연원	농민	강승규(국)	강승규(국)
농해수위	10.07.	농축식품부	증인	이운익	삼양사 대표	윤준병(민)	윤준병(민)
농해수위	10.12.	해양수산부	참고인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대표	신장식(혁)	신장식(혁)
농해수위	10.12.	해양수산부	참고인	최정훈	웨어비(주)대표	송옥주(민)	송옥주(민)
농해수위	10.23.	해양수산부	증인	김종현	국민권익위원회 팀장	윤준병(민)	윤준병(민)
산자중기위	10.07.	중소벤처기업부	증인	정우신	LH민간사업협력처장	우재준(국)	우재준(국)
산자중기위	10.23.	중소벤처기업부 등	참고인	배주현	공영홈쇼핑 노조위원장	서지영(국)	서지영(국)
산자중기위	10.23.	중소벤처기업부 등	참고인	정진연	약손명가 가맹점사업자 협의회 대표	최수진(국)	최수진(국)

위원회	일자	대상기관	구분	성명	소속・직위	신청위원	질의의원
복 지 위	10.08.	보건복지부	참고인	김보영	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표기없음)	전종덕(진)
복 지 위	10.08.	보건복지부	증인	김성재	신한라이프 상무	이수진(민)	이수진(민)
복 지 위	10.08.	보건복지부	증인	김지예	엘림요양원 대표	(표기없음)	김기웅(국)
복 지 위	10.08.	보건복지부	참고인	김찬위	라디오 방송 진행 및 웹툰 창작 활동	(표기없음)	서미화(민)
복 지 위	10.08.	보건복지부	증인	문진욱	DB손해보험상무	이수진(민)	이수진(민)
복 지 위	10.08.	보건복지부	참고인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	(표기없음)	이소희(국)
복 지 위	10.08.	보건복지부	증인	손동국	똑똑플란트치과 대표 원장	(표기없음)	이소희(국)
복 지 위	10.08.	보건복지부	참고인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표기없음)	이소희(국)
복 지 위	10.08.	보건복지부	참고인	이동찬	발달장애인 이준 아버지	(표기없음)	최보윤(국)
복 지 위	10.08.	보건복지부	증인	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	(표기없음)	이만희(국)
복 지 위	10.08.	보건복지부	참고인	이상구	대한치과의사협회 총무이사	(표기없음)	이소희(국)
복 지 위	10.08.	보건복지부	참고인	이원영	중앙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표기없음)	이만희(국)
복 지 위	10.08.	보건복지부	증인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표기없음)	이만희(국)
복 지 위	10.08.	보건복지부	참고인	최호영	자영업	(표기없음)	서미화(민)
복 지 위	10.13.	식약처	참고인	강민종	㈜휴메딕스 대표이사	(표기없음)	김 윤(민)
복 지 위	10.13.	식약처	참고인	구남주	한국코카콜라 상무	(표기없음)	김 윤(민)
복 지 위	10.13.	식약처	참고인	박승희	몬스터에너지코리아 디렉터	(표기없음)	김 윤(민)
기후노동위	10.16.	경사노위 및 노동부 소속기관	증인	박형기	군산농협조합장	박해철(민)	박해철(민)
국 토 위	10.07.	국토교통부 등	참고인	노은규	자영업자	(표기없음)	모경종(민)
국 토 위	10.07.	국토교통부 등	증인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표기없음)	정동만(국)
국 토 위	10.07.	국토교통부 등	증인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표기없음)	김은혜(국)
국 토 위	10.08.	한국도로공사 등	참고인	고안수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본부장	(표기없음)	김남근(민)
국 토 위	10.08.	한국도로공사 등	참고인	최영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 소비자위원회 위원장	(표기없음)	황운하(혁)
국 토 위	10.1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참고인	성낙일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차장	(표기없음)	황운하(혁)
국 토 위	10.13.	한국철도공사 등	참고인	남욱	㈜이네이블 대표이사	(표기없음)	염태영(민)
국 토 위	10.15.	한국부동산원 등	증인	안태일	KD㈜ 대표이사	(표기없음)	복기왕(민)
국 토 위	10.23.	국토교통부 등	증인	안태일	KD㈜ 대표이사	(표기없음)	복기왕(민)
국 토 위	10.23.	국토교통부 등	참고인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이사	(표기없음)	김미애(국)
국 토 위	10.23.	국토교통부 등	참고인	장결성	㈜대황건설 대표이사	(표기없음)	엄태영(국)
국 토 위	10.23.	국토교통부 등	참고인	천휘연	대동유로모터스 대표	(표기없음)	김종양(국)

※정당표기 - 국민의힘->국, 더불어민주당->민, 조국혁신당->혁, 무소속->무

<<2026년도 국정감사에 증인 참고인으로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인사>>

성명	소속・직위	출석 요구	위원회	출석	불출석	철회 (추정포함)	미확인・예정	내역 (위원회・출석일・결과)
윤 구	**구글코리아 사장**	5	4	2	0	0	3	과방위・10.12.・출석 정무위・10.13.・출석 재경위・10.22.・미확인 과방위・10.22.・미확인

성명	소속・직위	출석 요구	위원회	출석	불출석	철회 (추정포함)	미확인・예정	내역 (위원회・출석일・결과)
								성평등위・10.28.・예정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3	3	1	0	1	1	정무위・10.12.・출석 산자중기위・10.22.・미확인 재경・보도미기재・철회추정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	3	3	3	0	0	0	과방위・10.06.・출석 문체위・10.07.・출석 정무위・10.13.・출석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CEO	3	3	2	0	0	1	과방위・10.06.・출석 정무위・10.13.・출석 복지위・10.27.・예정
박영우	前 대유위니아 회장	3	2	0	2	0	1	법사위・10.08.・불출석 기후노동・10.13.・불출석 기후노동・10.27.・예정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3	2	2	1	0	0	국토위・10.07.・출석 국토위・10.13.・출석 행안위・10.15.・불출석
정종민	CJCGV대표이사	3	2	1	0	2	0	문체위・10.07.・출석 복지위・10.08.・철회 문체위・10.12.・철회추정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3	2	2	0	0	1	과방위・10.06.・출석 교육위・10.07.・출석 과방위・10.22.・미확인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민)대표이사	2	2	0	0	2	0	법사위・10.08.・철회 재경위・보도미기재・철회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이사	2	2	0	1	0	1	과방위・10.12.・불출석 교육위・10.23.・미확인
박수경	결혼정보회사 듀오 대표	2	2	1	0	0	1	과방위・10.06.・출석 성평등위・10.28.・예정
박현진	KT부사장(미디어커머스총괄)	2	2	2	0	0	0	정무위・10.12.・출석 과방위・10.12.・출석
배기식	리디북스 대표	2	2	2	0	0	0	문체위・10.07.・출석 정무위・10.12.・출석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사장	2	2	1	0	0	1	정무위・10.12.・출석 산자중기위・10.22.・미확인
이상운	KT정보보안실장(CISO)・전무	2	2	2	0	0	0	과방위・10.06.・출석 정무위・10.13.・출석
주성원	쿠팡 총괄 부사장	2	2	1	0	0	1	정무위・10.12.・출석 농해수위・10.22.・미확인
김경호	변호사	2	1	2	0	0	0	법사위・10.06.・출석 법사위・10.08.・출석
김병주	MBK대표	2	1	0	1	0	1	산자중기위・10.07.・불출석 산자중기위・10.23.・미확인
김예린	㈜이지포뮬라 대표	2	1	2	0	0	0	정무위・10.08.・출석 정무위・10.19.・출석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대표이사 사장	2	1	1	1	0	0	재경위・10.20.・출석 재경위・10.23.・불출석
김형산	㈜더스윙 대표이사	2	1	0	0	1	1	국토위・10.07.・철회 국토위・10.22.・미확인

성명	소속・직위	출석 요구	위원회	출석	불출석	철회 (주장포함)	미확인・예정	내역 (위원회・출석일・결과)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	2	1	0	1	0	1	기후노동・10.13.・불출석 기후노동・10.27.・예정
신창섭	트위터코리아(X코리아)대표이사	2	1	1	0	0	1	과방위・10.12.・출석 과방위・10.22.・미확인
안태일	KD㈜대표이사	2	1	2	0	0	0	국토위・10.15.・출석 국토위・10.23.・출석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이사	2	1	1	0	1	0	국토위・10.07.・철회 국토위・10.23.・출석
이기승	BS그룹회장	2	1	0	1	0	1	산자중기위・10.06.・불출석 산자중기위・10.22.・미확인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2	1	0	0	1	1	복지위・10.13.・철회 복지위・10.27.・예정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2	1	0	1	1	0	기후노동・10.06.・불출석 기후노동・10.15.・철회
조정식	강사(메가스터디)	2	1	0	1	0	1	교육위・10.07.・불출석 교육위・10.23.・미확인
천휘연	대동유로모터스 대표	2	1	1	0	1	0	국토위・10.07.・철회 국토위・10.23.・출석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주)대표이사	2	1	2	0	0	0	정무위・10.08.・출석 정무위・10.19.・출석
폴 싱어	엘리엇 매니지먼트	2	1	0	0	1	1	정무위・10.08.・철회 정무위・10.19.・미확인
피터 앤더슨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이사	2	1	0	1	0	1	국토위・10.07.・불출석 국토위・10.22.・미확인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2	1	2	0	0	0	정무위・10.08.・출석 정무위・10.19.・출석
홍관희	LG유플러스정보보안센터장(CISO)・전무	2	1	1	0	0	1	과방위・10.06.・출석 과방위・10.22.・미확인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지사장	2	1	1	1	0	0	문체위・10.07.・불출석 문체위・10.23.・출석

국정감사 관심분산과 국정감사의 맥을 끈은 국정감사 민폐족

1. 더불어민주당 : 다수의 힘으로 판을 짜고 정부는 감쌌다.

여당은 과방위에서 이진숙 의원 제척안을 12대 5로 밀어붙였다. 이해충돌 명분이 있더라도 야당 위원을 표결로 감사에서 빼는 것은 국감을 다수결의 장으로 만든 선례다.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 격려금, 공소청 감사의 야당 인사 가족 사건 등 사법부와 야권을 겨눈 질의가 두드러졌다. 그 사이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데는 힘을 덜 썼다.

실제로 14개 위원회 중 12곳에서 민주당 의원 1인 평균 질의 시간이 국민의힘보다 짧았다. 부산시 감사에서는 여당 간사가 "무혐의 사안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여당 출신 시장을 막아섰다. 정부·여당을 감시해야 할 국감에서 여당이 방패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 국민의힘 : 의사진행 발언과 퇴장으로 판을 흔들었다

야당 의원 1인 평균 의사진행 발언은 3.4회로 민주당(1.9회)의 약 2배다. 질의 시간은 더 길었지만 그 상당 부분이 정책보다 신상과 정쟁에 쓰였다. 수사로 무혐의 처분이 난 통일교 금품 의혹을 다시 꺼냈고, 교육감의 18년 전 전과를 추궁하다 고성 끝에 정회됐다. 울산시 감사에서는 시장 개인 유튜브 질의 끝에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공소청 감사에서 "우리 당 집권을 기다려 달라"며 국감장을 정당 선전장으로 썼고, 야당 의원 제척에는 한준호 의원 제척안으로 맞섰다. 대안 야당의 모습보다 '흠집 내기 야당'의 모습이 더 자주 보였다.

3. 국감장을 비운 집권당 대표 : 김민석 대표의 보여주기 행보

북한이 국감을 앞두고 미사일을 쏘고 김여정이 막말 담화를 쏟아내던 10월 8일, 국방위원인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합참 감사에서 오전에 9분 질의한 뒤 자리를 떴다. 그 시각 그는 안성 들녘에서 콤바인을 몰며 벼를 베고 있었다(감사는 오후 7시 가까이까지 이어졌다).

15일 순창장류축제에서는 공연 중이던 가수가 무대를 내주고 내려간 뒤 축사를 해 '과잉 의전' 논란을 불렀다.

18일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는 그가 탄 차량이 병원 응급환자 전용구역에 30분가량 서 있었다.

국감 기간 여당 의원들의 감사를 총괄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책무를 앞장서 보여야 할 집권당 대표가, 정작 국감장을 비우고 보여주기식 민생 행보와 의전 논란으로 화제가 된 것이다.

국감 질의 시간은 아끼고 사진 찍을 시간은 아끼지 않는 당대표에게 국정감사의 무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4. 개인 사정에 바뀐 감사 일정 : 정청래 전 대표의 미주반 이탈

정청래 전 대표는 미국 비자가 "계속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외공관 감사 반을 미주반에서 유럽반으로 바꿨다. 2013년에도 같은 이유로 미주반에서 빠진 적이 있다.

그 결과 한미 현안이 가장 첨예한 주미대사관 등 미주 공관 감사에서 감사위원 한 명이 빠졌고, 국감 일정이 의원 개인 사정에 따라 바뀌는 일이 되풀이됐다.
그런데도 그는 SNS에 비자 보류에 대한 "유감"만 남겼을 뿐, 자신이 빠진 미주 감사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5. 국감장을 덮은 무책임한 발언과 막말

국정감사장은 질의보다 기관장과 의원들의 잇단 실언으로 더 주목받았다.

첫째, 정동영 통일부 장관(10.7. 외통위)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터져 장병 3명

이 다쳤는데도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군사분계선 논의에 대해서는 "한국이 빠지는 점이 있지만 그것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둘째, 추미애 경기도지사(10.13. 행안위)는 "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했다가, 부천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한 뒤인 10.19. 국토위 감사에서 사과했다.

셋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10.6. 법사위)은 진보당 손솔 의원의 질의 도중 "우리 부엉이바위에 긁혔나"고 끼어들어 발언권을 정지당했다.

넷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10.8. 법사위)은 위원장의 발언 독점을 비판하면서 "18명이 18인분 고기를 시켰는데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했고, 서영교 위원장은 "아주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맞섰다.

다섯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10.19. 국토위 경기도 감사)은 추미애 지사의 발언을 옹호하다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닌가"라고 해 다음 날 사과문을 냈다.

공직자와 국민의 대표가 쓰는 말은 곧 국가의 품격이다. 상대를 조롱하고 순직자를 욕되게 하는 언어가 국감장을 채우는 동안, 정작 따져야 할 국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6. 흩어진 안보 감사 :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김여정 담화

국감을 앞두고 북한은 10월 3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쐈고, 국감 도중인 12일에도 9일 만에 여러 발을 쏘아 올렸다. 김여정은 잇단 담화로 우리 정부를 조롱했고(10.2. "자작광대극",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 / 10.8. "불량배들", "개조불능한 천성적인 바보들", "개 싸움질"), 10.19.에는 대남확성기 재개와 전술 타격수단 전진 배치까지 거론했다.

안보가 흔들릴 때 국감은 정부의 대응 태세를 따지는 가장 좋은 기회였지만, 국회는 이를 검증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관심만 흩어지게 놔뒀다.

정작 국방위는 감사대상기관의 73.1%에 질의 한 번 하지 않았고, 외통위에서는 "주적이 누구냐"를 두고 말싸움만 오갔다.

DMZ 지뢰 폭발과 군사분계선 침범,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동안 통일부와 외교부의 대북제재 이견이 드러났는데도, 정부의 엇박자를 끝까지 추궁한 질의는 찾기 어려웠다. 북한의 도발은 국감의 주제를 바꾼 것이 아니라 국회가 안보 검증에 얼마나 무능한지를 드러냈을 뿐이다.

7. 의제를 빼앗긴 국방 감사 : 브런슨 사령관의 DMZ · 전작권 발언

국감 2주차인 10월 14일(현지시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워싱턴 세미나에서 "유엔사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에 대해서도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발언은 DMZ 영토주권 논란과 우리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과의 시각차로 번졌다. 국방부는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선을 그었고, 장관은 국감장에서 미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18일에야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19일 육군본부 감사에서도 육군참모총장이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국방위 감사의 상당 부분이 이 문제에 쏠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DMZ 지뢰 사건 대응을 따져야 할 국방 감사가, 동맹군 사령관의 국외 발언 하나에 의제를 빼앗긴 셈이다. 외부 발언에 휘둘려 정작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점검을 뒤로 미룬 데에는 국회의 책임도 있다.

많이 묻고 얕게 따진 국감, 여야 모두 '감사'보다 '정쟁'

(2026 국정감사, 10.6.~10.23. 국정감사 122곳 영상회의록 기준)

1. 6분짜리 질의로는 검증이 안 된다

의원 292명이 질의 5,587건, 595시간을 썼다. 그러나 질의 1건 평균은 6분 24초에 불과하다. 기관마다 수십 가지 현안이 걸린 국감에서 이 정도 시간으로는 문제를 짚을 수 있을 뿐 끝까지 따져 묻기는 어렵다. 질문은 많았지만 검증은 얕았다.

2. 기관 세 곳 중 한 곳은 감사를 받지 않았다

회의록이 있는 감사대상기관 775곳 중 245곳(31.6%)이 질의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국방위는 74.3%, 과방위는 49.4%, 정무위와 기후노동위는 44.4%가 질의 없이 지나갔다. 217곳은 회의록에 기관장 이름조차 없다. 기관장을 하루 종일 배석시키고 한마디도 묻지 않는 '동시수감' 관행이 감사의 사각지대를 제도로 굳히고 있다.

3. 장관에게는 쏠리고 산하기관은 지나갔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은 한 사람이 52~123건씩 답변했다. 반면 함께 감사를 받은 산하기관장들은 1~10건에 그쳤고,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0건이었다. 카메라가 있는 곳에 질의가 몰리고, 예산과 인사가 실제로 집행되는 곳은 그냥 지나갔다.

4. 불러 놓고 묻지 않은 증인

증인·참고인 388명이 채택됐지만 57명이 철회됐고, 출석 대상 331명 가운데 32명은 나오지 않았다. 기후노동위 출석률은 25%, 산자중기위는 33.3%다. 출석한 210명 중 22명은 답변 한마디 없이 돌아갔고, 행안위에서는 그 비율이 50%에 이른다. 답변을 받은 188명 중 129명(68.6%)은 의원 한 명에게만 질의를 받았다. 증인이 위원회의 공동 검증 대상이 아니라 개인 질의의 소품으로 쓰였다.

5. 피감기관 대신 상대 당을 감사했다

과방위는 이진숙 의원 제척 문제로 하루 6시간을 싸웠고, 10.16.과 10.22.에 다

시 충돌해 감사가 멈췄다. 법사위에서는 '부엉이바위' 발언으로 발언권이 정지됐다. 경기도교육청 감사는 위증 공방 끝에 정회됐고, 10.21. 울산시 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다. 국감장의 주인공은 피감기관이 아니라 상대 정당이었다.

6. 위원장이 마이크를 가장 오래 쥐었다

위원장 14명이 쓴 시간은 발언·질의 43.8시간, 개시·종료·선서 같은 회의 진행까지 합치면 64.0시간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발언 170회(6시간 13분)에 직접 질의 21회(3시간 11분)까지 했다. 회의록이 있는 감사 122곳 중 69곳에서 위원장이 위원 1인 평균 질의보다 길게 말했다. 3배를 넘은 10곳 중 7곳이 서 위원장이다.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할 위원장의 과도한 개입은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다.

7. 지도부는 빠지고 감사는 밤으로 밀렸다

여야 지도부 4명의 질의는 1인 평균 13.0회, 1시간 16분으로 전체 평균(19.7회, 2시간 5분)의 3분의 2 수준이다. 당을 이끄는 사람들이 국감을 뒷전에 둔 셈이다. 질의 333건(6.0%)은 밤 10시 이후에 시작됐다. 기후노동위는 질의의 16.9%, 정무위는 13.3%가 심야에 몰려, 파행으로 잃은 시간을 밤에 몰아서 채웠다.

8. 낙하산과 공석 속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

감사대상기관장 중 전직 국회의원이 32명이다. 국세청장은 감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옮겼다. 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은 현 정부와 전 정부 인사를 가리지 않았다. 기관 853곳 중 41곳(4.8%)이 공석이거나 대리 체제였고, 행안위 소관은 그 비율이 21.1%에 달했다. 답변의 책임자가 없는 감사가 되풀이됐다.

9. 과제 : 얼마나 물었나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물었나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 245곳, 답변 없이 돌아간 증인 22명, 의원 한 명만 질의한 증인 129명은 고쳐야 할 과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동시수감 축소와 기관별 최소 질의 시간 보장, 증인 신청 실명제와 공동 질의 원칙이 필요하다. 여당은 감시 의무를, 야당은 대안 제시를 국감의 본령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 수치는 국회 영상시스템이 있는 회의록과 국회방송유튜브에 있는 27곳 영상을 정리하였다.

공수가 바뀐 전현직 국회의원의 20026년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시절 정부를 감사하던 32명이
이번에는 기관장으로서 감사를 받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세청장과 비서실장 두 자리로 감사를 받아 모두 33명이며, 10월 21일까지 26명의 감사가 끝났고 7명은 남아 있다.

회의록이 있는 26명은 모두 951건의 질의에 답했는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123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89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64건)이 가장 많았다. 반면 장관과 함께 감사를 받은 산하기관장들은 1~10건에 그쳤고,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출석만 하고 질의를 한 건도 받지 않았다.

국감장 충돌은 3건으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위증 공방 끝에 정회됐고, **김상욱 울산시장** 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으며, **전재수 부산시장**은 통일교 의혹 재질의에 "대단히 불쾌하다"고 맞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국감장에서 사과했고, 윤호중·김동철·최인호 기관장은 기관의 잘못을 국감장에서 사과했다.

임광현 실장은 국세청 감사 다음 날 비서실장에 임명돼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고, 김규환 석탄공사 사장은 채용 비위 의혹으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국감장에서 정부 방침과 다른 입장을 공개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중앙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밖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기금운용 정부 개입 의혹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제출자료와 다른 답변을,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감사 도중 병원 이송을 겪었다. 감사하던 쪽에서 감사받는 쪽으로 자리를 옮긴이들의 국감은 정책 답변보다 정치적 공방과 논란으로 더 주목받았다.

≪공수가 바뀐 전현직 국회의원 피감기관장의 국정감사 요약≫

유형	설명	해당 기관장
충돌·파행	기관장답변을 두고 고성·정회·퇴장	안민석(경기도교육청), 김상욱(울산광역시), 전재수(부산광역시)
발언논란·사과	국감 발언이 논란이 돼 사과	추미애(경기도)
사과	국감장에서 기관 문제에 사과	윤호중(행정안전부), 김동철(한국전력공사), 최인호(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 논란	기관장 본인인사·신분관련 논란	임광현(국세청), 김규환(대한석탄공사), 임광현(대통령비서실)
정부개입 의혹	정부의 기관 운영 개입 의혹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정부 내 이견	정부 방침과 다른 입장을 국감장에서 공개	정동영(통일부), 홍의락(한국가스공사)
정부와 대립	지자체장이 중앙정부 정책을 비판	오세훈(서울특별시), 이철우(경상북도)
답변 부정확	제출자료와 다른 답변	강석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건강·출석	건강 문제로 감사 중 이석	권오을(국가보훈부)
질의 적음	동시수감으로 답변10건 미만	채이배(국무총리비서실), 박창달(한국장학재단), 김경협(재외동포청), 안병길(한국해양진흥공사)
질의 없음	출석했으나 질의 0건	김광림(새마을운동중앙회)
감사예정	감사예정	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성곤(제주특별자치도)

≪ 2026년도 국정감사 내역 상세≫ (출처 : 모니터보고와 언론보도를 종합)

성명	기관(직위)	위원회	감사일	국감주요내용	유형	특이사항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 무	10.6.	DMZ지뢰폭발 부상장병을 '북도발에 의한 희생'으로 보고 보훈심사를 적극하겠다고 답변	건강 출석	국감도중 어지럼증으로병원 이송, 오후는 차관 대리출석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 (비서실장)	정 무	10.13.	국무조정실과 동시수감, 답변 2건(박준태・송언석). 답변내용보도 없음	질의 적음	동시수감기관으로 답변 2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경제기획	10.8.	추가・초과세수를 청년・성장동력・지방투자에 쓰고 미래대응기금신설・재정사업 제로베이스점검 추진 보고		
임광현	국세청 (청장)	재정경제기획	10.13.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특별전담팀 신설, 내년가상자산과 세차질 없는 추진 밝힘	인사 논란	감사(10.13.) 다음 날 대통령비서실장임명. 처남 이 李대통령사건 변호인이라 야당 '보은인사' 비판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교 육	10.12.	한국학중앙연구원 등과 동시수감, 답변6건	질의 적음	동시수감기관으로 답변 6건
안민석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교 육	10.14.	교부금 법개편시 내년 교부금 약7조4천억원 감소 우려, 전임교육감'하이러닝' 사업은 감사후위법시 수사 의뢰	충돌 파행	2008년 촛불집회상해전과 질의(박정훈)에 부인→위증고발요구, "갑질하지말라" 응수로 고성 끝 정회(약34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외 교 통 일	10.7.	"평화공존과 제재는 양립불가"라며 대북사이버독자 제재반대, 외교부와 이견조율 중. 북한군포로 북송회유 의혹부인	정부 내 이견	대북 독자제재를 두고 외교부와 다른 입장 공개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	외 교 통 일	10.6.	외교부와 동시수감, 업무보고・답변 7건. 답변내용 보도없음	질의 적음	동시수감기관으로답변7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행 정 안 전	10.6.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없이 출범한데"송구하다" 사과, 정원66%충원. 미래대응기금은 교부세율변동 없이 전액 지원원칙 설명	사과	중수청 청장 공백 출범 사과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행 정 안 전	10.6.	행정안전부와 동시수감, 출석(인사)했으나 질의없음	질의 없음	회의록상질의0건
추미애	경기도 (도지사)	행 정 안 전 국 토 교 통	10.13. / 10.19.	행안위(10.13.) : 재정비상선언 비판에 '정부기준만으론 실제 재정평가불가' 반박. 국토위(10.19.) : 채무증가속도 타시도 3배,"내년이 더 심각"	발언 논란 사과	행안위에서 "소방이 골치아픈 재정 빨대"발언→부천 화재순직후 비판확산, 10.19. 국토위에서 소방관에게 공개사과. 재정비상・민생예산삭감・자료제출 거부로 여야 모두 질타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행 정 안 전 국 토 교 통	10.15. / 10.19.	행안위(10.15.) : 한강버스리베이트 의혹반박, 3년내 흑자 주장. 국토위(10.19.) : 주택공급감소를 박원순 시정정비구역 해제탓으로 반박	정부 와 대립	정부 실거주 정책이 전월세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행 정 안 전	10.20.	미래대응기금신설시 약4조5천억원 손해라 며 재정자율성 요구, TK행정통합특별법(법사위계류)처리・신공항지원호소	정부 와 대립	정부 미래대응기금 방침에 공개 반대
김상욱	울산광역시 (시장)	행 정 안 전	10.21.	개인유튜브・홍보대사 질의에 국감법제7조를 들어 감사범위 밖이라며" 국감장이 훈계의 장이 돼선 안된다"답변	충돌 파행	주호영의원과 설전 후 국민의힘 의원집단 퇴장, 감사파행후재개
전재수	부산광역시 (시장)	행 정 안 전	10.21.	통일교시계・금품의혹재질의(진종오)에 "수사로사실관계 가가려졌다" ,"대단히 불쾌하다"반발	충돌 파행	무혐의 사안 재질의를 두고 여야 공방

성명	기관(직위)	위원회	감사일	국감주요내용	유형	특이사항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행 정 안 전	10.22.	별정직증원 '보은인사', 산하기관통합,여수섬박람회 사업비 증액		전남광주시장 보좌진 13명 국감서 도마 대선출마 의향/시위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행 정 안 전	10.22.	제2공항・BRT・칭다오 항로		제주4・3 진상조사 자료집 일부 비공개 논란 점검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농림축산식품해 양 수 산	10.12.	해양수산부와 동시수감, 답변 2건(임미애). 답변내용 보도없음	질의 적음	동시수감기관으로 답변 2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7.	정책자금 확대,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신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기술탈취과징금도입 추진보고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15.	정책자금 조기소진에 "자금이 항상부족, 공고를 앞당기겠다"고 답변	답변 부정확	홈플러스 협력사 지원대출금리를 제출자료(2.88%)와 다르게 답변해 질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사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12.	산자중기위(10.12.) : 반도체 산단전력망비용 민간80% 부담원칙. 기후노동위(10.19.) : 전력망투자위해 최소한의 요금인상 논의 필요, 독립요금결정기구제안	사과	직원개인정보유출사과(10.19.)
홍의락	한국가스공사(사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19.	가스・석유공사통합에 "지침이내려왔다고 그냥 따를 수만은 없다", 사전협의 없었다고 밝힘	정부 내 이견	정부 통합 방침에 공개적으로 이견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19.	출석. 해상무자료 석유불법유통(피해782억원) 근절 요구받음.		
김규환	대한석탄공사(사장-직무정지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19.	직무정지로 직무대행 출석. 철암저탄장석탄대신 돌・폐석확인(피해639억~1,000억원) 지적	인사 논란	채용비위의혹으로 직무정지, 산업부 해임요구・ 이사회의결 보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보 건 복 지	10.14.	리밸런싱유예・국내주식 확대정부개입의혹에"정부주문이 그대로통과된적없다"부인	정부 개입 의혹	야당이사퇴・국정조사거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 노 동	10.6.	2030년재생에너지100GW조기달성,2035NDC로드맵・배출권거래제강화보고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국 토 교 통	10.15.	전세보증전세가율 90%→80% 단계 하향(시점미정), 비위조치 지연은 과오 인정	사과	비위조치지연 과오 인정・쇄신약속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문화체육관광	10.14.	정부광고평가지표안은 최종안 아니라고 해명, 지역신문 선택시 "약간불이익" 가능성 인정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성평등가족	10.28.	감사 전(10.28.)		
고용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국 회 운 영	10.29.	감사 전(10.29.)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국 회 운 영	10.29.	감사 전(10.29.)		
임광현	대통령비서실(비서실장-10.14.임명)	성평등가족	10.30.	감사 전(10.30.)	인사 논란	국세청장에서10.14.이동
위성락	국가안보실(실장)	국 회 운 영	10.30.	감사 전(10.30.)		

교섭단체 핵심지휘부의 국정감사 활동 현황

≪영상회의록을 통한 질의횟수 및 시간 통계≫

의원	정당	직책(지역구)	위원회	질의 횟수	질의시간	소속위1인 평균질의 횟수	소속위1인 평균질의 시간	평균 대비 질의 시간
김민석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서울영등포을)	국방	5	0:34:25	17.1	1:43:23	33%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충남보령서천)	교육	28	2:31:24	23.3	2:29:43	101%
한병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전북익산을)	교육	17	1:39:18	23.3	2:29:43	6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통영고성)	외통	2	0:19:52	5.7	0:36:15	55%

≪국정감사 내용 보도내역≫

의원	감사일	피감기관	질의내용・답변(보도기준)
김민석	10.13.	방위사업청	이용철 방사청장에게 질의(사진 보도). 질의 내용을 다룬 보도는 확인 안 됨
장동혁	10.7.	교육부	수시 원서접수 장애(대행업체 서버 교체 후 점검 부실, 전일 유사 장애)를 교육부가 업체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 수능 서・논술형 도입은 공정성・사교육비 문제로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 → 최교진 장관 "상당히 공감". 대안교육기관 일괄 형사처벌 방침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 → 장관 "제도 보완하겠다"
한병도	10.7.	교육부	정보교사 없는 중학교 163곳, 특수학교 없는 시군구 106곳, 사립대 적립금 12조원 중 3년 내 사용계획 23% 등을 지적 → 최교진 장관 "종합감사 전 정보교사 확충 로드맵 보고", 적립금 사용계획 공시 약속
한병도	10.14.	경기도교육청	파주 '야차 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경미한 처분만 받고 분리 요청은 기각됐다고 지적 → 안민석 교육감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정점식	10.6.	외교부	이 대통령 순방 관련 관세・대미투자・원전 협상 결과가 미국 발표로 먼저 알려졌다며 국민 설명 부족을 지적 → 조현 장관 "설명이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겠다", 원전・알래스카 LNG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고 답변

≪국감 중 논란≫

의원	시기	논란・쟁점	내용(보도기준)
김민석	10.11./10.14.	아들국제고 입학・법안 특혜의혹	10.11. 한동훈 의원이 SNS로 김 대표 아들 동아리 법안을 강득구 의원 등이 발의했다며 "공직 사유화" 주장. 10.14. 교육위 교육청 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아들의 제주 전입 후 청심국제고 지원을 "제도 악용"이라고 제기 → 안민석 교육감 "살펴보겠다". 김 대표는 2025년 총리 청문 당시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 강득구 의원도 "검증 안 된 정치 프레임"이라고 반박
김민석	10.12.	당최고위'안보공세'비판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DMZ 지뢰・포로 송환 공세에 "정치 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달라"고 발언(국감장 밖 발언)

6.3 재보궐 선거 입성 국회의원의 첫 국정감사 현황

≪영상회의록을 통한 질의횟수 및 시간 통계≫

의원	정당	선거구	위원회	직책	질의 횟수	질의 시간	소속위1인 평균질의 횟수	소속위1인 평균질의 시간	평균 대비 질의 시간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국토교통	위원장	1	0:04:48	17.8	1:53:28	위원장 (진행)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국방	위원	20	2:02:55	17.1	1:43:23	119%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외교통일	위원	7	0:43:16	5.7	0:36:15	119%
김태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법제사법	위원	28	3:02:18	24.7	2:36:12	117%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군갑	법제사법	위원	28	3:00:08	24.7	2:36:12	115%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	23	2:08:37	19.9	1:55:14	112%
윤용근	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문화체육관광	위원	30	2:39:20	25	2:27:15	108%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재정경제기획	위원	29	2:50:00	24.9	2:37:07	108%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	19	1:54:19	16.4	1:51:20	103%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	19	1:50:56	19.9	1:55:14	96%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재정경제기획	위원	25	2:27:48	24.9	2:37:07	94%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	16	1:39:17	16.4	1:51:20	89%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	22	2:05:39	24	2:22:21	88%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군을	보건복지	위원	17	1:42:27	17.9	2:03:48	83%

※ 영상회의록이 올라온 수가 달라서 위원회별 비교는 평균대비 질의시간 비율을 표시함

≪언론에 보도된 내역≫

의원	감사일	피감기관	질의내용・답변(보도기준)
한동훈	10.6.	외교부	이종석 국정원장이 3월경 반미 성향 때문에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파악했다며 한미 관계 문제를 추궁. 조현 장관은 한미 정보 분야에 "문제 없다"는 취지로 답변
이진숙	10.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로 여야 공방. 방통위원장 재임 중 결정을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민주당이 제척 요구 → 제척 가결(찬성 12・반대 0, 국민의힘 불참), 이 의원 퇴장. 이 의원은 "의석수로 국감 권한 박탈"이라고 반발
송영길	10.19.	육군본부	미국 정보 판단 실패 사례(이라크전 등)를 들며 전쟁 징후를 자주적으로 판단할 독자적 정보 수집・판단 역량 강화를 주문. 육군참모총장은 필요성에 동의하되 한미 연합체계로 보완 중이라고 답변
송영길	10.20.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서해5도 해병대 장병 약 4,500명의 생활용수 부족・배관 노후화 개선을 촉구. 해병대사령관은 2028년까지 약 1,300억원을 중기계획에 반영했다고 답변
김남준	10.12.	한국은행	크립토카드를 통한 외화 유출 우려와 기관 간 공조 촉구,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편, AI 구독료・국제수지 통계 보완 질의
임문영			보도로 확인된 개별 질의 내용 없음(회의록상 질의는 있음)
김태규	10.15.	법제처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근거를 따지고,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이 "압도적 다수 견해"라는 조원철 법제처장 발언을 추궁. 조 처장은 "헌

의원	감사일	피감기관	질의내용・답변(보도기준)
			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독단적 해석"이라고 비판
김태규	10.20.	대구광역공소청 등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 권한을 대부분 빼앗았다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주장, "우리 당 집권을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발언
유의동	10.7.~	국토교통부 등	국토교통위원장으로 감사 진행(질의 없음)
김남국	10.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월드컵 중계 중단 위기 때 방미통위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법정 조사권을 실제로 행사했는지 추궁. 김종철 위원장은 "법 개정에 맞춰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
이광재	10.13.	국세청	30년 가까이 제자리인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 공제 현실화와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를 요구. 임광현 청장은 "충분히 공감", 재경부와 협의하고 종합감사에서 답하겠다고 답변
이광재	10.20.	한국수출입은행 등(한미전략투자공사)	대미투자 재원을 외환보유액・채권에만 기대지 말고 미국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라고 주문, '바이 아메리카' 예외 적용 노력 여부를 질의
윤용근	10.7.	문화체육관광부	2027 충청 U대회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수송・선수촌・보안 등 370억원 이상 추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
윤용근	10.14.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평가체계가 지역신문을 소외시킬 수 있다며 제도 개선 촉구
윤용근	10.19.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심포니 공연 116회 중 비수도권은 6회(5.2%)라며 지역 차등 지원・지역 할당제 도입을 요구. 문체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전은수			보도로 확인된 개별 질의 내용 없음(회의록상 질의는 있음)
김의겸	10.12.	감사원	대법관 격려금이 대법원장 비서실을 거쳐 비서관이 대법관실을 돌며 현금으로 나눠준 지급결의서를 공개, 지급 주체는 기관장(대법원장)이라고 주장.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침상 기관장이 지급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변
박지원	10.16.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지역가입자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가구가 3만4,349가구로 2023년보다 49.2%, 체납액 375억원으로 44.2% 늘었다고 지적(국감 자료 분석)
김성범	10.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 청년 조합원이 1.7%에 불과하다고 지적. 강호동 회장은 "청년 이사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
김성범	10.18.	해양경찰청	제주 동부해경서 신설이 2년 연속 정기직제에서 불발됐다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설 근거 보완과 관계부처 협의를 촉구(해경・행안부 제출 자료)

※ 국감 중 보도기사는 우리 모니터단이 조사한 결과로서 보도가 없다고하여 보다가 안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국감 중 공방 내지 논란≫

의원	시기	논란・쟁점	주요내용
한동훈	10.12. 10.14.	딸 의혹 국감 공방	10.12. 행안위 경찰청 감사에서 윤건영・김영배(민주)・정춘생(혁신) 의원이 딸 논문 대필・허위 스펙 의혹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재수사 요구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새 사실관계 드러나면 재수사 배제 안 해". 10.14. 교육위 교육청 감사에서도 '김민석 대표 아들 국제고 편법 입학' 대 '한동훈 딸 논문 대필' 공방. 한 의원은 SNS로 김민석 대표 아들 관련 법안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맞섬
한동훈	10.6. ~10.7.	외통위질의태도・근거논란	조현 장관에게 "주적은 북한이냐 우크라이나냐" 질의, "장관이 의원을 훈계한다"며 설전. 이종석 국정원장 미국 입국 거부 주장은 외교부・국정원이 부인. 김종대 전 의원은 "국감장이 감정 배출구", "검찰 특수부식 조작 기소 방식"이라고 비판
한동훈	10.19. ~10.20.	딸사건 공소청 감사거론・박철우공방	법사위 공소청 감사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한 의원 딸 관련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미청구를 지적, 박철우 청장 "통상적이지 않은 점 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박철우는 조국 최측근"이라 반박, 조국 전 장관은 "황당한 거짓말"이라 재반박(외통위 소속으로 해당 감사에는 불참)
이진숙	10.12.	과방위감사	방통위원장 재임 중 결정을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민주당

의원	시기	논란・쟁점	주요내용
		제척	이 제척 요구 → 의사일정 추가 12:5, 제척 12:0(국민의힘 불참) 가결, 이 의원 퇴장. 이 의원은 "의석수로 국감 권한 박탈", 김현 의원(방통위 상임위원 출신)과 형평성 문제 제기
이진숙	10.12.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공방	이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를 두고 오전부터 '패륜 정치' 공방, 고성으로 감사 지연
이진숙	10.16. ~10.17.	제척재충돌・과방위파행	'이진숙 제척'을 놓고 여야가 재충돌해 감사가 1시간 중단, 국민의힘은 한준호 의원 제척안으로 맞불, 민주당은 "파행 책임은 국힘"
김태규	10.6.	'부엉이바위'발언으로발언권정지	법사위 대법원 감사에서 손솔 의원 질의 중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들자"고 발언, 박은정 의원 "인간이 돼라", 김용민 의원에게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고 응수 → 서영교 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발언권 정지
김태규	10.7. ~10.8.	편파진행항의・사과공방	박형수・곽규택 의원과 기자회견으로 "편파・독선적 의사진행" 항의, 공개 사과 없으면 윤리위 제소・직권남용 고발 예고. 10.8. 법무부 감사에서 손솔・김용민 의원이 사과 요구, 사과 보도는 확인 안 됨. 발언 이후 유튜브 구독자 하루 약 1,800명 증가 보도
김태규	10.20.	'우리당집권기다려달라'발언	대구공소청 감사에서 집권 시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어이가 없다"고 반발. 9.30. 유튜브 방송 발언으로 민주당이 5・18특별법 위반 혐의 고발・제명 촉구 중인 상황
유의동	10.7.	위원장으로 고성 중재	국토부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두고 여야 고성이 오가자 중재. 위원장 본인 관련 논란 보도는 없음
김의겸	10.12.	조희대 대법원장 격려금 공방 주도	감사원 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결의서를 공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소명해야"라고 주장.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는 "2022~2025년 약 12억원 중 절반 이상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라고 반박해 여야 공방

※ 국감 중 공방 논란은 우리 모니터단이 조사한 결과로서 논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

병역특례제도 지적 : 지적하는 주체는 제대로 병역의무 이행했을까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야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과 발언이 도마 위에 올라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기되었다.

≪병역특례 관련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현황≫

위원회	피감기관	일자	질의의원(정당)	쟁점 분야
국방	국방부	10.07.	유용원(국힘), 황명선(민주), 임종득(국힘), 천하람(개혁)	예술・체육요원 /보충역전반
국방	병무청	10.12.	여야 공통요구	예술・체육요원
문체	문화체육관광부	10.07.	조계원(민주), 조은희(국힘)	예술・체육요원
복지	보건복지부	10.07.	권칠승(민주)	공중보건의사(보충역)
교육	한국체육대학교	10.16.	정성국(국힘)	예술・체육요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국방위원회 위원의 병역실태를 살펴보면, 장성으로 제대한 의원이 5명으로 제22대 국회 장성 출신의원이 모두 포진했다. 사병으로 복무한 경우가 8명, 위관장교 1명이었다. 위원 중 병역면제는 3명으로 전체 의원의 17.6%나 되었다. 병역면제자가 왜 국방위원회를 지원했는지 의아해 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위원의 군복무현황≫

구분	의원명	정당	지역구	계급	전역(해제)사유
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이병**	**수형**
간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대장**	**직위만료**
간사	**임종득**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장**	**명예전역**
위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소집면제**	**수형**
위원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갑	**병장**	**만기**
위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준장**	**명예전역**
위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소집면제**	**수형**
위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소집면제**	**수형**
위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병장**	**만기**
위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병장**	**만기**
위원	**강선영**	국민의힘	비례대표	**소장**	**명예전역**
위원	**성일종**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중위**	**원에 의한 전역**
위원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병장**	**만기**
위원	**유용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상병**	**복무만료**
위원	**한기호**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화천양구을	**중장**	**원에 의한 전역**
위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이병**	**복무만료**
위원	**김병기**	무소속	서울 동작구갑	**일병**	**복무만료(소집해제)**

※ 출처: 병무청 공개개방포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병역공개기관: 국회)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각 1명씩이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16명 중 1명이 병역미필자로 6.25%였고, 여성의원이 7명이 포진되어 있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한국체육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위원 16명 중 장동혁 대표(중위)를 포함해 8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고, 1명이 병역미필자로 6.25%였고, 7명의 의원은 여성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에는 공보위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위원 24명 중 1명이 병역미필로 4.17%를 차지하였다. 병무청의 공개개방포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을 분석해 보면(2026.10.10.)를 동명이인만 확인된 김영호 의원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01명, 국민의힘 73명, 무소속 6명, 기타정당 4명이 군필이었다.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이행 현황≫

정당	군필	군필(보충역)	미필(면제)	해당없음(여성)	확인불가	합계
더불어민주당	101	5	26	28	1	161
국민의힘	73	1	13	22	0	109
개혁신당	0	2	0	1	0	3
기본소득당	0	0	0	1	0	1
무소속	6	0	1	1	0	8
사회민주당	1	0	0	0	0	1
조국혁신당	3	0	3	6	0	12
진보당	1	0	0	3	0	4
전체	185	8	43	62	1	299

※ 출처: 병무청 공개개방포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병역공개기관: 국회), 이하 같음(분류 기준: 군필=현역(장교・병) 복무 완료, 군필(보충역)=공익・산업기능・공중보건의・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 복무 완료, 미필(면제)=전시근로역・소집면제 등 처분)

병역이행한 의원 193명의 전역시 계급분포를 보면 장관급 장교 5명, 영관급 장교 1명, 위관급 장교 43명, 부사관 3명, 병 141명 이었다.

≪병역의무 이행 의원들의 전역시 계급분포≫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중사	하사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	1	2	1	1	6	28	9	1	2	74	33	20	14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정리한 2026년도 국정감사 중요 쟁점

2026년도 10월 6일부터 23일(일부는 20일)까지 국감내용과 전개과정을 살펴 볼 수 있도록 정리

1. 다수 위원회에서 질의/논란이 된 국정감사 쟁점

여러 위원회에 걸친 쟁점은 10개다. 가장 오래 이어진 쟁점은 DMZ 북한 지뢰와 대법관 재제청으로, 각각 6개 감사에 등장했다.지뢰 쟁점은 외통위·국방위를 오가며 바뀌어 왔다. '도발'로 규정할지에서 시작해 탐지기 성능, 북한 담화 규탄으로 옮겨 갔다. 대법관 재제청은 법사위 안에서 대법원, 헌재, 법제처, 고법으로 피감기관을 바꿔 가며 계속됐다. 레버리지 ETF는 재경위와 정무위에 걸쳐 5번 등장했다. 금융위원장과 한은 총재의 사과를 거쳐 금감원장 퇴진 압박까지 갔다.

'기관장 인사·거취 공방'은 14일 이후 산하기관 감사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늘었다. 서울시·경기도 쟁점은 행안위와 국토위가 같은 단체장을 두 번 감사하는 구조라서 반복됐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 부실수사(행안위)에서 양형과 검찰 보완수사권(법사위)으로 쟁점이 옮겨 간 사례다.

반복 쟁점의 절반 이상이 정쟁성 의제(사법부, 인사, 단체장)다. 정책 의제로 볼 만한 것은 ETF, 개인정보, 병역특례 정도다.

≪다수 위원회에서 질의/논란이 된 쟁점≫(기간 :10. 6~20)

쟁점	등장일자/위원회	전개
레버리지 ETF 손실	6일 재경위 → 8일 정무위 → 12일 한은 → 15일 국가데이터처 → 19일 금감원	도입 시점과 청와대 개입 여부를 다퉜다. 금융위원장·한은 총재가 잇따라 사과했고, 19일에는 금감원장 퇴진 압박으로 이어졌다.
DMZ 북한지뢰 폭발	6일 외통위 → 7일 국방·통일 → 8일 합참 → 13일 방사청·주유엔대표부 → 19일 육군본부 → 20일 해군	'도발'로 규정할지와 늑장 대응이 쟁점이었다. 지뢰탐지기 성능 문제로까지 번졌고, 20일에는 북한의 '적반하장' 담화를 여야가 함께 규탄했다.
대법관재제청	6일 대법원 → 12일 감사원 → 13일 헌재 → 15일 법제처 → 16일 서울고법 → 20일 대구고법	대법원장 증인 선서 거부로 시작해 제청권의 법적 성격 공방으로 이어졌다. 16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공방이, 20일에는 손봉기 후보 개인을 둘러싼 공방이 더해졌다.
영화 '암살자(들)'	7일 교육·문체 → 12일 문체 → 14일 문체	감독 증인 채택이 계속 무산됐고, 결국 14일 국민의힘이 퇴장했다.
예술·체육병역 특례	7일 국방·문체 → 12일 병무청	단계적 폐지 방침이 확인됐다. 병무청은 11월 말 개선안을 낸다.
개인정보 유출	6일 과방위 → 13일 개인정보위 → 14일 농진청	플랫폼 기업에서 공공기관까지 유출 사례가 이어졌고, 보상의 실효성이 쟁점이었다.

쟁점	등장일자/위원회	전개
기관장인사・거취 공방	14일 GKL・문화관광연구원 → 15일 KISA・소진공・환경산업기술원 → 16일 서울대병원・심평원 → 19일 국중박・강원랜드・지역난방공사	'알박기'와 '낙하산' 공방이 맞섰다. 19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장 사퇴 요구가 여야에서 함께 나왔다.
서울시한강버스・주택공급	15일 행안위 → 19일 국토위	한강버스 수익성 논란이 리베이트 의혹과 수사 의뢰로 번졌고, 주택 공급 책임을 두고 서울시와 여당이 맞섰다.
추미애지사재정・소방발언	13일 행안위 → 19일 국토위	재정위기 선언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이어지며 경기도 국감 두 번 모두 지사 공방이 중심이 됐다.
장윤기 사건	12일 행안위(경찰청) → 20일 법사위(광주지법・공소청)	경찰 부실수사 질타에 이어, 1심 무기징역 양형과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으로 번졌다.

2. 위원회내 반복된 질의 및 쟁점

14개 위원회에서 반복 쟁점 37개가 나왔다. 재경위가 5개로 가장 많다. 대미투자, ETF, 재정, 세무조사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법사・국방・행안・산자・과방・기후환노・국토위는 3개씩이다.

복지위는 1개로 가장 적다. 피감기관이 매번 달라 쟁점이 잘 이어지지 않았다.

국방위는 지뢰 쟁점이 5개 감사에 연속으로 등장했다. 하나의 안보 사건이 상임위 전체를 끌고 간 경우다.

기후노동위는 '자료 제출 거부・인사 검증'이 3번 반복됐다. 15일 파행과 19일 퇴장으로 이어진 갈등 축이다.

교육위 교육재정교부금은 수도권(14일)에서 지방(20일)으로 넓어졌다. 최종 예산심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농해수위 항만공사 통합, 산자중기위 홈플러스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 사태를 추적하는 반복형 쟁점이다. 과방위의 반복 쟁점 3개 중 1개(정쟁성 인사 공방)가 파행 2건을 만들었다.

≪위원회 국감에서 중복/반복된 질의주제 현황(10.20까지)≫

위원회	반복 쟁점	등장 일자(피감기관)	전개
법 사 위	**대법관 재제청・제청권**	6일(대법원) → 13일(헌재) → 15일(법제처) → 16일(서울고법) → 20일(대구고법)	대법원장 증인 선서 거부로 시작했다. 헌재 사무처장은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 법제처장은 "추천・제안" 성격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독단적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16일 서울고법원장은 세 권한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답했다. 20일에는 손봉기 후보 개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법 사 위	**사법・헌법기관 업무추진비**	12일(감사원) → 13일(헌재) → 15일(법제처)	여당은 대법원 격려금 12억9900만원 환수를, 야당은 헌재소장 업추비 현금 사용과 법제처장 업추비를 따졌다. 맞대응 구도였다.
법 사 위	**수사・기소 체계 개편**	8일(법무부) → 13일(공수처) → 19일(공소청) → 20일(지방 공소청)	공소청 출범 뒤 수사 공백 논란이 공수처 수사권 이관 구상과 폐지론으로 이어졌다. 19일 공소청 첫 국감에서는 검찰 폐지가 "정치적 복수"냐 "검찰권 남용 시정"이냐로 맞섰다. 20일에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폐가 다퉈졌다.

위원회	반복 쟁점	등장 일자(피감기관)	전개
정 무 위	**레버리지 ETF 책임**	8일(금융위) → 19일(금감원)	금융위원장 사과에 이어, 19일에는 금감원이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금감원장 퇴진 압박이 나왔다.
정 무 위	**의사진행·증인·인사 공방**	12일(공정위) → 13일(국조실) → 15일(캠코 등)	12일 감사가 중지됐다가 13일 재개됐다. 이어 총리 증인 채택 요구, 캠코 비상임이사 해임 요구가 나왔다.
재 경 위	**레버리지 ETF 책임**	6일(재경부) → 12일(한은) → 15일(국가데이터처)	도입 시점 정치 개입 의혹과 54조원 손실 추산이 나왔고, 한은 총재가 사과했다. 15일에는 사전영향평가 면제가 지적됐다.
재 경 위	**재정 운용 기조**	6일(재경부) → 8일(기획예산처) → 12일(한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 검증,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확장재정과 금리 인상의 엇박자가 쟁점이었다.
재 경 위	**대미 전략투자 검증**	6일(재경부) → 20일(한미전략투자공사)	24억달러 선송금 논란에 이어, 공사 첫 국감에서 송금 뒤에야 리스크 심사를 했다는 점과 수익률 비공개가 질타를 받았다.
재 경 위	**정치 개입·중립성 의혹**	6일(ETF) → 13일(국세청) → 15일(국가데이터처)	ETF 출시, 기업 세무조사, "고무줄 통계" 순으로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재 경 위	**세무조사 적정성**	13일(국세청) → 16일(대구·부산청)	정치적 세무조사 비판에 이어, 과세가 취소된 뒤 납세자가 숨진 사례와 높은 심판청구 인용률이 지적됐다.
외 통 위	**DMZ 북한 지뢰 대응**	6일(외교부) → 7일(통일부) → 13일(주유엔대표부)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이 계속 쟁점이 됐다. 안보리 대응은 미정이다.
외 통 위	**대북 기조와 한동훈 의원 공세**	6일(외교부) → 7일(통일부) → 13일(뉴욕)	김여정 발언 침묵 비판에서 '북향민' 고성, 유엔대사의 북한 관련 발언 횟수 문제로 이어졌다.
국 방 위	**DMZ 지뢰**	7일(국방부) → 8일(합참) → 13일(방사청) → 19일(육군본부) → 20일(해군)	도발 규정과 늑장 보고를 거쳐 '도발' 표현 누락 인정, 지뢰탐지기 PRS-20K 탐지 실패로 이어졌다.
국 방 위	**예술·체육 병역특례**	7일(국방부) → 12일(병무청)	국방부가 단계적 폐지 목표를 밝혔고 병무청도 동의했다. 11월 말 개선안이 나온다.
국 방 위	**병역 자원·여성 징병제**	12일(병무청) → 19일(육군본부)	병무청과 육군 모두 여성징병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육군은 AI 스마트부대 전환으로 병력 감소에 대응한다.
행 안 위	**중대범죄수사청**	6일(행안부) → 13일(경기도)	청장 없이 정원 66.1%로 출범했다. 경기지사는 청장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했다(14일 인사청문회는 제외).
행 안 위	**기관장 공백·직무대행**	6일(중수청) → 12일(경찰청)	중수청은 수장이 없고, 경찰청은 2년 연속 직무대행 체제로 국감을 치렀다. 여야가 함께 유감을 표했다.
행 안 위	**광역단체장 공세**	13일(경기도) → 15일(서울시) → 20일(충북도·경북도)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전세 관사로,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GTX-A 철근 누락으로 여야 모두에게 공세를 받았다. 20일에는 충북도 채무·보좌관 인사와 경북도 신공항·산불 복구가 다뤄졌다.
산자중기위	**대기업·에너지 정책**	6일(산업부) → 12일(한전·한수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문제가 삼성·SK하이닉스 전기요금 선납 제안과 미국 원전 계약 문제로 이어졌다.
산자중기위	**홈플러스 사태**	7일(중기부) → 15일(소진공)	MBK 김병주 회장이 불출석해 23일 재소환된다. 입점업체 지원 대출은 125억원 중 25%만 집행됐다.
산자중기위	**기관장 답변태도**	6일(산업부 입지 비공개) → 15일(소진공 등)	자료를 내지 않거나 답변이 부실해 질타를 받았다. 15일 위원장은 기관장들을 일으켜 세웠고 감찰 요구까지 거론됐다.

위원회	반복 쟁점	등장 일자(피감기관)	전개
과 방 위	**개인정보·사이버보안**	6일(과기정통부) → 15일(KISA)	플랫폼 유출 질타가 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으로 이어졌다.
과 방 위	**우주항공청 운영**	8일(현장시찰) → 13일(우주청)	현장시찰 뒤 감사에서 임기제 17명 중도퇴직, 우주위 안건 11건 장관급 불참 처리가 지적됐다.
과 방 위	**정쟁성 인사 공방**	12일(방미통위) → 15일(KISA) → 16일(KBS 등)	이진숙 의원 제척(12:0)으로 사실상 파행했고, 이어 KISA 원장 거취와 KBS 외압 설전이 벌어졌다. 16일에는 제척 공방으로 감사가 다시 중지됐다.
기후노동위	**노란봉투법 시행 평가**	13일(고용부) → 16일(경사노위·중노위)	원청 교섭 타결 5곳 논란에 이어, 중노위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정(30건 중 27건)의 기준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기후노동위	**자료 제출 거부·인사 검증**	6일(기후부) → 15일(환경부 산하) → 19일(지역난방공사)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위원 명단 비공개에 이어 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인사자료를 내지 않아 오전이 파행했다. 19일에는 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같은 자료가 요구됐다.
기후노동위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증인**	16일(경사노위) → 19일(한전 등)	삼성·SK 임원 증인 채택을 두고 19일까지 합의하라는 시한이 걸렸으나, 결국 국민의힘이 잠시 퇴장했다.
교 육 위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14일(수도권 교육청) → 20일(영남·호남·충청 교육청)	교육청마다 예산 감소를 호소했고, 여당은 근거 수치 없는 호소라고 반박했다.
교 육 위	**수시 원서접수 먹통**	7일(교육부) → 12일(대교협 등)	장관 사과와 국가 직접 접수 검토에 이어, 업체 대표가 부하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문 체 위	**영화 '암살자(들)' 증인**	7일(문체부) → 12일(콘진원 등) → 14일(관광공사 등)	감독·작가 증인 요구를 위원장이 받지 않았고, 14일 국민의힘이 퇴장했다. 교육위(7일)에서도 거론됐다.
문 체 위	**공적 자금 집행 부실**	12일(스튜디오큐브) → 14일(관광기금)	360억원 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이어 호스텔 융자 265억원 이상 미회수가 지적됐다.
농해수위	**항만공사 통합**	12일(해수부) → 19일(항만공사)	부산 현지 감사에서 여야가 함께 우려했고, 19일에도 "4개 통합하면 다 죽는다"는 우려가 다시 나왔다.
농해수위	**농지 전수조사**	7일(농식품부) → 14일(농어촌공사 등)	피켓 공방으로 정회한 뒤, 임차농 피해와 농지은행 3300ha 대기 등 부작용을 여야가 함께 지적했다.
국 토 위	**2019년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	7일(국토부) → 15일(부동산원)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에 이어 종합감사 때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국 토 위	**공공 사업자의 재무·공급 부담**	12일(LH) → 15일(HUG)	LH의 조직개편·공급 확대 부담에 이어 HUG PF 보증의 70.6%가 자기자본 5% 이하라는 점이 지적됐다.
국 토 위	**교통 안전·시설 하자**	8일(도공 등) → 13일(코레일 등)	수입 전기차 사후관리에 이어 철도 하자 362건 미보수와 GTX 삼성역 철근 누락이 지적됐다. GTX는 15일 행안위에서도 거론됐다.
복 지 위	**증인·자료 제출 공방**	13일(식약처) → 14일(국민연금) → 16일(심평원)	제넨셀 의혹 증인 공방으로 10분간 정회했고, 이어 김용범 전 정책실장 증인 채택을 두고 맞섰다. 16일에는 심평원장 인사검증 자료 제출이 미뤄졌다.

3. 일자별 주요 이슈(쟁점)과 특이사항

하루 평균 7~8개 위원회가 감사했다. 감사 위원회가 가장 많았던 날은 12일(12개)이다. 2주차 첫날이라 거의 모든 상임위가 동시에 감사했다. 가장 적었던 날은 14일(4개)이다. 이날은 행안위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파행·지연은 모두 13건이다.

1주차는 대미투자, 레버리지 ETF, DMZ 지뢰, 대법관 재제청 같은 굵직한 국정현안이 중심이었다. 2주차부터는 산하기관과 지방정부 감사로 넘어갔다.

기관장 거취와 광역단체장 공세 비중이 커졌다. 3주차(19·20일)는 공소청, 한미전략투자공사처럼 새로 생긴 기관의 첫 국감이 눈에 띈다

≪2026년 국정감사의 주요쟁점 및 특이사항≫(10. 6~23)

일자	감사실시 위원회	파행 지연 등	주요 쟁점	핵심 내용
10.06.	7	1	· 대법원장증인 선서거부· 소란 · 대미투자 24억달러 선송금 · 레버리지ETF 정치개입 의혹 · 중수청청장 공백 출범 ·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국감 첫날. 법사·정무·재경·과방·외통·행안·산자·기후노동위 8곳이 감사/ 대법원장 증인 선서 거부로 법사위 감사가 소란
10.07.	7	1	· 병역특례폐지방침 · DMZ지뢰대응 · 수시원서접수먹통 · 영화'암살자(들)'공방 · 농지전수조사 피켓정회	교육·과방·외통·국방·행안·문체·농해수·산자·복지·국토위 10곳이 감사/. 농해수위는 피켓 공방으로 정회.
10.08.	5	2	· 공소청출범·수사공백 · 레버리지ETF책임 · 162조원미래대응기금 · 합참'도발'규정	법사·정무·재경·과방·국방·문체·복지·기후환노·국토위 9곳이 감사. 공소청, 레버리지 ETF,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DMZ 지뢰가 4대 쟁점.
10.12.	12	2	· 감사원 중립성 · 정유4사 담합 · 이진숙의원 제척(과방위파행) · 한전전기요금선납 제안 · 정무위 감사중지	2주차 첫날로 12개 상임위가 감사. 정무위는 밤 10시에 감사가 중지됐고, 과방위는 이진숙 의원 제척 공방으로 정책 질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함
10.13.	11	1	· 추미애지사 첫국감 · 공수처 존폐론 · 식약처 제넨셀의혹 정회 · 노란봉투법 평가 · 지뢰탐지기 탐지실패	12개 상임위가 감사/ 추미애 경기지사의 첫 국감, 식약처 제넨셀 의혹, 공수처 존폐론, 노란봉투법 평가, 지뢰탐지기 성능이 쟁점.
10.14.	4	1	·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 국민연금리밸런싱 유예 · 농지전수조사 부작용 · 문체위 국민의힘 퇴장	교육·외통·문체·농해수·복지위 5곳이 감사/ 문체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 같은 날 행안위의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10.15.	8	1	· 기후노동위 오전파행 · 대법원장 제청권 해석 · KISA원장 거취 · 소진공부실 대출 · 한강버스 수익성	9개 상임위가 감사. 기후노동위는 자료 제출 거부로 오전 내내 파행했고, 오후에는 국민의힘이 퇴장. 기관장 거취·태도 공방.
10.16.	7	1	· 이재명대통령재판 중단공방 · 과방위 이진숙 제척 재충돌·감사중지 · 농협법개정·강호동회장 압박 · 건보특사경·재정 누수 · 경사노위대표성·노란봉투법	11개 상임위가 감사(정무·국방·문체위는 현장시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과방위 이진숙 의원 제척 재충돌, 농협법 개정이 쟁점이었다. 과방위는 다시 감사가 중지.

일자	감사실시 위원회	파행 지연 등	주요 쟁점	핵심 내용
10.19.	8	2	・공소청첫국감・검찰폐지 공방 ・금감원장 퇴진압박 ・국립중앙박관장 '셀프전시' ・추미애 '소방빨대'발언 ・가스・석유공사통합	3주차 첫날로 9개 상임위가 감사(외통위 재외공관 포함). 공소청 첫 국감, 금감원장 퇴진 압박, 국립중앙박물관장 '셀프 전시', 추미애 지사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쟁점. 국토위 경기도 감사는 고성으로 한동안 멈췄고, 기후노동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잠시 퇴장
10.20.	8	0	・한미전략투자공사리스크관리 ・장윤기사건・보완수사권 ・손봉기대법관후보재제청 ・교육재정교부금개편 ・산림사업법인위법・재선충	12개 상임위가 감사(산자・기후환노・국토위는 현장시찰). 한미전략투자공사 첫국감, 장윤기 사건양형과 지방공소청의 보완수사, 대법관후보재제청, 교육재정교부금개편이 쟁점
10.21.	4	1	・공정위원장사과・'셀프심판'구조 ・'서울대10개'탈락국립대반발 ・부산시장통일교의혹 ・울산시국감파행 ・체육병역특례폐지론	정무・교육・외통・행안・문체위 5곳이 감사(기후노동위는 제주 현장시찰). 공정위원장 사과, '서울대 10개' 탈락 국립대 반발, 체육 병역특례 폐지론, 부산시장 통일교 의혹이 쟁점. 행안위 울산시 감사는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
10.22.	10	0	・공소청첫국감・공소취소공방 ・사관학교통합 ・헌재결정뒤이진숙제척재공방 ・전남광주첫국감・반도체 ・미래대응기금・가상자산과세	10개 상임위가 감사했다. 정무・재경・과방・농해수・산자중기위는 종합감사. 공소청(옛 대검) 첫 국감, 사상 첫 사관학교 국감과 통합 공방, 헌재 결정 뒤 이진숙 의원 제척 재공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국감이 쟁점. 법사위에서 고성이 오갔지만 확인된 파행은 없었음
10.23.	8	0	・김병주MBK2차불출석 ・프런티어AI추진경위 ・미래대응기금'재경부패싱' ・유홍준전관장감사 ・수시먹통책임론	8개 상임위가 감사. 기후노동위를 뺀 7곳이 종합감사. 김병주 MBK 회장의 두 번째 불출석, 프런티어 AI 사업 추진 경위, 미래대응기금 '재경부패싱' 논란,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감사, 수시 원서접수 먹통 책임론이 쟁점. 국토위에서 고성이 오갔지만 확인된 파행은 없었음

4. 일자별 감사내용 분석

같은 날 여야가 함께 질타한 사안이 적지 않다. 수시 먹통, 중수청 출범 공백,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한미전략투자공사, 국중박 '셀프 전시'가 그 예다.

이런 사안은 정책 실패나 행정 부실처럼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대로 여야가 갈린 사안은 사법부・・검찰개혁, 대통령 관련 재판, 인사 문제처럼 정치적 해석이 개입하는 영역이었다. '당일 쟁점'을 보면 위원회마다 숫자 중심 지적이 늘었다. 연체율, 회수율, 미집행률, 손실액이 대표적이다. 기관장 답변은 "사과",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시정 약속은 드물었다.

같은 위원회라도 피감기관 성격에 따라 정쟁 강도가 크게 달랐다. 과방위는 출연연 감사에서는 조용했고, 방송 기관 감사에서는 파행했다.

≪일자별 주요 이슈(쟁점)와 특이사항≫ (기간 :10. 6 ~ 23)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주요이슈 및 쟁점	특이사항
10.06.	법사위	대법원	・ 대법원장 증인 선서 거부 ・ 대법원장 이석 관례 공방 ・ 대통령-대법원장 협의 근거 ・ 동행명령 시사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만 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
10.06.	재경위	재정경제부	・ 3500억달러 대미투자 검증 ・ 텍사스 가스발전 24억달러 선송금 ・ 알래스카 LNG・미국 원전 투자 ・ 레버리지 ETF 정치 개입 의혹 ・ ETF 손실 54조원	배준영 의원은 개인투자자 손실을 약 54조원으로 추산하고 청와대 회의 자료 제출을 요구
10.06.	외통위	외교부	・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 ・ 우크라이나 사과 메시지 ・ DMZ 지뢰 대응 ・ 한동훈 의원 첫 국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정부가 김여정 발언에는 침묵하고 우크라이나만 몰아세운다고 비판
10.06.	행안위	행정안전부	・ 중수청 청장 공백 출범 ・ 중수청 정원 66.1% 충원 ・ 수사관 판・검사 출신 편중 ・ 김재섭 의원 경찰 소환	경찰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소환조사해 여야가 정면 충돌.
10.06.	산자중기위	산업통상부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 전력・용수・예타 면제 ・ 입지 자료 비공개 ・ '호남 1극' 공방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투자가 0.48%라며 '호남 1극'을 비판/민주당은 수도권의 용수・전력 한계 주장
10.06.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R&D 정책 ・ 사이버보안 ・ 통신비 ・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10.06.	기후노동위	기후에너지환경부	・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자문위원 명단 비공개 ・ 외부 압력 차단 논리	
10.07.	국방위	국방부	・ 예술・체육 병역특례 폐지 ・ DMZ 지뢰 도발 규정 ・ 대북방송 재개 여부 ・ 전 장관 지뢰 보고 묵살 의혹 ・ 대표팀 선수 언행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에 유감/ 안규백 전 장관이 지뢰 매설 추정 보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중상 2명, 경상 1명).
10.07.	외통위	통일부	・ DMZ 지뢰 대응 ・ 북한 국경선 요새화 ・ 대북 독자 제재 ・ '북향민' 호칭 고성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부르는 문제로 '북동영' 발언까지 나오며 고성
10.07.	교육위	교육부・국가교육위 등	・ 수시 원서접수 먹통 ・ 국가 직접 원서접수 검토 ・ 접수 매뉴얼 개선 ・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공방/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10.07.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쏠림 ・ 병역특례 종합 대책 ・ '암살자(들)' 증인 채택 ・ 창작의 자유 공방	국민의힘 김승수・김석기 의원이 '암살자(들)' 감독・작가의 증인 채택요구/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창작의 자유를 들어 반박
10.07.	국토위	국토교통부	・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 ・ 민간인 블랙리스트 의혹 ・ 2019년 감정원 작성 ・ 문건 출처 공방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출처도 불분명한 자료라고 반박/ 차수변경 자정 넘겨.
10.07.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전수조사 ・ 대통령 지시 착수 논란 ・ 태양광 피켓 공방 ・ 정회	국민의힘이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는 피켓/민주당이 철거를 요구로 파행
10.07.	행안위	중앙선관위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주요이슈 및 쟁점	특이사항
		등	• 선거 관리 부실 • 선관위 책임	
10.08.	법사위	법무부	• 공소청 출범 • 수사·기소 분리 • 수사 공백 우려 • '조작 기소'·공소취소 •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 기소' 논란과 공소취소 가능성,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문제도 공방
10.08.	정무위	금융위·산은·기은	•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 • 청와대 개입 의혹 • 금융위원장 사과 • HFT 거래 52% 증가 • 시장감시 기능	박대출 의원은 "바다 이야기 시즌2", 최은석 의원은 "사기극"/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피해방지 설계가 문제였다
10.08.	재경위	기획예산처	•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 '편법 이체통장' 논란 • 국채 발행·적립 구조 • 청년계정 성과지표 • 피켓 공방·지연	국민의힘이 노트북에 "미래대응기금 철회" 피켓을 붙였고, 조승래 위원장이 철거를 요구/파행
10.08.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 지뢰 정전협정 위반 규정 • '도발' 표현 누락 • 표현 수정 • 북한 접경 요새화 전망	초기 발표에 '도발' 표현이 빠진 점을 인정/ '지형변화 발생 지역'은 '지뢰 매설 추정지역'으로 바꾸기로.
10.08.	국토위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	• 수입 전기차 사후관리 • 테슬라 FSD 안전성 • BYD 정비망 부족	
10.12.	법사위	감사원	•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 '표적 감사' vs '뒤집기 감사' • 대법원 격려금·업추비 • 격려금 환수	
10.12.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 정유 4사 담합 의혹 • 심사보고서 송부 • 고유가 사과 • 공정위원장 '재벌 착취' 발언 • 감사 중지	주병기 위원장은 '재벌 착취' 과거 발언이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해 논란/ 감사중지후 속계되지 않음
10.12.	재경위	한국은행	• 확장재정-금리 인상 엇박자 • 기준금리 3.00% • ETF 사태 한은 사과	한국은행 총재는 레버리지 ETF 사태를 미리 경고하지 못한 점을 공식 사과
10.12.	교육위	대교협 등 13개 기관	• 수시 먹통 원인 • 부하 테스트 미실시 • 자료 제출 미흡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학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해명
10.12.	과방위	방송미디어통신위 등	• 이진숙 의원 제척 • 이해충돌 논란 • 권한쟁의 예고 • 정책 질의 실종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
10.12.	외통위	주미대사관 등, 워싱턴	• 한미 고위급 소통 한계 • 백악관 협의 부진 • 정보협력 문제	미국이 정보협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밝혀
10.12.	국방위	병무청, 대전	• 병역특례 단계적 폐지 • 11월 말 개선안 • 여성징병제 검토 안 함	
10.12.	행안위	경찰청·도로교통공단	•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 제주 실종 허위종결 • 경찰청장 직무대행 2년째	여야는 2년 연속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국감을 치르는 데 함께 유감.
10.12.	문체위	콘진원·영진위 등	• '암살자(들)' 관람등급 • 영화 공적자금 • 증인 불채택 • 스튜디오큐브 가동률	이재정 위원장은 영화 내용을 이유로 창작자를 부를 수 없다며 증인 요구 거부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주요이슈 및 쟁점	특이사항
10.12.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등, 부산	· 해수부 부산 이전 첫 감사 · 항만공사 통합 · 공공기관 이전 약속 번복	이성권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2차 이전과 묶은 것이 약속 번복이라고 비판했다.
10.12.	산자중기위	코트라·한전·한수원 등	· 삼성·SK 전기요금 선납 제안 · 미국 원전 계약 미서명 · 웨스팅하우스 기술료 발언 정정 · 엘다바 원전 손실충당 · 코트라 계약 개입 의혹	코트라 계약 개입 의혹, 최태원 회장 광주 방문 공방
10.12.	국토위	LH 등	· LH 조직개편 · 공급 확대 부담 · 주담대 규제 발언 사과	이 사장은 주담대 규제 발언을 사과
10.13.	법사위	헌법재판소·공수처	· 대법관 재제청·재판소원 · 헌재소장 업무추진비 · 공수처 수사 부진 · 공수처 수사권 이관 · 공수처 폐지론	곽규택 의원은 헌재소장 업무추진비의 현금 사용(약 5000만원)을 문제 삼고 공수처 폐지를 주장/박지원 의원은 공수처가 일을 못 하면 물러나라고 .
10.13.	정무위	국무조정실·개인정보위 등	· 감사 재개 · 총리 증인 요구 · 티빙·강남언니·KT 개인정보 유출 · 유출 보상 실효성	서일준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에서 시민을 자처한 일을 들어 총리 증인 채택 요구
10.13.	재경위	국세청	·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 · 국세행정 중립성 · 가업상속공제	
10.13.	과방위	원안위·우주항공청 등	· 원전 드론 탐지 공백 · SMR 심사 인력·기준 · 우주청 인력 이탈 · 우주위 장관급 불참	
10.13.	외통위	주유엔대표부 등, 뉴욕	· 지뢰 '불의의 사고' 표현 · 안보리 대응 미정 · 유엔대사 북한 발언 횟수 · 비외교관 대사 전문성	
10.13.	국방위	방위사업청·국과연 등	· 지뢰탐지기 PRS-20K 탐지 실패 · 작전운용성능 조건 누락 · 고가 드론 전력	송영길 의원은 탐지기로 찾은 북한 지뢰가 한 건도 없다고 지적
10.13.	행안위	경기도·경기남부/북부경찰청	· 추미애 지사 첫 국감 · 재정위기 선언·감액 추경 · 전세 관사·관용차 · 중수청장 후보자 적격성 · 대선 출마 여부	추미애 지사는 대선 출마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
10.13.	산자중기위	지식재산처 등, 대전	· SNS 위조상품 판매 · AI 유명인 사칭 ·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 상표 심사 지연	
10.13.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넨셀 임상 청탁 의혹 · 증인 채택 공방·정회 · 동물실험 보고서 축소 · 먹는 임신중지약(미프진)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 증인 채택 공방, 팻말과 고성 공방
10.13.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부	· 노란봉투법 7개월 평가 · 원청 교섭 타결 5곳 · 청년고용률 하락 ·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10.13.	국토위	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	· 고속철 통합 · 운임 할인 유지 · 철도 시설 하자 · 다원시스 추가 계약 ·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다원시스 열차 추가 계약에 "내부 판단이 안일했다"고 인정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주요이슈 및 쟁점	특이사항
10.14.	교육위	서울·경기·인천교육청	·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 교육청 예산 감소 공방 · 경기 하이러닝 KT 의혹 · 정치인 자녀 공방 · 신종 학교폭력·청소년 마약	정치인 자녀 공방(김민석 대표 아들 vs 한동훈 의원 딸). 경기도교육감의 벌금형 선고 고성
10.14.	문체위	관광공사·GKL 등 11개 기관	· '알박기' vs '낙하산' 인사 · 관광기금 미회수 · 관광통역안내사 역사왜곡 · 오사카 복합리조트 대응 · 국민의힘 퇴장	'암살자(들)' 감독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이 퇴장
10.14.	농해수위	농진청·농어촌공사·aT 등	· 농지 전수조사 부작용 · 농지은행 매입 지연 · 농진청 개인정보 유출 · aT 달걀·콩 손실 · 화훼 R&D 감액	aT가 브라질산 달걀을 개당 1464원에 수입해 143원에 판매한 사실
10.14.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 국민연금 평가손실 · 기금위 회의록·증인 · 기금위 정부 비중 ·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	기금위 회의록 제출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증인 채택 논란
10.15.	행안위	서울특별시	· 한강버스 수익성 · GTX-A 철근 누락 · 주택 공급 목표 미달 · 정비구역 지정 권한 · 성동구 표적 감사	채현일 의원은 서울시의 성동구 감사를 표적 감사로 규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두고도 공방
10.15.	법사위	법제처 등	· 대법원장 제청권 해석 · 재제청 거부 논란 · '독단적 해석' 반발 · 법제처장 업추비	법제처장의 해석에 대해 "독단적 해석"(김태규), "독재적 발상"(윤상현)이라고 반발
10.15.	정무위	캠코·신보·주금공, 부산	· 캠코 구로 부지 헐값 매각 · DIP 금융 부실 · 귀속재산·무단점유 · 비상임이사 해임 요구 · 신보 연대보증	박대출·신동욱 의원은 오창석 비상임이사의 해임을 요구
10.15.	재경위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등	· '고무줄 통계' · ETF 사전영향평가 면제 · 관세청 수사심사과 신설 · 면세점 계열사 특혜 · 투표지분류기 수의계약	관세청은 공소청 출범 뒤 약 47차례 지도를 요청
10.15.	과방위	KISA·NIA 등	· KISA 원장 거취 · 경력 부풀리기·업추비 · 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 KBS 외압 설전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대통령실의 표적 조사 의혹으로 원장을 엄호/김장겸·한준호 의원은 KBS 외압을 두고 설전
10.15.	산자중기위	소진공·중진공·기보 등	· 소진공 대출 후 조기 폐업 · 홈플러스 입점업체 대출 · 중진공 자본잠식 기업 대출 · 기보 회수 부진 · 소진공 이사장 태도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의 답변 태도논란/ 김성원 위원장은 기관장들을 일으켜 세워 질타
10.15.	기후노동위	환경부 산하기관	· 인사자료 제출 거부 · 오전 파행·국민의힘 퇴장 · 서남권 용수 공급 · 우크라이나 출장	남광우 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의결된 인사자료 제출을 거부
10.15.	국토위	한국부동산원·HUG	· 공사비 검증 실효성 · HUG 전월세 안심신탁 · PF 보증 부실 우려 · 2019년 사찰 의혹 문건	국민의힘은 2019년 사인 재산 사찰 의혹 문건의 조사 결과를 종합감사 때 보고하라고 요구
10.16.	법사위	서울고법·	·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공방	이성윤 의원은 대법관 제청 지연이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주요이슈 및 쟁점	특이사항
		서울중앙지법 등	· 헌법 84조 해석 · 대법관 공백 장기화 · 제청권·임명권 우열 · 대법원장 사퇴 촉구	226일째라고 지적/.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
10.16.	재경위	대구·부산청·세관·한은 대구경북본부 등	· 무리한 과세·납세자 사망 · 심판청구 인용률 1·2위 · 세무조사 자료 제출 거부 · 부산세관 마약 수사 인력 · 지역경제 회생	여야가 함께 '무리한 과세'를 질타/ 대구청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도 비판
10.16.	교육위	서울대·서울대병원·방통대 등	· 서울대 로스쿨 출신학교 노출 ·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낙하산 · 낙상사고 축소 보고 · 방통대 AI 부정행위 · '시진핑 자료실'	서범수 의원은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선임(지원서 4쪽, 면접 없음)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 박정훈 의원은 '시진핑 자료실' 존치를 질타
10.16.	과방위	KBS·EBS·방문진 등	· 이진숙 의원 제척 재충돌 · 감사 중지 · MBC 비공개 업무보고 불참 · KBS 기자 항의 전화	국민의힘은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 불참/서천호·김장겸 의원은 한준호 의원실의 KBS 기자 항의 전화를 문제/. 이훈기 의원의 "패륜 3남매" 발언으로 고성
10.16.	농해수위	농협중앙회·마사회 등	· 농협법 개정(직선제·독립 감사) · 강호동 회장 사법 리스크 ·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 · 마사회 온라인 마권 급증	강 회장의 측근 인사와 사법 리스크를 들어 사퇴 압박
10.16.	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원주	· 건보 특사경 도입 · 사무장병원 환수 · 비급여 풍선효과 · 건보 국고지원 미이행 · 심평원장 의혹·사퇴 요구	한지아 의원은 홍승권 심평원장의 출장·관용차·비서 증원 의혹을 들어 사퇴를 요구
10.16.	기후노동위	경사노위·중노위·최임위 등	· 민주노총 불참·대표성 ·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판정 · 공공기관 이전 교섭 대상 · 반도체 증인 채택 공방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삼성·SK 임원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
10.19.	법사위	서울·수원광역공소청 등11곳	· 공소청 첫국감 · 검찰수사권 폐지공방 · 공소취소 검토 여부 · 한동훈의원 문건유출 · 김승원전후보자 기소유예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랑할 만한 선배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동훈 의원 문건 유출, 김승원 전 후보자 기소유예 재검토 요구
10.19.	정무위	금감원·예보·서민금융진흥원	· 금감원장퇴진압박 · 레버리지ETF위험경고부재 · 은행가산·우대금리 · IBK투자증권불완전판매	최은석 의원은 금감원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ETF 위험 경고가 없었다고 질타/ 이 원장은 "숨기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 IBK투자증권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 위법성제기
10.19.	국방위	육군본부등, 계룡대	· 브런슨사령관영토발언 · 국군사관학교창설 · 전작권전환연습 · 여성징병제 · AI스마트부대	성일종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습에서 수도권 방어선이 뚫렸는지 따졌음
10.19.	문체위	국립중앙박물관등30여곳	· 국중박관장'셀프전시' · 친일파글씨오인전시 · 관장사퇴요구 · 이해충돌	박물관장에 대한 국민의힘 조은희 간사·김석기 의원은 사퇴를 요구했고, 김승수 의원은 이해충돌이라고 지적/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소장자를 숨긴 점을 문제 지적/오후에는 연합뉴스 비공개 업무보고
10.19.	농해수위	해경·수협·4대항만공사등	· 항만공사 통합우려 · 수협 연체급증 · 수협은행 사기계좌 · 해경구조 장비부실	해경의 고립 주민 구조선 사업은 38억원을 쓰고도 개발 미진/ 서해 피격 수사 번복을 두고 공방/하만식 해경청장은 혼란을 사과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주요이슈 및 쟁점	특이사항
			· 서해피격수사번복	
10.19.	산자중기위	가스공사·석유공사·강원랜드등, 대구	· 가스·석유공사통합 · LNG직도입체리피킹 · 해외자원투자부실 · 강원랜드사장자격 · '가짜석탄'의혹	강원랜드 사장의 자격·법인카드 사용, 가스안전공사 인사팀장의 아들 채용 미회피가 도마/. 김도읍 의원은 철암 저탄장 '가짜 석탄' 42만 톤 의혹 제기.
10.19.	기후노동위	한전·한수원·발전5사 등	· 전기요금인상론 · 한전개인정보유출 · 유연탄수의계약 · 고준위방폐장 · 반도체증인·퇴장	나경원 의원은 하동근 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낙하산 의혹 검증 자료를 요구/ 삼성·SK 증인 채택 공방 끝에 국민의힘이 잠시 퇴장/대유위니아 박영우 전 회장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
10.19.	국토위	서울시·경기도	· 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 · 서울집값전망 · 강남·비강남공급격차 · 추미애'소방빨대'발언 · 소방재정구조	경기도 감사는 순직 소방관 영결식 때문에 오후 1시 연기 시행/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사과를 "개사과"라고 비판/ 장종태 의원은 오 시장 재임 중 강남 3구 외 지역의 준공이 43% 줄었다고 지적
10.20.	법사위	대전·광주·대구·부산고법·공소청등	· 장윤기사건양형 · 지방공소청보완수사 · 손봉기대법관후보재제청 · 5·18폄훼무죄판결 · 돌려차기사건재판장발언	대구고법에서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두고 '지역 향판 폄훼'(김태규)와 '배우자 헌법재판관 이해충돌'(박형수) 주장 충돌. 대구지법의 5·18 '폭동' 표현 무죄 판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장 발언도 질타.
10.20.	재경위	한미전략투자공사·수출입은행등	· 한미전략투자공사첫국감 · 송금후리스크심사 · 텍사스사업수익률비공개 · 알래스카LNG · 인력공백	강민국 의원은 알래스카 LNG 재산세 감면안이 주 의회에서 부결된 사실을 사장이 모른다고 질타. 조승래 위원장은 제도가 설계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자리
10.20.	교육위	영남·강원/호남·충청·제주교육청	· 교육재정교부금개편 · 교육청재정부족호소 · 특수학교과밀 · 교육청수치제시부족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교육청들이 필요 인력과 비용을 수치로 내놓지 않고 부족만 호소한다고 비판. 충북교육청은 교사 폭행·장학관 불법촬영 등 현안을 안고 감사
10.20.	과방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출연연·KAIST등	· 연구자 처우개선 · PBS폐지·연구수당 · R&D삭감 여파 · 휴머노이드 시연 · 기관장 과다 출장	KAIST 휴머노이드 로봇이 국감장에서 시연. 최혁진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375일 중 326일을 출장으로 보냈다고 지적.
10.20.	국방위	해군·해병대·공군,계룡대	· 북한'적반하장'담화규탄 · NLL대응 · 유·무인전력모함 · 해병대준4군체제 · 광주공군기지임시이전	임종득 의원은 25사단 지뢰 사고 때 더 강하게 대응했어야 했다. 공군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광주 공군기지 전력을 예천·중원·서산으로 임시 이전하는 안을 제시.
10.20.	행안위	충북도·경북도·지방경찰청	· 충북도 채무1조원 · 충북도보좌관 인사 · 대구·경북 행정통합 · TK신공항 지연 · 산불이재민 임시주택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 의원은 충북도 보좌관의 형사처벌 이력과 경력 미달, 지역구 출장을 지적. 진종오 의원은 석포제련소 이전 검토가 '상생' 검토로 바뀐 경위추궁
10.20.	농해수위	산림청 등	· 산림사업법인56%위법 · 퇴직공무원업체수주 · 소나무재선충확산 · 산불피해추정치 · 진화헬기공백	산불 피해 6조7000억원 중 3분의 2가 추정치라는 지적에 박은식 산림청장은 "부족했다"고 인정. 특수진화대 도착에 평균 104분이 걸리고 초대형 헬기 도입도 늦어지고 있음.
10.20.	복지위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적	· 지방의료원 적자 · 국립암센터 차입운영 · 대북의료 지원	국민의힘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에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문제제기(조배숙). 김기웅 의원은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주요이슈 및 쟁점	특이사항
		십자등	· 북한보건 의료백서	약 9400만원을 들인 '북한 보건의료 백서'가 자기표절이라고 주장.
10.20.	외통위	재외공관 합동감사	· -	-
2026-10-21	정무위	국조실·공정위·보훈부등비금융 종합감사	· 공정위원장'재벌착취'발언사과 · 공정위'셀프심판'구조 · 의료기기간납업체 · 인력·기술빼가기 · 보훈요양원대기	조정훈 의원은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보상'이 아닌 '손해배상' 책임으로 다뤄야 한다/. 서일준 의원은 보훈요양원 대기자가 정원을 크게 넘는다고 지적.
2026-10-21	교육위	부산대·전남대등지방거점국립대	· '서울대10개'탈락반발 · 국립대서열화우려 · 추가선정계획 · 부산대·부산교대통합	전북대 총장은 모든 평가에서 1~3위였다며 탈락 근거/ 부산대·부산교대 통합의 실효성 우려와 6개 대학 반도체 연구시설 지연도 지적.
2026-10-21	행안위	부산시·울산시·지방경찰청	· 부산시장통일교의혹 · 부산엑스포실패책임 · 생곡소각장중단 · 울산시장답변거부 · 국민의힘퇴장	울산시 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 전원이 퇴장/, 이후 10분간 정회/ 부산시는 퐁피두센터 분관 사업 중단,
2026-10-21	문체위	대한체육회·체육공단 등	· 아시안게임병역특례폐지론 · 국군체육부대종목불균형 · 스포츠윤리센터일감몰아주기 · 장애인선수지원	노종면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 간부가 배우자 회사에 사업 4건을 몰아줬다고 주장/장애인 선수촌 회복시설 예산 1억25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김석기).
2026-10-21	외통위	재외공관 합동감사	· 보도미확인	-
10.22.	법사위	공소청	· 공소청첫국감 · 공소취소검토여부 · 탈북어민강제북송항소심 · '연어·술파티'공방 · 한동훈의원문건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을 두고 서영교 위원장이 "연어와 술은 있었다"고 하자 고성/ 한동훈 의원의 내부 문건 공개 경위는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답
10.22.	정무위	금융위·금감원등금융 종합감사	· 금융권전관예우 · 조각투자거래소인가공정성 · 가산·우대금리상쇄 · 가계대출총량규제근거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조정훈·김형연).
10.22.	재경위	재정경제부 등 종합감사	· 미래대응기금 · 가상자산과세유예 · 국민연금국내주식비중 · 반도체소부장 · 집값·임대공급	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린 것이 주가 부양용이라고/부총리는 대규모 매도를 피하려는 조치였다고 반박
10.22.	과방위	방미통위 등 방송 종합감사	· 헌재가처분·이진숙제척재공방 · X마약·성매매게시물 · 구글인앱결제·유출 · YTN승인취소심의 · 해킹보상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심의에 김 위원장이 참여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
10.22.	국방위	육·해·공군사관학교	· 사관학교통합 · 통합비용3조원 · 생도반대92% · AI·드론교육개편	한기호 의원은 생도의 92.3%가 통합에 반대/ 육사는 2027년까지 전 생도의 AI 자격증 취득을 지원.
10.22.	행안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주도·지방경찰청	· 전남광주첫국감 · 반도체클러스터실행가능성 · 시장보좌인력 · 장윤기사건광주경찰 · 제주BRT·칭다오항로	박덕흠 의원은 시장 수석급 보좌인력이 13명으로 청와대보다 많다고 비판/ 제주도 감사는 BRT·칭다오 항로 등 전임 도정 사업에 질의가 집중/. 장윤기 사건 담당 경감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10.22.	농해수위	농식품부 등 종합감사	· 농지전수조사재공방 · 관행적위반특별조치법	강승규 의원은 전수조사 추진 배경을 밝히려면 대통령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주요이슈 및 쟁점	특이사항
			・농업통계왜곡 ・영농형태양광 ・언론광고비보복의혹	불러야 한다고 주장/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가 비판 언론에 광고비로 보복한다고 주장.
10.22.	산자중기위	산업통상부 등 종합감사	・산업・에너지분리조직개편 ・호남반도체클러스터 ・원전업무이원화 ・CPTPP가입	대통령도 CPTPP 가입 의지가 있다며 "꼭 가입할 것"이라고
10.22.	복지위	아동권리보장원・사회보장정보원 등9곳	・아동권리보장원117만건유출 ・입양기록전산화 ・노인일자리GPS감시 ・인구보건복지협회출입증남용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실장이 협회장 국회 출입증에 자기 사진을 붙여 쓴 사실이 드러나 회장 사퇴 요구(백종헌). 협회 의원의 직원 가족 특혜 진료도 질타.
10.22.	국토위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 공단등	・제주공항지연・대통령전용기 ・가덕도신공항공사비 ・공항CT검색기 ・공항공사통합여부	허영 의원은 인천공항이 1287억원을 들여 CT 검색기 84대를 들이고도 액체 100ml 제한을 유지한다고 지적/. 국토부는 공항공사 통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
10.23.	재경위	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종합감사	・미래대응기금'재경부패싱' ・기금재원2029년소진 ・성장률・물가전망상향 ・초저금리복귀어려움 ・석유최고가격제	민주당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의 물가 전가를 막았다고 평가(김남준). 소방 국가직 전환 뒤 국비 지원율이 줄었다는 지적(정태호).
10.23.	교육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종합감사	・한동훈딸의혹재수사 ・국교위원장친누나국제학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의혹 ・수시먹통책임론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장애 당시 사무총장 출장을 승인한 데 대해 사퇴도 고려하겠다고함.
10.23.	과방위	과기정통부・원안위・우주청등종합감사	・프런티어AI추진경위 ・정부기관해킹・PHP취약점 ・LG유플러스해킹은폐의혹 ・AI데이터센터규제 ・5GSA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에 배 부총리는 고의 은폐라면 회사 책임(이훈기・조경태).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100MW)과 5G SA 미구현도 지적.
10.23.	문체위	문체부・국가유산청등 종합감사	・김혜경여사해외행사의혹 ・유홍준전관장전시논란・감사 ・산하기관장보은인사	산하기관장 '보은 인사' 지적에 최 장관은 "임명된 분들과 저에 대한 모욕"이라며 전문성을 보고 임명(김석기・조은희). 유 전 관장은 21일 사의를 표했고 청와대가 수용.
10.23.	농해수위	해수부・해경등종합감사	・낙산항전복구조부실 ・노후어선・검사인력 ・북극항로경제성 ・항만공사경비위탁 ・한일어업협정손실	항만공사 경비 업무 자회사 위탁의 위법성(윤준병), 어촌뉴딜300 완료 116곳 중 1곳만 기한 준수(윤준병), 한일어업협정 표류에 따른 어업인 손실 약 7200억원(문금주)이 지적
10.23.	산자중기위	중기부・특허청등종합감사	・김병주MBK2차불출석 ・모두의창업플랫폼선정 ・쿠팡이츠수수료 ・정책자금브로커	쿠팡이츠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할인 전 금액 기준 수수료 문제를 추궁(오세희・송재봉).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 676건 중 수사 의뢰가 12건뿐이라는 지적(윤한홍).
10.23.	기후노동위	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등12곳	・산재기업증인0명'맹탕국감' ・산재・임금체불청문회논의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자질 ・근로복지공단울산병원명칭	나경원 의원은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자기소개서를 내지 않았고 금융투자 전문성이 없다며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명칭이 지역 민간병원과 겹쳐 응급 이송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김기현).
10.23.	국토위	국토부・행복청・새만금청 종감	・전월세월세화 ・공급목표미달 ・대통령제주방문골프의혹고성 ・제주공항지연사과 ・LH분리미확정	김은혜 의원이 대통령 제주 방문 때 비행금지구역에 골프장이 있다고 문제 삼자, 모경종 의원이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고 반박해 고성

지난해(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 못한 위원회가 5곳

지난해 최악 평가 받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포함 하여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도 채택 못했다. 산업자원위원회도 채택 못했다. 감사후 3개월 내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회부터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제22대 국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의결 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의결일자
2218927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보위원회)	정보위원장	2026-05-12	2026-06-18
2218760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26-04-30	2026-05-07
2217979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무위원회)	정무위원장	2026-03-31	2026-03-31
221780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3-27	2026-03-31
221777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3-26	2026-03-31
2217765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3-26	2026-03-31
2217564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	2026-03-18	2026-03-31
2217472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03-13	2026-03-31
221737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11	2026-03-12
2217317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교통일위원회)	외교통일위원장	2026-03-09	2026-03-12
2216967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장	2026-02-23	2026-03-12
2216708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장	2026-02-10	2026-02-12

※출처 : 국회의안정보 시스템

1차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조차 채택하지 않은 위원회는 교육위원회다.

참고로 국정감사모니터단이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를 시작한 15대 국회말부터 조사해 본 결과, 제20대 국회부터 결과보고서 채택이 안된 경우가 있었다(2016년도 미래창조과학위원회 국정감사).

제20대 국회 이후 여야간의 대결이 심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2023년에 국정감사 후 9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개정을 하였으나, 지켜지기는커녕 선거 여파로 채택한 위원회가 5개에 불과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인 2023년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지지 않은 위원회가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나 되었다.

2022년도 결과보고서는 11군데만 채택하였다. 2021년도 결과보고서는 처리되지 않는 위원회가 교육위와 국방위였다.

2020년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위원회는 4곳이나 된다. **운영위, 교육위, 산업위, 환노위**였다.

당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과보고서가 여야의 입장차로 채택이 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법사위의 2023. 10. 13. 이탄희 전 의원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표현) **국회**였다.

2024년도 결과보고서에는 10월 13일 현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지까지 하지 않은 위원회가 17개 상임위원회 중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은 위원회가 3개나 되었다. 이중 기재위(위원장 임이자)는 10월 21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나 10월 24일 현재 아직 본회의 의결은 되지 않았다.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된 위원회 (의결일자순) ≫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207539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회)	2025-01-15	2025-01-17	원안가결
2207786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회)	2025-01-23	2025-02-14	원안가결
2208470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법제사법위원회)	2025-02-26	2025-02-27	원안가결
2208458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교통일위원회)	2025-02-26	2025-02-27	원안가결
2208326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노동위원회)	2025-02-21	2025-02-27	원안가결
2208264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무위원회)	2025-02-19	2025-02-27	원안가결
2208718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025-03-07	2025-03-13	원안가결
2208673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05	2025-03-13	원안가결
221000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04-21	2025-05-01	원안가결
2211474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회)	2025-07-10	2025-07-23	원안가결
2212825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보위원회)	2025-09-09	2025-09-25	원안가결
2212612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방위원회)	2025-09-02	2025-09-25	원안가결
2212576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여성가족위원회)	2025-09-01	2025-09-25	원안가결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현황≫

(국감조법 15, 16조 채택-1, 미채택-0)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채택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국회운영	**2**	0	1	1	0
법제사법	**2**	1	1	0	0
정무	**4**	1	1	1	1
기획재정	**3**	1	1	1	0
교육	**0**	0	0	0	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	1	1	0	0
외교통일	**3**	1	1	1	0
국방	**2**	1	0	1	0
행정안전	**4**	1	1	1	1
문화체육관광	**3**	1	1	1	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	1	1	0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	0	1	0	0
보건복지	**3**	1	1	1	0
환경노동	**2**	0	1	0	1
국토교통	**4**	1	1	1	1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채택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정 보	**3**	1	1	1	0
여 성 가 족	**4**	1	1	1	1
계	**44**	13	15	11	5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③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23.7.11]
④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⑤ 국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전문개정 2018.4.17]

상임위별 국정감사 활동에 대한 단평 : 최고는 없고 최악만

1.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 간사 김의겸, 박형수)

위원장의 입에서 '조용하세요' 가 많이 나오는 떠들썩한 국정감사를 하였고, 6인 분, 네가 인간이 돼라 등의 막말도 나왔다. 국정감사 내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이슈화되었다. 지난해와 같은 대법원 현장검증이나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는 없었다.

참고인으로 김경호 변호사가 2회에 걸쳐 나왔는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법사위의 증인 참고인 채택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게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 법제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된 법리해석도 주목을 끌었다.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채 대법관의 제청권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4번을 말하였다. 국정감사 밖에서는 위원 상호간 고소고발 예고전도 빚어졌다.

2. 정무위원회(위원장 유동수, 간사 박상혁, 서일준)

공정거래위원장 때문에 파행을 겪었다. 비교적 조용히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정무위원회가 심야에 감사가 멈추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을 두고 금융위원장은 "靑 지시 없었다"고 답했다. 손실 규모는 2.3조원(정부)과 54조원(야당) 주장이 맞섰다. 5대 시중은행장이 4년 만에 출석해 연쇄 해킹·정보유출을 사과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8%에 그친다는 지적과 가계대출 금리 문제가 제기됐다. 조각투자 거래소 예비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공정위원장의 대기업관이 도마에 올랐다. 대출 규제 효과를 두고 "실패한 정책"(야당)과 "안 했으면 집값 더 올랐다"(정부)가 맞섰다.

국감 첫날 보훈부 장관이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복귀했다. 소속 위원 김재섭 의원이 같은 날 경찰에 소환되면서 '정치수사' 공방이 일었다.

3.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승래, 간사 오기형, 배준영)

어려워진 민생 문제 때문인지 정책국감이 이루어졌다. 대미 투자(알래스카 LNG·텍사스 발전소)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증했다.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레버리지 ETF 사태에 사과하면서 통화·재정정책 엇박자 공방이 벌어졌다. 한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40대 차주 3명 중 1명이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는 자료가 나왔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빚투'(야당)와 '정쟁적 언어'(여당)가 충돌했다.AI로 분석한 나라장터 세금 누수 정황 5,628억 원 같은 정책 질의도 나왔다.

국세청장이 국감 기간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보은 인사' 공방이 불거졌다.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 앞서 미래 기금관련 피켓 때문에 파행이 빚어졌다.

4.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정, 간사 고민정, 이인선)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교육부 국감까지 번졌고, 장관의 과거 발언 번복이 지적됐다. 내년 교육청 예산 7.2조 원 부족 전망 속에 교육교부금 개편 공방이 벌어졌다. 학원가 문항거래와 교사 징계 불복이 도마에 올랐고, '1타 강사'가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술형 수능·3시 하교제 추진에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수도권 편중과 대교협 수시 원서접수 장애가 지적됐다. 유승민 전 의원 딸의 인천대 교수 특혜 임용 의혹이 국감에서 다뤄졌고, 같은 주에 경찰이 4명을 송치했다. 서울시교육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관련 선거당시 선거범죄 벌금형 관련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다.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송기헌, 간사 한준호, 최형두)

여당 주도로 이진숙 의원을 방미통위 국감에서 제척했다. 현역 의원 국감 제척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한준호 의원 제척안으로 맞섰다. 이진숙 의원의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을 두고 '패륜' 공방이 벌어졌다.정보유출 기업들이 줄사과했고, 과기정통부는 징벌적 제재 강화를 약속했다. 원전 늦장 심사로 2조 원 기회비용 발생, SMR 안전규제 인력 7명뿐이라는 지적과 YTN 매각 승인 취소 청문회 예고가 나왔다. 제척 공방으로 국감이 1시간 30분 만에 중지되는 파행이 반복됐다. kbs 국정감사는 중지되었다. 로봇·스마트안경을 시연하는 '시연 국감' 장면도 화제가 됐다.

6.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석준, 간사 홍기원, 김대식)

DMZ 북한 지뢰 폭발 대응을 두고 부처마다 온도차가 드러났다. 외교부는 안보리 서한을 검토했고, 통일부 장관은 "공격 단정 못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합의했던 경위가 쟁점이 됐다. 주미대사가 "백악관과 고위급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한미 정보협력 균열론이 커졌다. 통일부 장관의 '북향민' 호칭과 대북 인식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도 경질론이 나왔다. 브라질 계란 수입이 정상회담 성과용이었다는 의혹을 외교부가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

급이 보류돼 감사반을 미주반에서 구주반으로 바꿨다. 해외국감무용론도 다시 나왔다.

7. 국방위원회(위원장 진성준, 간사 김병주, 임종득)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수백 발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가 유엔사 공동조사와 정전협정 위반 통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합참의장은 "도발 아니란 생각 1도 없다"고 했다. 북한 '국경선 요새화'는 2028년 완료가 예상된다며 감시장비 보강을 밝혔다.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이 병역특례의 점진적 축소와 장기적 폐지 방향을 밝혔다.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다.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을 두고 '동맹 사령관 겁박' 공방이 벌어졌다. 북 지뢰 규탄 결의안이 여당 주도로 반쪽 의결됐다. '빈총 경계'를 두둔한 전 1군단장 발언과 KADIZ 진입 횟수 공개 거부도 질타를 받았다.

8.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영진, 간사 이해식, 강명구)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장 없이 출범했고,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 청문회와 '임은정 1호 감찰'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년째 대행 체제인 경찰청 국감에서는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과 '정치수사' 공방이 맞붙었다. 여야가 함께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질타했다. 경기도 국감에서 추미애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부천 화재 소방관 순직과 맞물려 사과로 이어졌다. 서울시 국감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주택공급 책임 공방으로 채워졌다. 순직 소방관 영결식 때문에 국감이 3시간 연기됐다. 지사 관사 방화 협박범이 검거됐고, 인사처장은 '하이힐' 발언을 사과했다.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간사 이정문, 조은희)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의 '무보수' 논란(월 200만 원 직책수행비)과 '패노메논' 상표권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다.정부 투자금 40억 원이 들어간 영화 '암살자(들)'를 두고 '문화 검열'과 '창작의 자유' 공방이 벌어졌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본인 소장 친일파 유묵을 '셀프 출품'한 사실이 드러나 사과했지만 사퇴는 거부했다.
황교익 씨 '보은 인사' 논란과 관광가이드의 "조선은 中 속국" 설명이 지적됐다. 아시안게임 선수 언행 논란과 함께 병역특례 폐지법이 발의됐다. 패노메논 계약서 공개 과정에서 한때 파행했다. 박진영 위원장의 '시스루' 복장 논란이 일었고, 이임생 증인은 해외 출국으로 불출석했다.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 간사 윤준병, 김선교)

78년 만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민 반발과 처분 기준 공방이 이어졌다. 브라질 계란을 한 판 4만 원에 수입해 4천 원에 판 시범사업이 논란이 됐다. 농협회장 직선제와 농협개혁을 두고 '농협 장악법'과 '자초한 일'이 맞섰다. 농어촌기본소득 전국 확대 요구와 과천경마장 이전 비용 2.4조 원 추정이 나왔다. 해양수산 R&D 과제가 3년새 43% 줄었고, '부캉이'(상어) 출현에 따른 해변 안전대책도 요구됐다.

첫날 야당의 '농민 몰아내고 태양광' 피켓 시위로 국감이 시작부터 파행했다. 국무총리는 국감 중 농촌 현장을 찾아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김성원, 간사 장철민, 구자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회장이 불출석하자 동행명령·고발이 논의됐다.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의 태도와 인선 논란에 여야가 함께 질타했다. 호남 반도체 전력망 비용 분담(삼성·하이닉스 80%)과 한전 재무 개선·전기요금 부담 문제가 다뤄졌다. 산업기술 유출 대응과 중기부 핵심기술 연구의 외국인 참여 보안 관리가 지적됐다. 기술보증기금의 '강남언니' 보증 연장, 공공기관 AI 성과 부풀리기, 정책자금 대출 직후 폐업 같은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일간지 보도는 9건으로 14개 위원회 중 가장 적었다. 정책 지적 상당수가 당 게시판 보도자료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후 배포하는 보도자료만 확인되었다.

12.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 간사 서영석, 백종헌)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코스피 급락을 두고 야당이 특검을 요구했다.의사 수가 늘었는데도 지방의료원 10곳 중 7곳에서 진료 차질이 생기고, 지역 국립대병원 인력난과 적자가 지적됐다.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 제한과 미프진 합법 도입 문제가 다뤄졌다. 사망자 기초연금 지급, 중증장애인 연금 미수령 사망 같은 복지 누수가 제기됐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이후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식약처 국감이 '김승원 의원 제넨셀 의혹' 공방으로 30여 분 만에 파행했다. 심평원장의 프랑스 출장도 도마에 올랐다.

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정호, 간사 최기상, 김형동)

반도체 메가특구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예외)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법안을 연내 처리하고 정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후속, 건설노조 불법행위 방치, 하청 직접고용 지연이 지적됐다.

영풍의 반복된 환경오염과 백색목록 야생동물 888종 관리 문제가 다뤄졌다. 기상청 예보 정확도 하락과 관측망 장애, 건설·조선업 산재 증가에 관한 정책 지적이 이어졌다. '성남라인' 기관장의 자기소개서 제출 거부로 야당이 집단 퇴장해 파행했다. 이재용·최태원 증인 공방에 밀려 산재 기업 증인은 부르지 못했다.

14.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유의동, 간사 복기왕, 정동만)

LH의 '서울 신축매입 2만 가구'가 90%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LH 사장의 "집값 급락 가능성" 발언도 논란이 됐다. 국토부 장관이 "연말 집값 안정, 전세 소멸은 메가트렌드"라고 답하자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비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부동산원장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테슬라 FSD 검증 공백과 BYD 정보 이전 우려, KTX·SRT 통합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시 국감은 한강버스 리베이트와 용산공원 주택공급 공방에 집중돼 부동산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경기도 국감에서 여당 의원이 추미애 지사를 감싸려다 "소방이 재정 쭉쭉 빨아먹나" 발언으로 당 대표에게 엄중 경고를 받았다. 질의 5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교섭단체 홈페이지 국정감사 홍보 이용 국회의원 현황

(2026.10. 17.(토)까지 분석)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홈페이지 국정감사 자료실에 올라온 올라온 보도자료 등을 분석했다.

겸임위원회(정보·운영·성평등가족)를 뺀 양당 상임위원 270명이 기준이다. 국민의힘은 109명 중 17명이 게시해 참여율 15.6%, 게시 225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1명 중 68명이 게시해 참여율 42.2%, 게시 1,199건(중복 제외 1,186건)이다. 합계는 85명 게시(31.5%), 185명 미게시, 1,424건이다.

올린 의원 1인당 평균은 국민의힘 13.2건, 민주당 17.6건이다. 위원회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국방·국토·행안위에서 게시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게시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농해수위 188건, 국토위 186건, 복지위 176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게시가 가장 적은 위원회는 국방위 21건, 정무위 22건이다. 국민의힘은 정무위(51건)와 외통위(51건)에 게시가 몰렸는데, 둘 다 사실상 의원 1명이 올린 것이다.

0건 의원은 국민의힘 92명, 더불어민주당 93명이다. 50건 이상 올린 의원은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다.

국민의힘은 상위 5명이 전체의 67.6%, 상위 10명이 91.6%를 차지한다. 소수에게 쏠린 구조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5명이 25.7%, 상위 10명이 40.5%로 비교적 고르게 나뉜다. 국민의힘 상위 5명은 박준태 51, 안철수 36, 김위상 29, 서천호 20, 이달희 16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상위 5명은 소병훈 84, 문진석 69, 임오경 55, 윤준병 51, 염태영 49건이다.

같은 위원회 안에서도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복지위 더불어민주당은 소병훈 의원이 84건인데 8명은 0건이다. 국민의힘은 전부 보도자료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 1,143건 외에 카드뉴스·요약 47건, 쇼츠 9건이 있다. [단독] 표기비율은 국민의힘 36%(81건), 민주당 11.4%(137건)다. 안철수 의원은 36건 모두 [단독]이다.

역할별로 보면 국민의힘 위원장 5명은 모두 0건이다. 민주당 참여율은 위원장 33%, 간사 43%, 위원 43%다.

(1) 분포 : 0건과 수십 건이 공존

게시 건수	국민의힘	민주당
0건	92명	93명
1~9건	10명	25명
10~49건	6명	39명
50건 이상	1명	4명

(2) 집중도 : 국민의힘은 소수 의원에게 몰려 있음

국민의힘 : 상위 5명(박준태 51, 안철수 36, 김위상 29, 서천호 20, 이달희 16)이 전체의 67.6%, 상위 10명이 91.6%를 차지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 상위 5명(소병훈 84, 문진석 69, 임오경 55, 윤준병 51, 염태영 49)이

25.7%, 상위 10명이 40.5%로 상대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다.

(3) 같은 위원회・같은 당 안의 편차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 13명 중 소병훈 의원 84건, 8명은 0건

더불어민주당 재경위: 12명 중 문진석 의원 69건, 9명은 0건

국민의힘은 국방위・국토위・행안위에서 올린 의원이 한 명도 없고, 정무위는 박준태 의원 혼자 51건.

(4) 게시 유형

국민의힘은 225건 모두 보도자료이고, 36%에 [단독] 표기가 붙어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 1,143건, 카드뉴스・요약 47건, 쇼츠 9건이고, [단독] 비율은 11.4%였다.같은 글 재게시는 13건이었다..

(5) 역할별 참여율

국민의힘 : 위원장 5명은 모두 0건, 간사 14.3%, 위원 16.7%

더불어민주당 : 위원장 33.3%, 간사 42.9%, 위원 42.8%

(6) 일자별 전개

국민의힘은 9월 28~29일에 미리 몰아서 올린 뒤 꾸준히 이어졌다. 민주당은 10월 5일(135건), 7일(143건), 14일(172건)처럼 국감 일정에 맞춰 크게 몰렸다.

10대 일간지 국정감사(10.6.~10.19) 기사 분석

빅카인즈 이용 10대일간지 기사 중 국정감사가 포함된 기사 1,080건(10/6~10/19)을 분석

분석결과, 사법・검찰 이슈가 압도적이었다. 1위 조희대 대법원장(194건)에 공소청(6위), 중수청 청문회(3위), 감사원(17위)을 더하면 300건이 넘었다. 검찰 폐지 후 새 형사사법체계를 처음 점검하는 국감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도 큰 축이다. 한미동맹(5위), MDL(7위), 정청래 비자(9위), 외교안보라인 문책론(10위)이 서로 얽혀 있다. 정책 국감보다 정쟁 국감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8위 '막말・쇼츠'에 더해 추미애・이진숙・김재섭・암살자(들) 공방 등 인물 중심 논란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순수 정책 이슈로는 부동산(4위), 레버리지 ETF(14위), 금융 해킹 정도다.

≪일간지 정당별 현황(자료・지적 인용 기사 1건 이상인 의원)≫

정당	상임위원	인용 1건 이상 의원	인용 기사 합계
국민의힘	109	47명 (43.1%)	127
더불어민주당	161	32명 (19.9%)	78
조국혁신당	12	1명 (8.3%)	1
진보당	4	1명 (25.0%)	9
개혁신당	3	1명 (33.3%)	1
사회민주당	1	1명	1
기본소득당	1	0명	0
무소속	7	4명 (57.1%)	31
전체	**298**	**87명 (29.2%)**	**248**

≪10대 신문의 국정감사기간 이슈 보도건수 분석≫

10대 일간지 국감 기사 1,080건(10/6~10/19)을 주제별 키워드로 묶어 많이 보도된 순서대로 20개를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해 보니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은 194꼭지인데, 부동산 관련은 90꼭지로 4위에 머물렀다.

≪국정감사기간 중 보도된 건수 상위 이슈 현황≫

순위	이슈	기사	보도정점
1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과 탄핵 추진** (대법관 재제청, 격려금・업무추진비, 혁신당 탄핵안)	194	10.06.
2	**추미애 경기지사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부천 화재 소방관 순직**	104	10.19.
3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96	10.13.
4	**부동산・전월세 대책과 서울시 국감** (한강버스, 오세훈 '네 탓 공방')	90	10.12.
5	**한미동맹 균열 논란** (전작권 이견, 브런슨 사령관 발언, 강경화 대사 "백악관 소통 답답")	89	10.09.
6	**검찰 폐지 후 첫 공소청 국감** (李 공소취소 논란, 한동훈 딸 수사)	74	10.12.
7	**MDL 재설정・DMZ・북한군 침범**	67	10.07.
8	**막말・쇼츠 국감, 파행** ('쇼츠 6배 증가', '칼퇴 국감')	55	10.12.
9	**정청래 대표 美 비자 보류와 해외 국감**	54	10.09.
10	**외교안보라인 문책론** (정동영 통일장관・이종석 국정원장 해임 요구)	49	10.09.
11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 겸직・이해충돌** (JYP, 황교익 '보은 인사')	48	10.07.
12	**이진숙 과방위 제척 공방,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논란**	46	10.02.
13	**김현지 등 증인 채택 충돌** (이재용・최태원 출석 공방)	42	10.06.
14	**레버리지 ETF 도입・코스피 급락 공방**	35	10.06.
15	**김재섭 의원 경찰 조사, 정원오 칸쿤 의혹**	31	10.06.
16	**영화 '암살자(들)'와 육영수 암살 배후 공방**	30	10.07.
17	**감사원 국감** (유병호 감사위원 '꼬붕' 공방)	27	10.09.
18	**이화영 외부접견・쌍방울 대북송금, 李 재판 재개 공방**	22	10.08.
19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포로 송환**	21	10.06.
20	**브라질 계란 수입 논란, 장관 사퇴 요구** (송미령・윤호중・이억원)	20	10.11.

※ 자료 출처 : 빅카인즈(검색어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별 인용건수가 1개 이상인 의원수 비교≫

위원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비교섭단체・무소속	전체	인용 기사 합계
법제사법위원회	6 / 6	4 / 10	1 / 2	11 / 18	49
정무위원회	7 / 9	1 / 13	1 / 2	9 / 24	17
국방위원회	2 / 6	1 / 9	1 / 2	4 / 17	6
보건복지위원회	3 / 9	1 / 13	0 / 2	4 / 24	6
국토교통위원회	4 / 11	7 / 16	1 / 3	12 / 30	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0 / 7	1 / 10	0 / 2	1 / 19	3
외교통일위원회	2 / 8	3 / 11	1 / 2	6 / 21	5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3 / 6	2 / 11	1 / 2	6 / 19	38
행정안전위원회	6 / 8	4 / 12	0 / 2	10 / 22	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 / 9	0 / 13	0 / 2	2 / 24	3
교육위원회	2 / 6	2 / 8	1 / 2	5 / 16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 6	2 / 9	0 / 1	5 / 16	9

위원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비교섭단체・무소속	전체	인용 기사 합계
기후에너지환경노동	5 / 10	1 / 14	0 / 2	6 / 26	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 / 8	3 / 12	1 / 2	6 / 22	11

※ 비교섭단체・무소속 칸은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무소속을 합친 값.
숫자표기 : 인용건수 1개 이상 의원수/상임위 소속 전체의원수

≪자료 보도인용건수 상위 10명≫

순위	의원	정당	상임위원회	언급기사	의원지칭기사	자료・지적 인용기사
1	한동훈	무 소 속	외교통일위원회	113	50	28
2	이진숙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57	39	26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89	54	21
4	손 솔	진 보 당	법제사법위원회	34	11	9
5	김태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61	13	8
6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35	9	7
7	김재섭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39	28	6
8	김은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20	6	6
9	주진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38	9	5
10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6	5	5

비고 : 1. 언급 기사: 빅카인즈 '인물' 항목이나 제목・본문(앞 200자)에 이름이 나온 기사(당대표 발언・논란 기사 포함).
2. 의원 지칭 기사: 제목에 이름이 나오거나 제목・본문 앞부분에 'OOO (정당) 의원'으로 지칭된 기사.
3. 자료・지적 인용 기사: 의원 지칭 기사 중 '자료・따르면・제출받・지적・질의・분석' 등이 함께 나온 기사(국감 자료・질의 보도에 가장 가까운 지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구태는 여전

1. 조정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과 동행의원의 국감 불참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간 이탈리아와 교황청,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공식방문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황희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이 동행했다.

지난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감사 첫날 국정감사장을 돌면서 감사활동 격려를 했는데,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무려 8박 10일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을 공식 방문했고, 순방 일정에 박정, 허영, 박상혁 의원이 동행했다. 박정, 허영,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2. 시간 제약으로 인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의 질의・답변

⇒ **국민의 충분한 알권리 차단** **(감사위원별 마이크 커진 상태는 종합정밀평가시 발표)**

상임위원장은 감사시작할 때 질의시간을 7분, 5분, 3분으로 지정하면서 꼭 질의시간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지만, 대부분 의원들은 질의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양해를 구해

서 1분 정도 더 질의를 한다. 대부분 질의시간을 넘기면 마이크가 중단되어 소리 없는 국정감사를 하므로, 이를 시청하던 국민들은 피감기관의 답변을 통해 질의내용을 유추하게 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현상은 여전하였다.

제한 시간이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질의를 하여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무슨 질의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기도 하였다.

3. 국정감사 기간 중 현장시찰 여전

853개 기관 증인에 대한 질의와 위원회 별로 신청된 일반증인과 참고인 신문에도 턱없이 부족한 국정감사 시간인데, 17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중 현장시찰을 모두 21회나 하였다.

감사기간 중 현장시찰이 많았던 위원회는 국방위(위원장 진성준)로 4회였으며, 과방위(위원장 송기헌), 문체위(위원장 이재정)는 각 3회였다. 문체위의 경우는 증인채택 파행으로 인해 현장시찰(부산국제영화제)까지 반쪽으로 진행되었다.

제22대 국회에서 현장시찰은 매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유독 문화체육관광위원회만 지난해 2회에서 올해 3회로 늘어났다.

≪제22대 국회 연도별 국정감사 현장시찰(현장점검) 횟수 비교≫

연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전년대비
시찰횟수	27	23	21	-2

※ 자료 : 국회사무처 각 연도별 국정감사수첩(2026년도는 2026.10.14자 기준)

≪제22대 국정감사 현장시찰 횟수 비교≫

상임위원회 (명칭, 2026기준)	2024년도 시찰횟수	2025년도 시찰횟수	2026년도 시찰횟수	증감비교 (25→26)
국회운영위원회	0	0	0	0
법제사법위원회	1	1	0	-1
정무위원회	1	1	1	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1	1	0
교육위원회	3	1	0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4	3	3	0
외교통일위원회	0	0	0	0
국방위원회	3	4	4	0
행정안전위원회	2	0	0	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2	3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3	1	1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	2	2	0
보건복지위원회	0	1	0	-1
기후에너지환경노동	3	3	2	-1
국토교통위원회	1	1	2	+1
정보위원회	1	1	1	0
성평등가족위원회	1	1	1	0
합계	27	23	21	-2

※ 국회사무처 발행 각 연도별 국정감사 수첩(2026년도는 10.14. 이전 연도는 최종 기준)

≪국회공보에 나온 2026년도 국정감사 현장시찰 내역≫

감사일	위원회	구분	피감기관	장소
10.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현장시찰	나로우주센터	나로우주센터(전남고흥)
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현장시찰	우주항공청등2개기관	경남 사천
10.12.	국 방 위 원 회	현장시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대전)
10.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현장시찰	부경양돈 농협유통센터	부경양돈농협(김해)
10.15.	국 방 위 원 회	현장시찰	공군제1전투비행단	공군제1전투비행단(광주)
10.15.	국 방 위 원 회	현장시찰	상무대	상무대(장성)
1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시찰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부산
10.16.	국 방 위 원 회	현장시찰	기아	기아(광주)
10.16.	국 방 위 원 회	현장시찰	육군제31보병사단	육군제31보병사단(무안)
10.16.	국 방 위 원 회	현장시찰	해군제3함대사령부	해군제3함대사령부(목포)
10.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시찰	기장영화촬영소 등	기장영화촬영소등(부산)
10.1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장시찰 (지방1반)	조달청 비축기지	조달청비축기지(군산)
10.1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장시찰 (지방2반)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한국조폐공사화폐본부(경산)
10.16.	정 무 위 원 회	현장시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
10.20.	국 토 교 통 위 원 회	현장시찰	현대자동차남양연구소,자동차안전연구원	경기 화성
10.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	현장시찰	장주기BESS발전소,두산윈드파워센터등	제주
10.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현장시찰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구미하우스,씨엠티엑스M캠퍼스	경북 구미

※ 출처 : 국회공보(10.7.~10.21)

4. 국정감사 중 증인채택 회의 10월 22일까지 총 41회

모니터 대상이 아닌 정보위원회를 뺀 16개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분석해 보면,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위원회가 모두 41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 도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송기헌)와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각 5회로 가장 많았다. 행안위는 이 중 3회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에 썼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4회를 열었다.

41회 중 31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추가·변경·철회하는 안건이었다. 23회는 안건만 처리하고 "정회 후 속개되지 아니함"으로 끝났고, 회의 시간 가운데값은 3분이었다. 예전에는 국회공보로 어떤 증인이 추가 채택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공보에 안건만 적고, 누가 언제 왜 출석요구됐는지는 회의록으로만 공개한다. 회의록이 늦게 올라온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었지만, 철회된 증인보다 추가로 출석요구된 증인이 더 많았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처리했다. 10.7. 인사청문요청안을 상정하고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10.14. 청문회를 열었으며,

10.15.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도 10.22.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동행명령장은 3개 위원회가 발부했다. 행정안전위원회(10.06.),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정, 10.1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정호, 10.19. 제5차 전체회의)다.

≪2026년도 국정감사기간 중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현황≫

감사일	위원회	차수	안건
10.0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제4차	1. 2026년도 국정감사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변경의 건
10.06.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제4차	1. 2026년도 국정감사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06.	법제사법위원회	제9차	1.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변경의 건 2. 2026년도 국정감사증인·참고인 추가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
10.0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6차	1. 2026년도 국정감사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위임의 건
10.06.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1. 국정감사증인출석요구변경의 건 2. 국정감사증인출석요구철회의 건 3. 2026년도 국정감사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발부의 건
10.07.	교육위원회	제3차	1. 2026년도 국정감사증인 출석요구추가 및 변경의 건
10.07.	국방위원회	제5차	1. 이재명정부의 DMZ북한추정지뢰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장병 예우·지원촉구결의안(나경원의원대표발의) 2.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지뢰 폭발사고 규탄결의안(진성준의원발의)
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제3차	1.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변경의 건
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차	1. 간사선임의 건 2. 소위원장선출의 건
10.07.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1. 2026년도 국정감사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제4차	1. 2026년도 국정감사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0.07.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1.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김지용)인사청문요청안 2. 같은후보자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채택의 건 3. 같은인사청문회자료제출요구의 건 4. 같은인사청문회증인·참고인출석요구의 건
10.08.	정무위원회	제6차	1.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추가의 건
10.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제5차	1.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위원 제척의 건
10.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5차	1.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추가의 건
10.12.	정무위원회	제7차	1.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변경의 건
10.12.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1.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2.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0.13.	국방위원회	제6차	1. 안건미정
10.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제5차	1. 소위원회구성 및 소위원장선출의 건 2. 2026년도 국정감사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3. 대미투자관련 비공개보고 내용녹취·유출사건에 대한 수사촉구결의문채택의 건
10.1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7차	1.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출석요구의 건
10.13.	정무위원회	제8차	1.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등 출석요구 추가의 건
10.14.	교육위원회	제4차	1. 소위원회구성의 건
10.14.	국방위원회	제7차	1.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 추가의 건 2. DMZ북한추정지뢰참사관련결의안(나경원의원대표발의) 3. 북한지뢰폭발사고규탄결의안(진성준의원발의) 4.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지뢰도발 규탄결의안(대안)(위원장)
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제4차	1.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6차	1.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추가의 건

감사일	위원회	차수	안건
10.14.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1.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0.14.	성평등가족위원회	제3차	1.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3.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14.	행정안전위원회	제7차	1.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2.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김지용)인사청문요청안 3.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김지용)인사청문회
10.1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제6차	1.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2.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3.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10.15.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1.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0.15.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1.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김지용)인사청문요청안 2.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김지용)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의건 3. 2026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4. 2026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0.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제7차	1. 업무현황보고(비공개) 가.(주)문화방송
10.16.	교육위원회	제5차	1.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 및 변경의 건 2.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10.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제5차	1. 202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발부의 건
1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제5차	1. 문서검증의건
10.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7차	1. 업무보고(비공개) 가.연합뉴스
10.19.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1.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2. 2026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0.20.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1 .2026년도국정감사계획서변경의건 2. 2026년도국정감사참고인출석요구추가의건
10.21.	국회운영위원회	제3차	1. 2026년도국정감사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2. 2026년도국정감사증인등출석요구의건 3. 2026년도국정감사계획서변경의건
10.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8차	1. 2026년도국정감사증인출석요구추가의건 2. 2026년도국정감사참고인출석요구추가의건
10.22.	국토교통위원회	제6차	1. 2026년도국정감사증인·참고인출석요구변경의건
10.22.	법제사법위원회	제10차	1.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인사청문요청안 2.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의건

※ 출처 : 국회공보 (2026. 10.7~10.23)

5. 막말, 고성 행태로 국정감사 품격 상실

① 10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취지의 발언을 옹호하며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발언해 소방노조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결국 부승찬 의원은 사과했다.

②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이 10월 19일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지사의 사과를 두고 "속칭 **'개사과'** 아니냐"고 했다.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책감사가 아니라고 반발해 고성이 오갔다.

③ 10월 7일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충권 의원의 질의 중에 "생리현상은 제어하기 어렵다. 상대방 표정 감시하지 말라"고 해 소동이 빚어졌다.

④ 10월 7일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정동영 장관을 '**북동영 장관**'이라 부르겠다고 해 소란이 빚어졌다.

⑤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정헌의원(더불어민주)이 이진숙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친묘소 사진을 찍어 올린 행위에 대해서 '**패륜행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해 소란이 빚어졌다.

⑥ 10월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그마한 파우치' 때문에 하해와 같은 은덕으로 사장이 됐고**"라고 해 소란이 있었다.

⑦ 10월 23일 국토위에서 대통령 골프 의혹 공방 중 모경종 의원(민주)이 "'사이버 렉카'식 질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은혜 의원(국힘)은 "김현지 주문받으셨나"라고 맞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위원의 2026년도 국정감사 중 막말 내역≫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정리)

날짜	감사대상	발언자(정당)	논란이 된 발언
10.06.	대법원	손 솔(진)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
10.06.	대법원	김태규(국)	부엉이바위 진실을 하나 만듭시다. 김용민,부엉이바위는 긁혔어?
10.06.	대법원	박은정(혁) 김용민(민)	인간이 되세요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
10.06.	대법원	서영교(민, 위원장) 박형수(국)	조직폭력배 여자깡패
10.08.	법무부	곽규택(국)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
10.08.	법무부	김용민(민)	쇼츠조회수 올리고 후원금 구걸하고 있다
10.08.	법무부	박균택(민)	그러니까 인간이 되라는 말을 듣는 것
10.12.	감사원	박지원(민)	'망사원'으로 만든 사람들", '타이거파' 부두목, 유병호 꼬붕 아니었느냐
10.12.	감사원	윤상현(국)	당나라감사원이됐다
10.13.	공수처	김민전(국)	부러우면 (교도소에) 가보세요
10.13.	헌법재판소	주진우(국)・김동아(민)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버튼이 눌린거 같다,진짜막말의 달인과 '사이버렉카'는이재명대통령,쇼하고 있다, 쇼츠잘찍고있다
10.13.	공수처	박지원(민)	아직도 당신이 검사인가. 나같으면,법률비서관했으면 자살한다
10.20	대구고법등 (지방2반)	김태규(국)	좌익성향의 법원학술단체들은 이슈만 생기면 벌떼같이 일어나더니

6. 이목끌기 국감 - 유명연예인 참고인 출석

'대통령 직속 K컬처 위원장' 박진영, 국정감사 증인 채택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이자 창의성 총괄 책임자(CCO) 박진영이 2026년 10월 7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신분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자진 출석했다. **글로벌 K팝 프로젝트 '패노메논' 특혜 의혹 때문이었는데,** JYP・하이브・SM・YG 등 4대 기획사가 참여하는 '패노메

논' 프로젝트가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박 위원장은 "각 기획사 대표 가수들이 이 행사를 안 하고 따로 공연하면 2~3배 수익을 내는 상황이라 오히려 수백억 원대 희생을 담보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반박했다. 배현진 의원이 입수한 계약서에 대해 위원장인 이재정 위원장이 압수한다고 해서 의사진행으로 소란했다.

국회공보를 통해 본 2026년도 국정감사의 화제성 통계자료

1.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라 정시에 감사개시가 된 경우

국감 첫날 국정감사 개시시각을 지킨 위원회는 재정경제위(위원장 조승래)가 유일했다. 모니터위원들은 10시가 지난 후에도 중계예정을 바라보아야 했다.

10월 23일까지 국회 공보를 확인해 본 결과, 재외공관 국정감사와 지방 분반국감을 제외하고 딱 1곳만 정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2026년도 정시에 감사개시된 국정감사 현황 ≫

(분석기간 2026.10.6.~2026.10.20)

상임위원회	감사일자	감사종료	피감기관	감사장소	출석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12.**	**18:30:00**	**한국은행**	**한국은행본점**	**20/22**

2. 2026년도 국정감사 중 11시 이후에 국정감사가 종료된 경우 15곳

2026년도 감사종료시간이 가장 늦게 끝난 것은 10.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장 김정호)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국정감사로 자정을 넘겨 24시 39분에 마무리되었다. 증인채택 논란의 영향이었다.

이외에도 한 번 더 자정을 넘겼는데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유의동)의 10.07.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로 블랙리스트 소동을 늦게까지 진행되었다(24:18 종료) .

≪23시를 넘긴 2026년도 국정감사 현황≫

(분석기간 :2026. 10.6~10.20)

상임위원회	일자	개시	종료	대상기관	기관수	장소	출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06.	10:25	23:51	기후에너지환경부	1	국회	25
법제사법위원회	10.06.	10:11	23:13	대법원(법원행정처)	7	국회	18
외교통일위원회	10.06.	10:03	23:28	외교부	5	국회	21
정 무 위 원 회	10.06.	10:06	23:44	국가보훈부	5	국회	21
행정안전위원회	10.06.	10:17	23:32	행정안전부	11	국회	21
국토교통위원회	10.07.	10:03	24:18	국토교통	3	국회	29
법제사법위원회	10.08.	10:17	23:08	법무부	4	국회	18
보건복지위원회	10.08.	15:04	23:14	보건복지부	2	국회	23
재정경제기획	10.08.	10:29	23:00	기획예산처	1	국회	20
정 무 위 원 회	10.08.	10:07	23:39	금융위원회	3	국회	22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13.	10:08	23:03	고용노동부	1	국회	25
정 무 위 원 회	10.13.	10:21	23:16	국무조정실	4	국회	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15.	10:08	23:22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	32	국회	26

정 무 위 원 회	10.19.	10:03	23:06	금융감독원	3	국회	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19.	10:15	24:39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4	국회	26

3. 국정감사 중 가장 일찍 감사종료된 경우 (10.23. 현재, 분반 국감 제외)

2026년도 국정감사 중 가장 일찍 감사가 종료된 경우는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위원장 진성준)의 병무청 등 국정감사로 10월 12일 오전 10시 7분에 시작해 12시 40분에 감사 종료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등 현장시찰을 떠났다.

4. 감사는 뒷전 고성 지연 소란 등 파행 13건

정책 이견 때문에 파행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 대부분 절차와 인물을 둘러싼 충돌이었다. 10월 6~23일 감사일 13일 동안 13건에서 파행·정회·퇴장이 있었다.

① **초반에 몰렸고, 종합감사 들어 잦아들었다**

6~16일(감사일 8일)에 10건이 나왔다. 하루에 한 건 이상 꾸준히 생긴 셈다. 19~23일(5일)에는 3건으로 줄었고, 종합감사가 몰린 22·23일은 0건이다.

② **피켓 다툼은 첫 주 이후 사라져**

후반 파행은 대부분 피감기관장과의 충돌이었다. 특히 19일 경기도와 21일 울산시처럼 광역단체장 감사에서 두 건이 나왔다.

③ **퇴장은 모두 국민의힘**

퇴장이 들어간 5건(14·15·19·21일, 8일 재경위) 가운데 4건이 국민의힘 단독 퇴장이다. 8일 재경위만 여야가 함께 회의장을 떠났다. 증인 채택이 무산되거나 피감기관장 태도가 문제가 될 때 야당이 퇴장으로 대응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퇴장한 뒤에도 감사는 대부분 이어졌다. 그래서 '중지'보다 피해는 작았지만, 그 시간 동안 야당 질의는 빠졌다.

④ **위원회마다 구조적 갈등**

과방위 2건 : 둘 다 이진숙 의원 제척 문제다. 12일에는 정책 질의가 사실상 없었고, 16일에는 감사가 다시 중지됐다. 22일 헌재가 제척 효력을 일부만 인정하면서 진정됐다.

기후노동위 2건 : 둘 다 자료·증인 갈등이다. 23일에는 산재 기업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아 '맹탕 국감' 비판으로 번졌다.

법사위 2건 : 첫날 대법원장 감사가 소란했고, 이후에도 고성이 세 번(19·22일 등) 오갔다. 갈등 수위가 가장 높은 위원회다.

감사 중지까지 간 2건(공정위, KBS)은 모두 감사 초반 2주 안에 나왔다.

⑤ **고성만 오가고 파행은 피한 경우도**

외통위(7일), 법사위(19·22일), 국토위(23일)는 고성은 있었지만 감사가 멈추지는 않았다. 위원장의 중재나 정회 없이 넘어간 사례들이다. 19일 국토위는 감사반장의 중재로 재개했다.

≪모니터 보고에 의한 2026년도 파행 현황≫

(기간 : 2026.10.06.~23)

일자	위원회(피감기관)	유형	경위와 전개
10.06.	법사위(대법원)	사실상 파행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와 이석 문제로 공방/12시 40분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 하루종일 소란
10.07.	농해수위(농식품부)	정회	국민의힘의 농지 전수조사 비판 피켓을 두고 철거 공방이 벌어져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
10.08.	재경위(기획예산처)	지연・퇴장	"미래대응기금 철회" 피켓 철거를 두고 여야가 회의장을 떠나 약 30분 지연
10.08.	법사위(법무부)	개의 지연	위원장 6인분 발언으로 예정보다 약 1시간 늦게 시작.
10.12.	과방위(방미통위)	사실상 파행	이진숙 의원 제척안이 가결(12:0)되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
10.12.	정무위(공정위)	감사중지	오후 10시 직후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거부되면서 중지
10.13.	복지위(식약처)	정회	제넨셀 의혹 증인 채택을 두고 팻말과 고성이 오간 끝에 10분간 정회.
10.14.	문체위(관광공사 등)	퇴장	'암살자(들)' 감독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이 퇴장
10.15.	기후노동위(환경부산하)	파행・퇴장	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인사자료 제출을 거부/오후에는 국민의힘이 퇴장.
10.16.	과방위(KBS・EBS 등)	감사 중지	이진숙 의원 제척유지를 두고 다시 충돌 /1시간30분만에 정회했고, 재개한 뒤 오후 6시17분께 감사 중지
10.19.	기후노동위(한전 등)	퇴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임원 증인채택을 두고 공방 끝에 국민의힘이 퇴장
10.19.	국토위(경기도)	일시 중단	추미애 지사의 '소방재정빨대'발언사과를 두고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 회의가 중단, 부승찬 의원의 발언문제, 복기왕 감사반장의 중재로 재개
10.21	행안위(울산시)	퇴장・정회	김상욱 울산시장이 답변을 거부하고 태도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위원 전원이 퇴장. 중간에 10분간 정회

5. 시기(정기국회 전) 및 기간(30일) 모두 법과 원칙 안 지키고 예외로 운영

19대 국회(2012년)에서 정기국회 전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실시하지 못하도록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즉,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진행하였고, 감사기간도 30일이 아닌 20일 내외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더욱 이번 2026년도 국정감사에는 명목 국정감사일수는 22일로 편성되었으나, 감사기간에 9일 한글날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국정감사법이 실시된 국정감사의 국감기간 현황≫

국회	정부	집권여당	연도	시작일(요일)	종료일(요일)	명목일수
제19대	이명박정부	한나라당	2012	2012.10.05.(금)	2012.10.24.(수)	**20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3	2013.10.14.(월)	2013.11.02.(토)	**20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4	2014.10.07.(화)	2014.10.27.(월)	**21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5	2015.9.10.(목)	2015.10.09.(금)	**23일**
제20대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2016	2016.09.26.(월)	2016.10.18.(화)	**23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17	2017.10.12.(목)	2017.10.31.(화)	**20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18	2018.10.10.(금)	2018.10.29.(월)	**20일**

국회	정부	집권여당	연도	시작일(요일)	종료일(요일)	명목일수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19	2019.10.02.(수)	2019.10.21.(월)	**20일**
제21대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20	2020.10.07.(수)	2020.10.26.(월)	**20일**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2021	2021.10.01.(금)	2021.10.21.(목)	**21일**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2022	2022.10.04.(화)	2022.10.24.(월)	**21일**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2023	2023.10.10.(화)	2023.10.27.(금)	**18일**
제22대	**윤석열정부**	**국민의힘**	2024	2024.10.07.(월)	2024.10.25.(금)	**19일**
	이재명정부	**더불어민주당**	2025	2025.10.13.(월)	2025.10.30.(목)	**18일**
	이재명정부	**더불어민주당**	2026	2026.10.06.(화)	2026.10.27.(화)	**22일**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감사)** ①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2026년도 위원회 감사계획서의 감사기간은 2025.10.27.(화)까지로 되어 있으나, 14개 상임위원회 중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3개 상임위원회만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됨

7. 고질적 병폐 동시수감 여전

(1) 10개 이상 동시수감기관 총괄

10개 이상 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한 경우는 **31번이**다. 국회공보에 기록된 감사 130회(현장시찰 제외, 10.22. 감사분까지)의 4분의 1에 가깝다.

종합감사 3번을 빼면, 10개 이상 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한 경우는 **28번이다**. 뺀 3번은 10.21. 정무위 31개, 10.22. 농해수위 29개, 10.22. 산자중기위 23개이다. 10개 이상 28번 (기관 수 합계 455곳)이다. **위원회별는** 기후노동위와 법사위가 4번씩으로 가장 많다. 교육・문체・국방・복지위가 3번씩이다. 28번 평균 감사시간은 기관당 31.1분이다.

≪20개 이상 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한 경우는 8번≫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기관수	감사시간
10.20.	과 방 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54개	8시간 9분
10.15.	기후노동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등	32개	13시간 14분
10.21.	정 무 위	국가보훈부 등(종합감사)	31개	11시간 39분
10.7.	국 방 위	국방부 등	30개	12시간 18분
10.22.	농 해 수 위	농림축산식품부 등(종합감사)	29개	8시간 14분
10.19.	문 체 위	국립중앙박물관 등	26개	6시간 36분
10.19.	기후노동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24개	14시간 22분
10.22.	산자중기위	산업통상부 등(종합감사)	23개	12시간 34분

지방 감사 4번 : 10개 이상 기관을 3시간도 안 걸려 끝냈다. 재경위 지방국세청: 10개 기관 1시간 51분, 11개 기관 1시간 56분 법사위 고법: 11개 기관 1시간 56분, 12개 기관 2시간 28분이다.

(2) 10.20. 과방위의 과학연 국정감사 상세

10.20. 과방위 감사(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54개 기관)에서 기관장이 질문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기관은 31곳(57.4%)이다.

구분	기관수
질문 받음	23곳
질문 못 받음	**31곳**
ㄴ 기관장이 기록에 아예 안 나옴	28곳
ㄴ 기관장이 발언은 했지만 질문은 못받음(생명연・기초과학연구원・원자력의학원)	3곳
질문은 받았지만 의원 1명에게서만	12곳
질문 없음 + 1명에게서만	**43곳 (79.6%)**

질문을 못 받은 31곳 중 답변기록에 안 나온 28곳(출연연: 녹색기술연구소, 기초지원연, 핵융합연, 한의학연, 지질자원연, 재료연, 에너지연, 천문연, 항공우주연, 전기연, 화학연, 국가독성과학연구소,대학・부설: DGIST, 뇌연구원, 고등과학원, 과학영재학교,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재단・과학관 등: 특구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대구・광주・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과학기술인공제회, 과총, 한림원), **발언만 한 3곳**(생명연, 기초과학연구원, 원자력의학원)

의원 1명에게서만 질문받은 기관은 12개다. (KISTI, 표준연, 원자력연, 생기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식품연, 세계김치연구소, 기계연, 나노종합기술원, KISTEP, 강원전문과학관, UST)

반대로 질문이 몰린 곳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답변 16건, 의원 12명), KAIST(11건, 9명), 한국연구재단(7건, 6명)이었다.

(3) 28건을 합하면 분석한 452곳 중 169곳(37.4%)이 질의를 받지 못했다. 의원 1명에게만 질의를 받은 곳은 85곳다. 감사 대상 절반 넘게 질의를 못 받은 감사가 8번이다.

≪질의를 못 받은 기관이 많은 국정감사 현황≫

감사	질의 못 받은 기관
10.8. 기후노동위 기상청 등	17곳 중 16곳 (94%)
10.19. 국방위 육군본부 등	11곳 중 10곳 (91%)
10.6. 과방위 과기정통부 등	11곳 중 9곳 (82%)
10.7. 국방위 국방부 등	30곳 중 24곳 (80%)
10.13. 복지위 식약처 등	14곳 중 10곳 (71%)

반대로 산자중기위 3번과 교육위 10.16.・10.21., 기후노동위 10.16., 법사위 10.19.는 질의를 못 받은 기관이 없었다.

≪별첨≫

2026 국정감사 의원별 질의 · 발언 분석

(10.6.~10.23., 회의록 122건)

▣ 전체 분석

영상회의록에 나온 의원 292명이 질의 5,587건, 595시간을 썼다. 질의 1건 평균은 6분 24초(중앙값 6분 16초)다.

▣ 1인 평균

위원장을 뺀 278명의 1인 평균은 질의 19.7회, 2시간 5분 17초다. 2시간 이상이 173명(62.2%), 1~2시간 구간이 82명(29.5%), 30분 미만은 2명(0.7%)이다.

▣ 정당별

국민의힘 1인 평균(20.7회 • 2:10:58)이 더불어민주당(18.9회 • 2:01:06)보다 1.9회 • 10분 많다. 의원 수가 적은 진보당(20.8회 • 2:11:41), 조국혁신당(22.0회 • 2:13:30), 개혁신당(22.3회 • 2:20:59)은 1인당 질의가 더 많다.

▣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을 뺀 의원의 1인 평균 발언(의사진행 등)은 국민의힘 4.8회 • 9분 9초로 민주당(2.4회 • 4분 41초)의 약 2배다.

▣ 여야 비교(위원회별 1인 평균)

14개 위원회 중 10곳에서 국민의힘 1인 평균 질의 시간이 민주당보다 길었다(위원장 제외). 차이가 큰 곳은 국방위(국힘 2:05:13 대 민주 1:38:18), 문체위(2:38:50 대 2:23:28), 기후노동위(1:55:45 대 1:40:36)다. 민주당이 긴 곳은 행안위(2:34:39 대 2:14:58)이고, 재경위 • 과방위 • 농해수위는 1~2분 차이로 거의 같다.

▣ 위원장

위원장 14명이 쓴 시간은 발언 • 질의 43.8시간, 회의 진행까지 합치면 64.0시간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발언 170회 • 6시간 13분으로 가장 많고, 위원장으로서 질의도 21회(3:11:19) 했다. 감사 122건 중 69건에서 위원장 질의 • 발언이 위원 1인 평균 질의보다 길었고(평균 1.38배), 3배 이상 10건 중 7건이 서영교 위원장이다.

▣ 심야 감사

질의 5,587건 중 333건(6.0%)이 밤 10시 이후 시작됐다. 기후노동위(16.9%), 외통위(14.9%, 회의록 2건), 정무위(13.3%), 행안위(6.9%) 순으로 심야 질의 비율이 높다. 농해수위는 0건이다.

▣ 6.3 재보선 · 지도부

6・3 재보선 당선 의원 14명의 1인 평균은 질의 20.3회・2:00:51로 전체 평균(19.7회・2:05:17)과 비슷하다. 국토교통위원장이라 질의 대신 회의를 진행한 유의동 의원(발언 48회・56분 22초)을 빼면 13명 평균은 21.8회・2:09:46으로 전체 평균보다 조금 많다. 여야 지도부 4명은 13.0회・1:16:15로 평균의 6할 수준이다(장동혁 28회, 한병도 17회, 김민석 5회, 정점식 2회).

≪위원회별 질의시간 종합≫

위원회	감사한 곳	위원수	총질의 횟수	총질의시간	1인평균질의시간	민주당 1인 평균(위원장 제외)	국민의힘 1인 평균(위원장 제외)
법제사법위원회	14	18	449	47:19:49	2:37:46	2:32:25	2:39:54
정무위원회	8	23	460	48:35:50	2:06:47	2:02:11	2:16:41
재정경제기획	10	21	522	54:59:33	2:37:07	2:48:04	2:49:06
교육위원회	9	15	362	39:43:52	2:38:55	2:28:07	2:38:4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8	18	360	34:43:56	1:55:46	2:02:23	2:02:12
외교통일위원회	2	21	121	13:05:51	0:37:25	0:36:04	0:36:46
국방위원회	8	17	290	29:17:39	1:43:23	1:41:49	2:05:13
행정안전위원회	16	22	447	50:51:05	2:18:41	2:34:39	2:14:58
문화체육관광	7	16	400	39:16:10	2:27:16	2:23:44	2:38:5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8	18	408	40:20:00	2:22:21	2:23:14	2:21: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8	24	395	44:36:45	1:51:32	1:47:51	2:01:26
보건복지위원회	8	24	434	50:08:41	2:05:22	1:59:37	2:07: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	7	26	403	45:16:44	1:44:29	1:40:36	1:53:28
국토교통위원회	9	30	536	57:02:06	1:54:04	1:52:48	2:06:04

※ 제외된 곳 : 영상회의록이 없는 행정안전위원회 3곳와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

≪국정감사 질의 답변시간 교섭단체 1위 의원≫

(근거 : 2026.10.6~23, 분석가능 영상회의록)

위원회	상임위 1인 평균질의횟수와 시간	민주당 1위 의원명/질의횟수/질의시간	국민의힘 1위 의원명/질의횟수/질의시간
법사위	25.0회 2:34:16	김기표 26회 3:06:33	김태규 28회 3:02:18
정무위	20.5회 2:09:19	민병덕 23회 2:37:13	신동욱 25회 2:31:57
재경위	25.8회 2:43:12	안도걸 30회 3:28:29	안상훈 31회 3:19:48
교육위	24.9회 2:38:27	백승아 28회 2:58:05	서범수 26회 2:54:44
과방위	21.1회 2:02:22	이정헌 24회 2:19:58	박정하 22회 2:15:20
외통위	5.8회 0:36:56	홍기원 7회 0:45:29	권영세 6회 0:44:43
국방위	17.7회 1:47:05	송영길 20회 2:02:55	성일종 20회 2:14:25
행안위	21.2회 2:24:56	이해식 24회 2:46:28	김예지 25회 3:37:33
문체위	25.9회 2:30:07	임오경 32회 2:57:50	김승수 31회 3:10:04
농해수위	24.0회 2:22:03	임미애 26회 2:38:03	강승규 24회 2:26:54
산자중기위	16.7회 1:53:37	권향엽 18회 2:05:39	서지영 17회 2:13:08
복지위	18.1회 2:05:43	서미화 18회 2:36:29	최보윤 23회 2:54:09
기후노동위	16.0회 1:47:10	이용우 21회 2:22:39	김기현 20회 2:07:22
국토위	18.5회 1:58:23	염태영 22회 2:21:34	유상범 22회 2:27:02

위원장 질의 및 발언시간과 위원 질의시간 비교

1. 위원장이 위원보다 마이크를 오래 잡았다.

감사 한 번에 위원 1인 평균 질의 시간은 16분 4초다. 같은 감사에서 위원장이 쓴 질의·발언 시간은 평균 22분 44초로 1.38배다. 122건 중 69건(56.6%)은 위원장이 위원 평균보다 길었다. 2배 이상은 27건, 3배 이상은 10건이다.

2. 법사위가 압도적이다.

법사위는 위원 평균이 12분 51초인데 위원장은 평균 42분 12초를 썼다(3.07배). 3배를 넘은 10건 중 7건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다. 가장 큰 차이는 10.6. 대법원 감사로, 위원장이 1시간 51분 32초(발언 34회)를 써 위원 평균의 6.41배였다. 10.8. 법무부 감사도 1시간 35분(4.66배)이었다.

3. 위원장이 위원 평균의 2배 넘게 말한 위원회가 4곳이다.

위원회	배수
법사위	3.07배
외통위	2.29배 (회의록 2건)
문체위	2.14배
교육위	2.01배

복지위(1.95배), 기후노동위(1.63배), 정무위(1.55배)가 뒤를 잇는다.

4. 위원장이 진행에만 머문 위원회도 5곳이다.

위원회	배수
농해수위	0.36배
재경위	0.42배
행안위	0.54배
국토위	0.58배
국방위	0.84배

이 5곳은 위원장이 위원 평균보다 짧게 말했다. 같은 국감에서도 위원장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8배 넘게 벌어졌다.

5. 3배 이상 10건 중 법사위 외에는 3명이다.

김정호 기후노동위원장: 10.15. 질의 없이 발언 15회, 43분 38초(4.47배)
이만희 복지위원장: 10.8. 질의 3회 포함 53분 12초(3.70배)
이재정 문체위원장: 10.7. 발언 32회 포함 1시간 15분 12초(3.34배)
10건 중 9건이 민주당 위원장이다.

6. 위원장 발언은 대부분 '질의'가 아니라 '발언'이었다.

3배 이상 사례 대부분에서 질의 시간보다 발언 시간이 훨씬 길다. 위원장의

훈계, 증인 압박, 여야 중재 발언이 정작 위원들의 질의 시간을 줄였다는 뜻이다.

≪위원회별 위원장시간과 위원질의시간 비교종합≫

위원회	감사(곳)	위원질의 시간평균	위원장질의・발언시간 평균	평균배수 (위원장/위원)	3배이상(건)
법 사 위	14	0:12:51	0:42:12	3.07배	7
정 무 위	8	0:16:32	0:26:37	1.55배	0
재 경 위	10	0:17:39	0:08:36	0.42배	0
교 육 위	9	0:22:47	0:44:59	2.01배	0
과 방 위	8	0:16:02	0:21:43	1.31배	0
외 통 위	2	0:18:55	0:43:53	2.29배	0
국 방 위	8	0:14:07	0:13:44	0.84배	0
행 안 위	16	0:12:59	0:06:46	0.54배	0
문 체 위	7	0:21:24	0:45:39	2.14배	1
농 해 수 위	8	0:17:48	0:06:27	0.36배	0
산 자 중 기 위	8	0:14:16	0:17:40	1.21배	0
복 지 위	8	0:15:44	0:30:25	1.95배	1
기 후 노 동 위	7	0:15:30	0:22:58	1.63배	1
국 토 위	9	0:15:30	0:09:17	0.58배	0

≪피감기관별 국정감사 질의 답변시간과 위원장 시간 비교현황≫

(근거 : 2026.10.6~23, 분석가능 영상회의록 122개)

연번	상임위	감사일	대상기관	위원장 (반장)	평균 질의횟수	평균 질의시간	위원장 질의시간	위원장 발언시간	위원장질의・발언계	배수 위원장/위원평균
1	법 사 위	10.6.	대법원	**서영교**	2.8	0:17:23	0:18:07	1:33:25	1:51:32	**6.41배**
2	법 사 위	10.8.	법무부	**서영교**	3.1	0:20:28	0:25:10	1:10:13	1:35:23	**4.66배**
3	법 사 위	10.12.	감사원	**서영교**	2.3	0:15:29	0:21:19	0:35:19	0:56:38	**3.66배**
4	법 사 위	10.13.	공수처	**서영교**	1.5	0:07:59	0:13:15	0:09:05	0:22:20	**2.80배**
5	법 사 위	10.13.	헌법재판소	**서영교**	1.2	0:06:51	0:07:44	0:18:38	0:26:22	**3.85배**
6	법 사 위	10.15.	군사법원	**서영교**	1.9	0:09:59	0:17:37	0:16:22	0:33:59	**3.40배**
7	법 사 위	10.15.	법제처	**서영교**	1.4	0:07:59	0:09:10	0:07:16	0:16:26	**2.06배**
8	법 사 위	10.16.	서울고등법원	**서영교**	2.7	0:16:35	0:05:41	0:48:54	0:54:35	**3.29배**
9	법 사 위	10.19.	서울광역공소청	**서영교**	2.3	0:15:00	0:10:24	0:38:01	0:48:25	**3.23배**
10	법 사 위	10.20.	대구고등법원	**박형수**	1.9	0:10:11	0:11:15	0:00:00	0:11:15	**1.11배**
11	법 사 위	10.20.	대구광역공소청	**박형수**	1.7	0:11:28	0:11:37	0:03:38	0:15:15	**1.33배**
12	법 사 위	10.20.	대전고등법원	**서영교**	2.0	0:12:20	0:16:54	0:00:00	0:16:54	**1.37배**
13	법 사 위	10.20.	대전광역공소청	**서영교**	2.0	0:11:56	0:18:32	0:16:20	0:34:52	**2.92배**
14	법 사 위	10.22.	공소청	**서영교**	2.4	0:16:16	0:27:26	0:19:28	0:46:54	**2.88배**
15	정 무 위	10.6.	국가보훈부	**유동수**	3.1	0:18:13	0:11:35	0:18:05	0:29:40	**1.63배**
16	정 무 위	10.8.	금융위원회	**유동수**	3.2	0:19:38	0:10:59	0:29:32	0:40:31	**2.06배**
17	정 무 위	10.12.	공정거래위원회	**유동수**	2.1	0:14:54	0:00:00	0:20:13	0:20:13	**1.36배**
18	정 무 위	10.13.	국무조정실	**유동수**	2.6	0:17:58	0:07:32	0:08:58	0:16:30	**0.92배**
19	정 무 위	10.15.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수**	1.7	0:09:08	0:06:34	0:00:00	0:06:34	**0.72배**

연번	상임위	감사일	대상기관	위원장(반장)	평균 질의횟수	평균 질의시간	위원장 질의시간	위원장 발언시간	위원장질의·발언계	배수 위원장/위원평균
20	정 무 위	10.19.	금융감독원	**유동수**	3.0	0:18:28	0:09:24	0:24:54	0:34:18	**1.86배**
21	정 무 위	10.21.	국가보훈부	**유동수**	2.8	0:17:42	0:16:30	0:18:27	0:34:57	**1.97배**
22	정 무 위	10.22.	금융위원회	**유동수**	2.5	0:16:16	0:08:13	0:21:59	0:30:12	**1.86배**
23	재 경 위	10.6.	재정경제부	**조승래**	3.7	0:20:45	0:04:10	0:10:46	0:14:56	**0.72배**
24	재 경 위	10.8.	기획예산처	**조승래**	3.6	0:23:01	0:00:00	0:13:56	0:13:56	**0.61배**
25	재 경 위	10.12.	한국은행	**조승래**	2.8	0:18:11	0:00:00	0:00:00	0:00:00	**0.00배**
26	재 경 위	10.13.	국세청	**조승래**	2.5	0:17:28	0:00:00	0:04:47	0:04:47	**0.27배**
27	재 경 위	10.15.	국가데이터처	**조승래**	2.8	0:17:48	0:00:00	0:05:36	0:05:36	**0.31배**
28	재 경 위	10.16.	대전지방국세청	**조승래**	1.0	0:08:13	0:00:00	0:00:00	0:00:00	**0.00배**
29	재 경 위	10.16.	부산지방국세청	**배준영**	1.7	0:08:54	0:00:00	0:00:00	0:00:00	**0.00배**
30	재 경 위	10.20.	한국수출입은행	**조승래**	2.6	0:18:10	0:03:21	0:17:47	0:21:08	**1.16배**
31	재 경 위	10.22.	재정경제부	**조승래**	3.8	0:22:25	0:00:00	0:15:14	0:15:14	**0.68배**
32	재 경 위	10.23.	기획예산처	**조승래**	3.5	0:21:37	0:00:00	0:10:22	0:10:22	**0.48배**
33	교 육 위	10.7.	교육부	**김희정**	4.2	0:26:23	0:35:06	0:27:26	1:02:32	**2.37배**
34	교 육 위	10.12.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희정**	3.6	0:21:28	0:00:00	0:43:34	0:43:34	**2.03배**
35	교 육 위	10.14.	서울교육청	**김희정**	3.4	0:20:02	0:22:26	0:24:27	0:46:53	**2.34배**
36	교 육 위	10.16.	서울대학교	**김희정**	3.4	0:19:31	0:18:49	0:24:58	0:43:47	**2.24배**
37	교 육 위	10.20.	부산광역시교육청	**김희정**	3.6	0:27:52	0:37:20	0:06:26	0:43:46	**1.57배**
38	교 육 위	10.20.	전남광주교육청	**고민정**	3.8	0:26:15	0:26:51	0:00:00	0:26:51	**1.02배**
39	교 육 위	10.21.	부산대학교	**김희정**	2.9	0:20:19	0:39:26	0:08:18	0:47:44	**2.35배**
40	교 육 위	10.21.	전남대학교	**고민정**	2.8	0:20:54	0:34:20	0:01:03	0:35:23	**1.69배**
41	교 육 위	10.23.	교육부	**김희정**	3.8	0:22:22	0:12:30	0:41:49	0:54:19	**2.43배**
42	과 방 위	10.6.	과기정통부	**송기헌**	3.0	0:16:37	0:00:00	0:19:18	0:19:18	**1.16배**
43	과 방 위	10.12.	방미통위	**송기헌**	2.5	0:15:30	0:00:00	0:21:43	0:21:43	**1.40배**
44	과 방 위	10.13.	원안위	**송기헌**	3.2	0:14:57	0:02:41	0:04:44	0:07:25	**0.50배**
45	과 방 위	10.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송기헌**	3.2	0:18:31	0:00:00	0:25:19	0:25:19	**1.37배**
46	과 방 위	10.16.	한국방송공사	**송기헌**	1.3	0:08:32	0:00:00	0:10:18	0:10:18	**1.21배**
47	과 방 위	10.2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송기헌**	2.4	0:16:26	0:09:28	0:07:01	0:16:29	**1.00배**
48	과 방 위	10.22.	방미통위	**송기헌**	3.3	0:19:31	0:01:21	0:42:45	0:44:06	**2.26배**
49	과 방 위	10.23.	과기정통부	**송기헌**	3.1	0:18:15	0:00:00	0:29:04	0:29:04	**1.59배**
50	외 통 위	10.6.	외교부	**송석준**	3.2	0:19:46	0:22:42	0:33:49	0:56:31	**2.86배**
51	외 통 위	10.7.	통일부	**송석준**	2.7	0:18:04	0:24:29	0:06:47	0:31:16	**1.73배**
52	국 방 위	10.7.	국방부	**진성준**	4.4	0:25:31	0:08:29	0:29:39	0:38:08	**1.49배**
53	국 방 위	10.8.	합동참모본부	**진성준**	2.9	0:18:34	0:00:00	0:19:59	0:19:59	**1.08배**
54	국 방 위	10.12.	병무청	**진성준**	1.7	0:08:40	0:04:26	0:04:42	0:09:08	**1.05배**
55	국 방 위	10.13.	방위사업청	**진성준**	2.5	0:16:32	0:00:00	0:08:50	0:08:50	**0.53배**
56	국 방 위	10.19.	육군본부	**진성준**	2.6	0:16:14	0:05:43	0:16:16	0:21:59	**1.35배**
57	국 방 위	10.20.	공군본부	**진성준**	1.8	0:10:02	0:06:21	0:01:28	0:07:49	**0.78배**
58	국 방 위	10.20.	해군본부	**진성준**	1.8	0:09:18	0:00:00	0:02:48	0:02:48	**0.30배**
59	국 방 위	10.22.	사관학교	**진성준**	1.1	0:08:06	0:00:00	0:01:11	0:01:11	**0.15배**
60	행 안 위	10.6.	행정안전부	**김영진**	3.2	0:21:04	0:00:00	0:10:37	0:10:37	**0.50배**
61	행 안 위	10.7.	중앙선관위	**김영진**	2.8	0:18:39	0:00:00	0:13:48	0:13:48	**0.74배**

연번	상임위	감사일	대상기관	위원장 (반장)	평균 질의횟수	평균 질의시간	위원장 질의시간	위원장 발언시간	위원장질의 ·발언계	배수 위원장/위원평균
62	행 안 위	10.12.	경찰청	**김영진**	2.9	0:18:21	0:04:27	0:10:57	0:15:24	**0.84배**
63	행 안 위	10.13.	경기남부경찰청	**김영진**	1.1	0:06:36	0:00:00	0:05:01	0:05:01	**0.76배**
64	행 안 위	10.13.	경기도	**김영진**	1.9	0:15:05	0:00:00	0:02:10	0:02:10	**0.14배**
65	행 안 위	10.15.	서울경찰청	**김영진**	1.1	0:06:11	0:00:00	0:00:50	0:00:50	**0.13배**
66	행 안 위	10.15.	서울특별시	**김영진**	2.0	0:16:09	0:00:00	0:05:47	0:05:47	**0.36배**
67	행 안 위	10.20.	경상북도	**강명구**	1.9	0:12:56	0:06:56	0:02:05	0:09:01	**0.70배**
68	행 안 위	10.20.	충청북도	**김영진**	2.0	0:13:42	0:03:03	0:02:04	0:05:07	**0.37배**
69	행 안 위	10.21.	부산경찰청	**강명구**	1.1	0:06:10	0:00:00	0:06:11	0:06:11	**1.00배**
70	행 안 위	10.21.	부산광역시	**강명구**	2.0	0:14:28	0:08:57	0:00:54	0:09:51	**0.68배**
71	행 안 위	10.21.	울산광역시	**김영진**	1.9	0:15:28	0:00:00	0:02:04	0:02:04	**0.13배**
72	행 안 위	10.22.	전남경찰청	**김영진**	1.0	0:06:21	0:00:00	0:03:05	0:03:05	**0.49배**
73	행 안 위	10.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영진**	2.1	0:15:28	0:00:00	0:03:49	0:03:49	**0.25배**
74	행 안 위	10.22.	제주경찰청	**강명구**	1.2	0:06:50	0:03:35	0:01:11	0:04:46	**0.70배**
75	행 안 위	10.22.	제주특별자치도	**강명구**	2.0	0:14:12	0:09:01	0:01:49	0:10:50	**0.76배**
76	문 체 위	10.7.	문화체육관광부	**이재정**	3.9	0:22:32	0:18:30	0:56:42	1:15:12	**3.34배**
77	문 체 위	10.8.	국가유산청	**이재정**	3.8	0:21:39	0:14:48	0:12:05	0:26:53	**1.24배**
78	문 체 위	10.12.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정**	3.7	0:21:56	0:06:48	0:30:33	0:37:21	**1.70배**
79	문 체 위	10.1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재정**	4.2	0:22:45	0:16:26	0:13:06	0:29:32	**1.30배**
80	문 체 위	10.19.	국립중앙박물관	**이재정**	2.3	0:14:45	0:20:27	0:21:31	0:41:58	**2.84배**
81	문 체 위	10.21.	대한체육회	**이재정**	3.3	0:20:40	0:14:28	0:20:31	0:34:59	**1.69배**
82	문 체 위	10.23.	문화체육관광부	**이재정**	4.5	0:25:31	0:17:23	0:56:15	1:13:38	**2.89배**
83	농 해 수 위	10.7.	농림축산식품부	**서삼석**	3.8	0:21:24	0:00:00	0:08:15	0:08:15	**0.39배**
84	농 해 수 위	10.12.	해양수산부	**서삼석**	3.0	0:16:45	0:00:00	0:06:56	0:06:56	**0.41배**
85	농 해 수 위	10.14.	농촌진흥청	**서삼석**	3.1	0:19:34	0:00:00	0:05:08	0:05:08	**0.26배**
86	농 해 수 위	10.16.	농협중앙회	**서삼석**	2.6	0:16:15	0:00:00	0:08:42	0:08:42	**0.54배**
87	농 해 수 위	10.19.	해양경찰청	**서삼석**	3.1	0:17:10	0:00:00	0:14:03	0:14:03	**0.82배**
88	농 해 수 위	10.20.	산림청	**서삼석**	2.9	0:17:24	0:00:00	0:01:34	0:01:34	**0.09배**
89	농 해 수 위	10.22.	농림축산식품부	**서삼석**	3.1	0:17:55	0:00:00	0:04:17	0:04:17	**0.24배**
90	농 해 수 위	10.23.	해양수산부	**서삼석**	2.5	0:15:56	0:00:00	0:02:40	0:02:40	**0.17배**
91	산자중기위	10.6.	산업통상부	**김성원**	2.7	0:16:46	0:20:47	0:05:43	0:26:30	**1.58배**
92	산자중기위	10.7.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원**	2.1	0:15:09	0:06:16	0:03:32	0:09:48	**0.65배**
93	산자중기위	10.12.	KOTRA	**김성원**	2.0	0:15:11	0:06:28	0:07:20	0:13:48	**0.91배**
94	산자중기위	10.13.	지식재산처	**김성원**	1.3	0:07:14	0:00:00	0:04:56	0:04:56	**0.68배**
95	산자중기위	10.15.	중소벤처진흥공단	**김성원**	2.0	0:14:53	0:09:50	0:18:17	0:28:07	**1.89배**
96	산자중기위	10.19.	한국석유공사	**김성원**	2.0	0:13:09	0:04:26	0:05:40	0:10:06	**0.77배**
97	산자중기위	10.22.	산업통상부	**김성원**	2.6	0:17:42	0:07:22	0:09:26	0:16:48	**0.95배**
98	산자중기위	10.23.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원**	2.0	0:14:07	0:08:31	0:22:49	0:31:20	**2.22배**
99	복 지 위	10.7.	보건복지부	**이만희**	3.0	0:20:07	0:23:29	0:11:25	0:34:54	**1.74배**
100	복 지 위	10.8.	보건복지부	**이만희**	2.2	0:14:23	0:29:36	0:23:36	0:53:12	**3.70배**
101	복 지 위	10.8.	부산대학교병원	**이만희**	1.1	0:06:38	0:03:19	0:07:03	0:10:22	**1.56배**

연번	상임위	감사일	대상기관	위원장 (반장)	평균 질의횟수	평균 질의시간	위원장 질의시간	위원장 발언시간	위원장질의 ·발언계	배수 위원장/위원평균
102	복 지 위	10.13.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만희**	2.8	0:18:01	0:09:45	0:17:23	0:27:08	**1.51배**
103	복 지 위	10.14.	국민연금공단	**이만희**	2.3	0:16:32	0:10:28	0:23:48	0:34:16	**2.07배**
104	복 지 위	10.16.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만희**	2.2	0:15:11	0:15:28	0:14:48	0:30:16	**1.99배**
105	복 지 위	10.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만희**	2.3	0:17:50	0:18:14	0:09:14	0:27:28	**1.54배**
106	복 지 위	10.2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만희**	2.3	0:17:07	0:19:13	0:06:29	0:25:42	**1.50배**
107	기후노동위	10.6.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정호**	2.8	0:18:36	0:10:34	0:09:34	0:20:08	**1.08배**
108	기후노동위	10.8.	기상청	**김정호**	2.1	0:11:30	0:06:25	0:02:18	0:08:43	**0.76배**
109	기후노동위	10.13.	고용노동부	**김정호**	2.8	0:18:44	0:13:08	0:13:35	0:26:43	**1.43배**
110	기후노동위	10.15.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김정호**	1.2	0:09:46	0:00:00	0:43:38	0:43:38	**4.47배**
111	기후노동위	10.16.	경사노위	**김정호**	2.4	0:17:14	0:06:15	0:08:30	0:14:45	**0.86배**
112	기후노동위	10.19.	온실가스정보센터	**김정호**	2.7	0:17:48	0:15:31	0:15:14	0:30:45	**1.73배**
113	기후노동위	10.23.	근로복지공단	**김정호**	2.1	0:14:56	0:00:00	0:16:02	0:16:02	**1.07배**
114	국 토 위	10.7.	국토교통부	**유의동**	2.6	0:16:52	0:00:00	0:12:55	0:12:55	**0.77배**
115	국 토 위	10.8.	한국도로공사	**유의동**	2.0	0:13:12	0:00:00	0:03:50	0:03:50	**0.29배**
116	국 토 위	10.12.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의동**	2.6	0:16:14	0:00:00	0:13:52	0:13:52	**0.85배**
117	국 토 위	10.13.	한국철도공사	**유의동**	2.3	0:14:28	0:00:00	0:01:39	0:01:39	**0.11배**
118	국 토 위	10.15.	한국부동산원	**유의동**	2.1	0:14:01	0:00:00	0:04:17	0:04:17	**0.31배**
119	국 토 위	10.19.	경기도	**복기왕**	2.6	0:19:28	0:15:04	0:04:41	0:19:45	**1.01배**
120	국 토 위	10.19.	서울특별시	**유의동**	2.9	0:20:13	0:00:00	0:04:57	0:04:57	**0.24배**
121	국 토 위	10.22.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의동**	1.9	0:09:34	0:02:39	0:03:05	0:05:44	**0.60배**
122	국 토 위	10.23.	국토교통부	**유의동**	2.5	0:15:31	0:04:48	0:11:47	0:16:35	**1.07배**

끝.